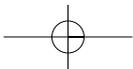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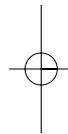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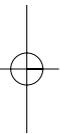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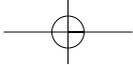


마산의 입향조



온양문화원



발 간 사

알고 싶었고,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두렵습니다.

혹여 우리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신 입향조 후손들께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노력은 하였지만 부족함이 많아서 출간하기가 두렵지만 우리 문화원의 발전과 향토문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용기 내어 내놓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뿌리를 내린 입향 성씨에 대한 자료와 후손들을 알기까지는 범위가 넓어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아산의 입향 성씨에 대한 책을 출간하기를 잘 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산의 입향조」책자에는 처음 아산에 들어와 터전을 잡은 성씨를 파악, 현재까지 아산에서 생활하는 후손들을 만나 문중의 자료와 묘비 등을 기본 자료로 기록하였으며, 사진으로 담아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문중의 재실과 묘비를 찾아 기록을 확인하여 일백 신 아홉 성씨를 수록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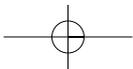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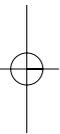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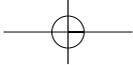
1년 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처 조사과정에서 문헌상에는 나타나 있으나 후손들을 만날 수 없어 수록하지 못한 입향 성씨가 있을 수도 있기에 추후에 그 자료들을 모아 추록으로 펴내고자 합니다.

모쪼록 이 한 권의 책이 아산의 성씨를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기본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편찬을 하기까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료 조사와 현장조사에 애써주신 천경석 선생님, 김일희 선생님, 홍승욱 선생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12월

은양문화원장 김 시 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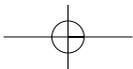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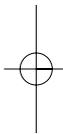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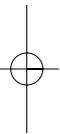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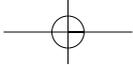


〈일러두기〉

본 《아산의 입향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모두 백 선 아홉(159) 분을 수록하였다.

1. 각 문중에서 ‘아산시 지역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분’을 기준으로 하여 넓은 의미로 ‘입향조(入鄕祖)’라 하였다. ‘낙향조(落鄕祖)’라고 할 경우 한자 사용이 많지 않은 현대의 인식으로는 무엇인가 잘못되어 돌아 온 분이라는 부정적 분위기가 있어서 이를 피하고, 현재 살고 있는 후손들의 뿌리가 되었다는 긍정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2. 본관이 같은 성씨도 파가 다르거나 입향 시기가 다를 경우 별도로 입향조를 파악하였다.
3. 근대 이후부터 해방 전후의 시기에는 이주가 매우 활발하고 복잡하여 입향조의 의미가 낮아지기 때문에 5대(代) 150년 전을 기준으로 하였다.
4. 각 문중에서 문중의 내력을 잘 아는 분을 만나 내력을 듣고 협의하여 판단하였다.
5. 족보 등 문중의 기록과 묘비 등의 명문(銘文)을 기본 자료로 하였으며 정사(正史) 등 공식 기록과 다를 경우 공식 기록을 기준으로 하였다.
6. 입향 지역이 불명확한 경우 묘소가 있는 마을을 기준으로 하였다.
7. 연대는 서기로 표시하였으며, 불확실한 경우 ‘?’로 표시하였다.
8. 연대와 시기, 연령 등은 서기 2009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9. 배열은 입향조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10. 참고 자료나 근거 자료는 별도로 기록하지 않는다.
11. 아산시 지역과 관련된 옛 문헌에 나타난 기록되어 있는 기계유씨, 경주설씨, 창원황씨, 신창표씨 등 여러 집안의 입향조와 관련하여 후손을 만날 수 없거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누락되었음이 몹시 아쉬운 일임을 밝혀둔다.

※추가 : 가능하면 아산시 지역 모든 문중의 입향조를 파악해서 수록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하여 누락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산의 입향조 순서

(가나다순)

순	성명	순	성명	순	성명	순	성명	순	성명	순	성명
1	강자위.강자해	27	김치서	53	성준	79	윤득실	105	이시민	131	정도성
2	강필환	28	김필	54	성지민	80	윤세화	106	이웅	132	정보천
3	고석구	29	김합	55	손길	81	윤수회	107	이욱	133	조계신
4	공부	30	김현증	56	송정원	82	윤양선	108	이유	134	조병심
5	곽금정	31	김혜심	57	신계형	83	윤인	109	이의재	135	조영리
6	구순조	32	김호연	58	신응사	84	윤자임	110	이의호	136	조익
7	권영	33	김효례	59	심광렴	85	윤재탁	111	이인묵	137	주이환
8	권이평	34	남건	60	심대수	86	윤최동	112	이장규	138	지정광
9	권지	35	남발	61	심정방	87	윤흘	113	이정	139	진한호
10	권확	36	남열	62	안거인	88	이경후	114	이정장	140	차유명
11	김계양	37	남확	63	안인노	89	이기	115	이종직	141	채봉장
12	김구	38	노응수	64	안몽란	90	이난손	116	이지호	142	천신조
13	김근직	39	맹희도	65	안수인	91	이대관	117	이진수	143	최덕계
14	김덕원	40	민탁	66	안식	92	이만장	118	이형배	144	최병문
15	김동연	41	박계영	67	안적	93	이복	119	이화	145	최승장
16	김몽열	42	박수현	68	양주일	94	이사늘	120	이희문	146	하선호
17	김삼승	43	박신지	69	오건	95	이사일	121	인인경	147	한승이
18	김상해	44	박지오	70	오윤성	96	이사종	122	임수겸	148	한익명
19	김신남	45	박지계	71	우천오	97	이상량	123	임욱	149	함수억
20	김영	46	박지만	72	원수심	98	이상신	124	임희지	150	허린
21	김응남	47	방동귀	73	원몽성	99	이생인	125	장서	151	현기
22	김의수	48	배극길	74	유득진	100	이서	126	장훈주	152	홍중징
23	김제빈	49	백상덕	75	유잠	101	이석명.이익명	127	전익현	153	홍온
24	김질	50	변자호	76	유형장	102	이성생	128	전민	154	홍익현
25	김징.김담	51	서보수	77	윤근	103	이순경	129	정걸선	155	황도간
26	김척	52	서규수	78	윤동명	104	이습원	130	정순인.정일인		

[1] 진주강씨 강자위 | 姜自渭 (? ~ ?), 강자해 | 姜自海 (? ~ ?) 형제

조선 전기의 문신이며 진주강씨(晉州姜氏) 은열공파 10세(世)로 동생 자해(自海)와 함께 아산시 송악면 동화리 지역 입향조(入鄕祖)이다. 이들 형제는 아산시 일원에 퍼져 있는 진주강씨 집안 대부분의 조상이기도 하다. 현재 동화리에 거주하는 28세(世) 강구서(姜龜瑞, 64세)씨의 18대조이다.

보문각 직학사(정4품)를 지내서 직학사공파 파조가 된 강원찬(姜元鑽)의 현손이고 공조전서에 오른 강윤지(姜允祉)의 증손이며 임피현령 강수(姜壽)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효행으로 봉정대부 평창도사를 지낸 강일우(姜壹遇, 一遇)이고 어머니는 함양박씨로 군수 박금(朴錦)의 딸이다.

강자위는 2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음서로 관직에 나가 통훈대부 북청 판관을 지냈고 1471년(성종2)에 좌리공신(佐理功臣)에 책록되었다. 후손들이 북청공(北靑公)으로 호칭한다.

그가 언제 어떤 사유로 송악에 들어왔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중에는 그의 아버지 강일우와 관련하여 ‘남원부에 사는 강일우’가 어머니 상에 3년간 시묘하여 포상한다는 기록이 있고 다른 기록에 ‘거향(居鄕) 온양’이라 했으니 강일우가 나중에는 온양에 살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강일우의 증조인 강원조의 동생 강원전(姜元鉞, “호부사공”)과 관련하여 ‘온양에서 군산으로 이주했다’는 기록이 있어서 그보다 훨씬 먼저인 고려 후기일 수도 있다. 현재 후손들은 강자위를 입향조로 알고 있으므로 일단 강자위를 기준으로 정리하되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강자위를 기준으로 하여 약550년 전으로 본다.

강자위의 부인은 원주김씨(原州金氏) 직장(直長) 김연종(金連宗)의 딸이다. 문한(文翰), 문필(文弼), 문익(文翼) 등 세 아들을 두었다. 강문한(姜文翰, 1464~1547)은 가선대부(종2품) 행동지중추부사에까지 올랐고 회덕(대전 대덕 석봉동)에 살다 즐했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회덕에 터를 잡게 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뒤에 다시 온양으로 들어오기도 했다. 강문한의 현손 강백년은 온양에 와서 살았고 증손 강주와 현손 강학년은 묘를 온양 지역에 썼다.

강자위의 둘째아들 강문필은 통훈대부로 북청판관을 지냈고 셋째 강문익은 사직을 지냈으며 이들은 각각 배방 신흥리와 중리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 이곳에서 후손들이 다시 인주 도흥리, 대음리, 신창 가내리 등으로 확대되고 멀리는 공주, 홍성, 태안 등지로 확산되었다.

한편 함께 송악에 들어온 동생 강자해(姜自海, ?~?)는 사맹을 거쳐 상의원 주부를 지냈고 후손들이 ‘사맹공’으로 칭한다. 부인인 순창조씨(淳昌趙氏) 생원 조당(趙瑄)의 딸 사이에 외아들 영효(英孝)를 두었다. 당진현감을 지낸 강영효가 희려(希呂), 희윤(希尹), 희증(希曾) 등 3남1녀를 두며 후손이 늘



기 시작하여 아산의 여러 지역에서 진주강씨 집안이 크게 번창하게 되었다.

강자위와 강자해 형제의 부친인 강일우의 묘는 전북 임실에 있으나 어머니 함양박씨와 강자위의 묘는 아산시 송악면 동화리 분토골에 있고 강자해의 묘는 동화리 동배골에 있다.



-강자위의 묘표-



-강자해의 묘-

[2] 신천강씨 강필환 | 康弼煥 <?~?>

조선 말기의 인물이며 신천강씨(信川康氏) 36세로 곡산파 중 흥성대현파 아산시 신창면 가덕리 가애마을 입향조이다. 흥성 지역에서 이주해왔으며 현재 가덕리에 살고 있는 후손 40세(世) 강준식(康俊植, 72세)씨의 고조부이다.

강필환의 고조는 강응상(康膺祥)이고 증조는 강승원(康承遠)이며 조부는 강명창(康命昌)이다. 아버



-강필환의 묘와 집안 묘역-

지는 강이제(康以齊)이고 어머니는 전주최씨(全州崔氏)이다.

그가 언제 왜 가덕리로 들어왔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생연도가 확인되는 그의 손자 강우현(康禹鉉)이 1888년생인 것으로 보아 그는 대략 1830년경에 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여 약 150년 전인 1860년 전후에 들어왔을 것으로 본다. 묘는 가덕리에 있으며 마을 내에서 한 번 이장하였다.

부인은 경주장씨(慶州張氏)이며 재명(載明)과 재만(載萬) 두 아들을 두었다. 큰아들 강재명의 외아들 강우현이 6남2녀를 낳았고 둘째아들 강재만은 주현(周鉉)과 치현(致鉉) 형제를 두었으니 이후 후손이 많이 퍼졌다. 후손들이 현재 가덕리에는 두 가구만 살고 있고 주로 온양과 서울, 경기도 지역 곳곳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다.

[3] 제주고씨 고석구 | 高錫九 <1862년(철종13년)~1916년>

조선 말기의 인물로 제주고씨(濟州高氏) 문충공파(文忠公派) 20세이며 시중공계 아산시 지역, 도고면 신통리 입향조이다. 현재 신통리에 거주하는 24세(世) 고성호(高城培, 일명 城浩, 45세)의 고조부이다. 선대는 10여대를 공주 이인면에서 거주했다.

고석구는 고한수(高漢秀)의 현손, 고응백(高應伯)의 증손, 고용문(高龍文)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고익우(高翼雨, 1839~1913)이며 어머니는 김해김씨(金海金氏)로 김덕여(金德汝)의 딸이다.

그는 석현(錫鉉), 석구, 석철(錫喆), 석원(錫源) 4형제 중 둘째이며 첫째인 고석현이 후사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장남 역할을 하게 되었다. 부인은 창원황



-제주 고씨의 묘의 상석-

씨(昌原黃氏)로 황헌조(黃憲朝)의 딸이다. 그가 언제 어떤 이유로 이곳으로 들어와 자리 잡았는지는 불명확하다. 집안에 전해지기로는 선대가 살았던 공주 이인면 검상리 주변의 농경지가 강바닥이 높아져 점차 경작이 어려워지자 이주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도고 신통리에 이미 제주고씨가 살고 있어서 그것을 인연으로 이 마을을 택하게 되었다고 한다.

고석구는 외아들 변택(弁澤)을 두었고 고변택 또한 외아들로 상근(相根)만을 두었다. 고상근이 4남



1녀를 됴으로써 이후 싡통리에 제주고씨 집안에 점차 후손이 늘게 되었다. 고석구의 묘는 마을 뒤에 마련한 종산에 모셨다.

참고로, 이 마을에 가장 먼저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제주고씨에 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 현재 온양시내로 이주한 후손(약 80세)이 있기는 하나 자세한 내력을 모르고 다른 후손들도 거의 마을을 떠나 있는 형편이다. 마을 뒤에 '시제청' 이라고 하는 묘가 있는데 9대조 즾 된다고 한다. 상석에 '제주고공지묘 김해김씨부좌 ~~~ 신축11월일' 이라 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묘 주인을 알아낼 수 없음이 아쉽다.

[4] 곡부공씨 공부 | 孔阜 <? ~ ? >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곡부공씨(曲阜孔氏) 63세이며 형조판서공파 아산시 지역, 둔포면 싡남리 입향조이다. 선대는 경남 창녕 지역에 거주해왔다. 현재 득산동에 거주하는 후손 77세(世) 공용수(孔龍洙, 78세)씨의 14대조이다.

공부는 태종 때 형조판서를 지낸 파조 공사문(孔斯文)의 5세손이다. 문과 급제 후 감찰 등을 거쳐 세종 때 호조참판을 역임한 공종주(孔宗周)의 현손이고 사헌부 감찰을 지낸 공보석(孔輔碩)의 증손이며 세종 때 거제현령을 지낸 공계손(孔季孫)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공세원(孔世元)이며 어머니는 확인되지 않는다.

공부는 무신으로 주부(主簿)를 지냈으며 부인은 창녕조씨(昌寧曹氏)이다. 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언제 왜 싡남리로 오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그가 실제 입향조라는 근거를 찾을 수도 없다. 인접한 마을인 둔포면 송용리 부용단에 그의 아버지 공세원과 그의 아들인 공만형(孔萬亨)의 단이 있어서 그가 아닌 아버지 혹은 아들이 입향조일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싡양1리에 사는 후손 77세 공군석(孔君錫)씨가 '14대조를 시제 모신다' 고 하고 족보에 공만형과 관련하여 후손이 둔포면 산전리에 거주한다는 기록 등이 있어서 일단 공부가 처음 자리 잡은 것으로 추정한다. 공부의 묘는 둔포면 싡남리에 있다.

공부는 아들 만형(萬亨), 손자 적(績)을 두었다. 증손자 공희성(孔希聖, 1567~?)은 1609년(광해군1년)에 진사시에 합격하기도 하였다.

그의 후손들은 싡남리를 중심으로 거주해왔는데 공군석씨의 7대조 때 싡남리 일대에 전염병이 돌

아 68세 공문백(孔文伯)이 신양리로 이주하였고 공용수씨의 9대조인 68세(世) 공문창(孔文昌)이 배방 장재리로 이주하였다. 공문창의 아들 공준흥(孔俊興)이 다시 음봉면 신수리로 옮겨 4대를 이어 살다가 74세(世) 공이상(孔履祥, 1825~?)이 득산동에 자리 잡아 지금에 이르고 있다.

공부의 후손은 현재 둔포면 신양리와 산전리, 득산동을 중심으로 각지에 퍼져 살고 있다.

[5] 현풍곽씨 곽금정 | 郭今貞 <1491년(성종22년)~1550년(명종5년)>

조선 전기의 무신으로 현풍곽씨(玄風郭氏) 18세이며 전리공파 중 진사공파 아산시 지역, 배방읍 북수리 입향조이다. 선대는 경기도에 살다가 전남 강진에서 4대를 살았다. 현재 배방읍 세출리 낭골에 사는 후손 33세(世) 곽호진(郭鎬震, 83세)씨의 15대조이다.

그는 진사공파 파조인 진사 곽신민(郭新民)의 5세손이다. 고조는 보문각 제학을 지낸 곽자시(郭自始)이고 증조는 봉열대부 곽하(郭賀)이며 조부는 직장(直長)을 역임한 곽우신(郭又新)이다. 아버지는 승훈랑 곽보(郭保, 1474~1531)이고 어머니는 삼척진씨(三陟秦氏)로 현감 진예안(秦禮安)의 딸이다.

곽금정의 자는 원로(元老)이고 병절교위(종6품)에 올랐다. 부인은 중모박씨(中牟朴氏)이고 참봉 박사발(朴斯發)의 딸이다.

그가 언제 어떤 연유로 배방 북수리로 들어왔는지 알 수 없다. 그와 아버지의 묘가 북수리 왜리 마을에 있다. 집안에서는 그의 아버지인 곽보부터 시제를 올린다. 그러나 집안의 기록에 곽금정이 '이거온양(移居濶陽)' 했다고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그가 연로한 아버지를 모시고 왔거나 돌아가신 뒤 묘를 모신 것으로 보인다. 시기는 그의 아버지가 사망한 때(1531년)를 기준으로 하여 약 480년 전으로 추정한다.

곽금정은 숭(崇)과 영(嶺) 등 2남1녀를 두었는데 둘째는 후사가 없다. 곽승이 외아들 충후(忠厚)를 낳았고 곽충후도 역시 아들 형(迥) 하나만을 두었으나 곽형이 두 아들 안국(安國)과 안정(安鼎)을 둔 이후부터 점차로 후손이 늘게 되었다.

현재는 배방읍 북수리와 공수리를 중심으로 세출리, 천안의 수신과 풍세 등 각지에 후손들이 살고 있다.



[6] 능성구씨 구순조 | 具順祖 <? ~ ?>

능성구씨(綾城具氏) 23세이며 도원수공파(都元帥公派) 영인면 신화리 지역 입향조이다.

아버지는 구달희(具達喜)이고 어머니는 강릉최씨(江陵崔氏)로 최흥인(崔興仁)의 딸이다. 부인은 경주최씨(慶州崔氏)이다. 묘는 영인면 상성리에 있다. 후손은 영인면 아산리와 신화리, 신창면 남성리 등에 살고 있다.

[7] 안동권씨 권영 | 權詠 <? ~ ?>

안동권씨(安東權氏) 24세이며 추밀공파(樞密公派) 인주면 관암리 입향조이다.

아버지는 통덕랑 권선(權僎)이며 어머니는 공인(恭人) 연안(延安) 김씨(金氏)이다.

권영의 자(字)는 영언(永言)이며 부인은 안동김씨(安東金氏) 김정육(金錠育)의 딸과 숙인(淑人) 파평윤씨(波平尹氏)이다. 묘는 인주면 문방리 석암(石岩)에 있다.

[8] 안동권씨 권이평 | 權以平 <1710년(숙종 36년)~ 1794년(정조 18년)>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안동권씨(安東權氏) 23세(世)로 검교공파(檢校公派) 아산시 지역, 도고면 석당리 지역 입향조이다. 현재 도고면 도산리에 거주하는 후손 33세(世) 권태동씨의 10대조이다. 예산군 응봉면에서 왔으며 약 300년 전으로 본다.

그의 고조는 김해부사를 지낸 권복수(權福手), 증조는 만포침사 권기(權紀), 조부는 강학년(姜鶴年)의 문인이며 1579년(선조 12년)에 은일학자로서 상의원 직장에 제수된 빙옥정(氷玉亭) 권경욱(權景昱)이다. 아버지는 강세구(姜世龜)의 문인으로서 추천에 의해 상의원 직장이 된 권호(權浩, 1671~1709?)이다. 어머니는 평산박씨(平山朴氏)로 참판 박신(朴紳)의 딸이다.

권이평은 2남 중 차남이다. 자는 평중(平仲)이며 족보에는 진사로서 호조참판에 올랐다고 기록되어 있다. 부인은 나주임씨(羅州林氏)로 선전관 임굴(林橘)의 딸이다. 그가 언제 왜 도고 지역으로 왔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묘소는 도고면 신통리에 있다.

그는 진(璉), 각(珪), 서(瑞) 등 세 아들을 두었다. 큰아들 권진은 첨지중추부사, 둘째아들 권각은 감찰, 셋째 권서 역시 감찰에 올랐다고 한다. 이후 후손들이 도고면 석당리, 도산리, 신유리, 덕암리 일대를 중심으로 널리 퍼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권이평의 묘와 묘표-

[9] 안동권씨 권지 | 權芷 (? ~ 1641년(인조 19년))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추밀공파 정헌공의 후예이다. 자는 숙형(叔馨)이다. 1576년(선조 9)에 무과에 급제한 뒤 감찰에 임명되었고 임진왜란 중에는 선략장군(宣略將軍)이 되어 활약하였다. 만년에는 아산현 일동면 시곡(柴谷: 아산시 음봉면 동천리) 수한산성 아래 10여리의 땅에 터를 잡고 살았다. 묘소는 수한산성 아래에 있는데 이곳에 비갈이 있다.

그의 아들과 손자들이 모두 효성이 지극하여 벼슬이 주어지고 명망이 높았다. 아들 권형(權涸)은 효행으로 주부(注簿)로 증직되었고 손자 권대평(權大平)도 효행으로 금부도사에 증직되었다. 무과에 급제한 그의 증손자 권상룡(權祥龍)은 후에 역시 효행으로 승훈랑 좌랑으로 증직되었고 증손자 권상호



(權祥虎) 또한 효행으로 지평(持平)에 증직되었으며 후손 권형경(權衡經)도 효행으로 명망이 높았다. 그의 직계 후손들이 확인되지 않아서 자세한 사항을 파악할 수 없다.

[10] 안동권씨 권확 | 權鑊 <1568년(선조 1년) ~ 1638년(인조 16년)>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안동권씨(安東權氏) 23세로 추밀공파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지역 입향조이다. 선대는 주로 경기도 양주와 파주 일대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현재 공세리에 거주하고 있는 후손 34세(世) 권영재(權寧宰, 78세)씨의 11대조이다.

생육신 권절(權節)의 5세손이고 전력부위 권자평(權自平)의 현손, 상의원 직장 권세헌(權世憲)의 증손, 사복시정에 증직된 권윤희(權胤禧)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학자이자 은일처사로서 좌승지로 추증된 권결(權潔)이고 어머니는 임단김씨(臨湍金氏)로 정랑 김사근(金思謹)의 딸이다. 일(鎰)과 확(鑊) 2남 중 둘째 아들이다.

권확의 자는 사중(士重)이고 호는 석계(石溪)이다. 집안에서는 '석계공'으로 칭한다. 1611년(광해군 3)에 신해 별시 진사시와 문과에 급제한 뒤 승문원에 등용되었으나 대북(大北)의 영수 이이첨(李爾瞻)에 의해 기각 당하였다. 북인들이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위시키고자 했던 이른바 폐모론에 반대하여 좌천, 삭직을 거듭하다가 1623년 인조반정 이후 정언(正言)으로 복직하였다. 사간·집의·길주목사·승지·호조참의·해주목사·여주목사 등을 거쳐 1633년(인조 11)에 동부승지(同副承旨-정3품)에 올랐다. 병자호란(1636~1637) 끝에 인조가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자 1637년에 관직에서 물러나 아산 공세리 농장으로 들어와 머물다 세상을 떴다. 370여 년 전의 일이다.

부인은 죽산안씨(竹山安氏)이며 군수 안사흠(安思欽)의 딸이다. 계(埶), 영(玲), 후(婁), 우(塢) 등 네 아들을 두었다. 둘째아들 권영은 한성좌윤에 올랐다. 넷째아들 동곡(東谷) 권우는 문과급제 후 경상·충청·전라·함경도 감사를 역임하였으니 이로 인하여 아버지 권확은 가선대부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권확이 실제로 아산에 거주한 것은 불과 1년 정도이며 묘가 경기도 파주에 있고 아들부터 증손자까지 모두 묘가 경기도 양주와 파주 등에 있어서 실제로 아들과 손자 등 후손들이 공세리 지역에 거주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둘째아들 권영이 1668년(현종9)에 무고를 당하여 '아산 고향으로 퇴거했다'는 기록이 있고 큰아들 권계의 증손 권수형(權壽衡)과 그 후손, 둘째아들 권영의 증손 권응

형(權應衡)부터 이후 후손의 묘가 아산 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아 후손이 거주하면서 퍼지고 계속 이어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 본다.

[11] 상산김씨 김계양 | 金季陽 <?~?>

조선 전기의 무신으로 상산김씨(商山金氏) 13세(世)이며 상산군과 아산시 지역, 염치읍 염성리 입향조이다. 현재 영인면 상성리에 거주하는 32세(世) 김일희(金一熙, 70세)씨의 19대조이다.

그는 공민왕·우왕 때 인당(印砀) 등과 함께 홍건적과 왜구 격퇴에 공을 세워 좌명공신에 오르고 중대광 삼사우사(三司右使-정2품)와 상장군을 지낸 상산군(商山君) 김득계(金得齊)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참의(參議)를 지낸 김장(金漳)이며 어머니는 김씨로 전교과정을 지낸 김경생(金慶生)의 딸이다.

4형제 중 셋째아들로 태어난 김계양은 만호(萬戶-종4품)를 지냈으며 부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는 아들 김질(金軼)이 밀양박씨 좌익원종공신 천안군수 박자오(朴子晤)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되면서 함께 아산에 내려와 자리 잡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시기는 박자오가 양성현감으로 나간 1439년을 기준으로 대략 570년 전쯤으로 추정한다.

김계양이 처음에는 염치읍 염성리에 자리 잡고 살았으나 그의 4세손인 장사랑 김백환(金百緩) 때 모두 영인면 상성리로 이주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으나 그의 묘는 실전되었다. 후손들은 현재 영인면 상성리와 신현리, 염치읍 서원리와 온천동 일대, 그리고 충북 단양 등지에 살고 있다.



- 상산김씨 세거비와 종중 묘역 -



[12] 경주김씨 김구 | 金鉤 <1381년(고려 우왕 7년) ~ 1462년(세조 8년)>

조선 초기의 문신·학자이며 경주김씨(慶州金氏) 아산시 지역 입향조이고 문장공파(文長公派) 파조이다. 그가 처음에는 음봉면 신수리 숲골로 내려왔다가 뒤에 영인면 구산으로 옮겨 살았다. 대략 550여 년 전의 일이다. 현재 영인면 와우리에 살고 있는 김성우(金聖友, 77세)씨의 19대조이다.



-경주김씨 문장공파 납골당-

고조는 조선왕조 개창에 공을 세워 순충분의 익대공신이 된 승록대부 찬성 제숙공(齊肅公) 김균(金綸)이고 증조는 형조판서를 지낸 김맹성(金孟誠)이며 조부는 한성판윤을

역임한 김영부(金榮富)이다. 아버지는 문과 급제 후 대사헌에 오른 김광수(金光晬, 粹)이다.

자는 직중(直中), 호는 송정(松亭)·귀산(歸山)이다. 대사성 윤상(尹祥)의 문인이며 1416년(태종 16)에 문과에 급제한 뒤 여러 관직을 거쳐 중추원부사에 올랐다.

1459년(세조 5)에 충청도 관찰사 황효원(黃孝源)이 특별한 주장하여 아산현이 폐지되어 온양군·신창현·평택현에 나뉘어 속하게 되었다. 관사(官舍)와 관전(官田)은 영의정 황수신(黃守身)이 차지하였다. 그가 아산 출신 현감 조규(曹圭)와 더불어 조정에 복현(復縣)을 청했다가 1462년(세조 8)에 사헌부의 탄핵으로 고신을 삭탈 당했다. 그가 죽은 뒤인 1465년(세조 11)에 왕이 온양온천에 행행(行幸)했을 때 조규 등이 다시 상소하여 마침내 어명으로 아산현이 복구될 수 있었다.

김구는 경사(經史)에 밝고 주자학에 정통하였고 성균관에서 후진 교육에 큰 성과를 내어 김말(金末)·김반(金泮)과 함께 '경학삼김'(經學三金), '관중삼김'(館中三金)이라 불렸다.

그는 단종(1452~55 재위) 시기에 일시 관직을 버리고 아산(영인면 구성1리-귀산)에 낙향하여 오교대(五教臺)를 축조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고 하며 말년에 아사(餓死)하였을 만큼 청빈한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장(文長)의 시호를 받았고 염치 인산서원(仁山書院) 배향이 논의되기도 했으며 문집으로 《귀산김선생실기(歸山金先生實記)》가 전해진다.

그의 묘는 사패지였던 음봉면 산정리에 있었으나 2007년에 집안에서 구성리에 납골당을 만들어 모셨다. 후손들은 영인면 구성1리를 중심으로 온양, 조치원, 서울 등 각지에 살고 있다.

[13] 김해김씨 김근직 | 金謹直 < 1575년(선조 38년) ~ ? >

조선 중기의 인물로 김해김씨(金海金氏) 61세이며 안경공파(安敬公派) 아산시 신창면 가내리 입향조이다. 선대는 원주 지역에 거주하였다. 현재 용화동에 거주하는 후손 71세(世) 김광배(金光培, 71세)씨의 10대조이다.

그의 고조부는 문과급제 후 지돈령부사와 전라도 관찰사를 역임한 파조 안경공(安敬公) 김영정(金永貞)이고 증조부는 문과급제 후 통훈대부 승문원 참교에 오른 김세균(金世均, 1462~1543)이며 조부는 사마시에 급제(1522년)하고 사십시 첨정을 지낸 김종수(金從壽)이다. 아버지는 음직으로 아산현감을 역임하고 큰아들 의직(義直)이 귀하게 되어 가선대부 이조참판에 증직된 김희현(金希賢)이다. 집안에서는 ‘아산공(牙山公)’으로 칭한다. 어머니는 전주이씨이며 사직을 지낸 이원조(李元祖)의 딸이다.

김근직은 7남2녀 중 다섯째아들로 태어났으며 초휘(初諱)는 윤직(允直)이다. 가선대부 병조참판 겸 의금부도사로 증직되었다. 그가 언제 어떤 사연으로 가내리에 자리 잡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그의 증조부와 장손 김홍생(金洪生, 1638~1698)의 생존 시기로 보아 김근직은 대략 1570년 전후에 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임진왜란 때 피난하여 이곳에 왔을 것으로 본다.

부인은 안동권씨(安東權氏) 참봉 권석균(權石均)의 딸과 충주임씨(忠州林氏) 임무하(林茂夏)의 딸이다. 수애(守愛), 수인(守仁), 수국(守國), 수복(守福), 수옥(守鈺) 등 다섯 아들을 두었다. 집안의 기록에는 큰아들 김수애는 장악원정, 둘째아들 김수인은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셋째 김수국은 통정대부 금오랑(의금부도사), 다섯째 김수옥은 선공감역을 지냈다고 한다. 실직인지 증직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김해김씨 안경공파 謹直祖公以下 자손을 모신 납골당(신창 가내리1구)-



이중 첫째와 둘째, 셋째아들이 가내리에 살았다. 넷째와 다섯째 아들은 충북 괴산으로 가서 이후 괴산과 제천 등지에 그 후손들이 살게 되었다. 가내리 지역의 후손들은 가내리를 중심으로 선장면 신동리와 선창리, 인주면 해암리, 용화동, 홍성, 충북 청주, 서울 등 각지로 퍼져서 살고 있다.

김근직의 묘는 선창면 가내리에 있었으며 그 자리에 10여 년 전에 납골당을 만들어 그의 후손들과 함께 모시고 있다.

[14] 경주김씨 김덕원 | 金德元 <1546년(명종 1년)~1596년(선조 29년)>

조선 중기의 인물로 경주김씨(慶州金氏) 52세(世), 경순왕 25세, 정숙공파(貞肅公派) 13세이며 정숙공파 아산시 지역, 염치읍 백암리 구무골 입향조이다. 현재 옆 마을인 용두리에 거주하는 정숙공파 25세 김규방(75세)씨의 12대조이다.

김덕원은 통훈대부 김중은(金仲隱)의 현손이고 영암군수 김우완(金雨暉)의 증손이며 부사직 김영호(金永瑚)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현감을 지낸 김근신(金謹臣, 1510~1554)이며 어머니는 문화유씨(文化柳氏)로 진사 유승형(柳承亨)의 딸이다. 선조들은 경기도 안성 양성면 지역에 거주해왔다.

그는 아버지가 늦은 나이인 37세 때, 어머니 36세 때 낳은 귀한 아들이었다. 그러나 그가 8세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듬해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다. 그는 염치읍 대동리 황골에 살던 고모에게 와서 자랐고 혼인까지 하게 되었다. 부인은 신창맹씨(新昌孟氏)이며 판관 맹의선(孟義善)의 딸이다. 사직공 맹석경(孟碩卿)의 손녀딸이기도 하다. 맹의선이 염치읍 백암리 구무골에 거주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김덕원은 혼인 후 1570년부터 황골에서 가까운 구무골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약 440년 전의 일이며, 이후 그의 후손들이 염치읍 일대를 중심으로 각지로 퍼지게 된 것이다.

김덕원은 자가 인보(仁甫), 호가 미암(美庵)이기 때문에 후손들은 그를 '미암공'으로 칭하며 '미암공파(아산파)'로 구분한다. 무공랑(務功郎-정7품)을 거쳐 병조정랑(正5품)에 올랐으며 뒤에 가선대부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묘는 염치읍 강청리에 있다.

그는 정현(鼎鉉), 태현(台鉉), 내현(蘆鉉) 등 세 아들을 두었다. 큰아들 김정현은 부인 우봉이씨(牛峰李氏) 사이에 1남3녀를 두었다. 무과에 급제한 뒤 진주진 병마우후를 지내던 35세 때 정유재란의 제2차 진주성 전투 중에 전사했다. 둘째아들 김태현은 선교랑으로 행현릉(顯陵)참봉을 지냈으며 후배

(後配) 강릉김씨 진사 김경운(金慶胤)의 딸 사이에 외아들 효일(孝一)을 두었는데 그는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행으로 의금부도사에 특증되었다. 김효일의 둘째아들 김진성이 아들 다섯을 낳아 특히 자손이 많이 퍼지게 되었다. 셋째아들 김내현은 통사랑으로 성릉참봉을 지냈으며 부인 합천이씨(陝川李氏) 봉사(奉事) 이영(李英)의 딸과 결혼하여 네 아들을 두어 후손이 많이 늘어났다. 이후 미암공의 후손은 엄치읍, 탕정면, 음봉면을 중심으로 크게 번창하였다.

[15] 경주김씨 김동연 | 金同衍 <1706년(숙종32년)~1801년(순조1년)>

조선 후기의 문신 관료이며 경주김씨(慶州金氏) 계림군파(鷄林君派) 12세(世)로서 아산시 지역, 탕정면 호산1리 입향조이다. 마을에 거주하던 김정국(金正國, 80세)씨의 7대조이다. 선대는 연기군 전의 일대에 거주하였다.

문과 급제 후 좌의정에까지 오르고 경림부원군(慶林府院君)에 봉해진 충익공(忠翼公) 김명원(金命元, 1534~1602)의 5세손이고 익산군수 등 내외관직을 거쳐 자헌대부 행첨지중추부사에 오른 김수렴(金守廉)의 현손이다. 문과에 급제한 뒤 대사간, 대사성, 대사헌 등을 거치고 공조·형조·예조판서를 역임한 정효공(貞孝公) 김남중(金南重, 1596~1663)의 증손이며 진사시에 급제한 뒤 호조정랑에 오른 김홍진(金弘振, 1627~1671)의 손자이다. 조모는 한산이씨(韓山李氏)이며 예조판서 이기조(李基祚)의 딸(1626~1700)인데 묘가 탕정 호산리에 있었다. 아버지는 김정신(金鼎臣, 1648년~1717)이며 부정(副正)과 청풍도호부사를 지냈다. 묘는 연기 전의에 정배 청주한씨와 합장되어 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후배(後配)인 김해김씨(金海金氏)로 김백수(金白壽)의 딸이며 역시 묘가 호산리에 있었다.

김동연은 3남 중 셋째 아들이며 자는 회숙(會叔)이고 봉정대부(정4품)로 관상감 교수를 지냈다. 사후에 가선대부 호조참판에 증직되었다. 부인은 전주유씨(全州柳氏)이며 부종관 유덕옥(柳德玉)의 딸이다.

그가 언제 왜 이 마을에 왔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할머니 한산이씨와 어머니 김해김씨의 묘가 이 마을에 있던 것으로 보아 그의 아버지 김정신이 처음 왔을 수도 있지만 집안에서 그가 처음 들어온 것으로 보는 의견에 따라 그를 입향조로 본다. 혼인으로 인한 입향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을에 또 다른 친척의 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패지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또한 알 수 없다.



김동연은 1남3녀를 두었다. 아들 김만대(金晩大, 1727~1801)는 음직으로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겸 오위도총부 부총관에 올랐다. 김만대가 사익(思翊), 사정(思靖), 사준(思竣), 사육(思昱) 등 4남1녀를 둔으로써 이후 주로 호산 1,2리를 중심으로 자손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묘소들도 주로 마을 주변에 있었으나 지역 개발로 인해 공주시 사곡면에 묘역을 마련하여 모두 이장하였다.

*참고 : 마을 한 가운데에 경주김씨 계림군파 친척으로 김동연의 재종(6촌)인 김구연(金九衍, 1699~1742)과 김구연의 아들 김기대(金器大, 1714~1775)의 묘와 묘비가 있다. 김구연은 숙종의 제2계비 인원왕후(仁元王后, 1687~1757) 김씨의 동생이며 생부는 김남중의 셋째아들 김주신(金柱臣)이다. 통훈대부로 사복시정(정3품)을 지냈고 자헌대부 이조판서에 증직되었다. 아들 김기대의 생부는 김세연(金世衍)인데 김구연 역시 아들이 없어서 계자로 들어왔다. 김기대는 문음으로 이천부사가 되었다가 1756년(영조32년)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한 뒤 승지와 대사헌 등을 거쳐 예조판서까지 올랐다. 그러나 그의 직계 후손이 이 마을(호산리)에 살지 않았다고 하니 왜 이곳에 묘를 모셨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16] 안동김씨 김몽열 | 金夢說 <1683년(숙종9년) ~ ? >

조선 후기의 인물로 안동김씨(安東金氏) 13세이며 익원공파(翼元公派) 음봉면 월랑리 입향조이다. 아버지는 진사 김간(金侃)이고 어머니는 전주이씨(全州李氏)다. 부인은 칠원(漆原) 윤씨(尹氏)이다. 선대는 당진 순성에서 살았는데 순성에 전염병이 심하여 음봉 월랑으로 피하여 왔다고 한다. 묘는 음봉면 월랑리 가치리(加峙里)에 있다. 제사는 음력 10월15일이다.

[17] 김해김씨 김삼승 | 金三承 <? ~ ? >

김해김씨(金海金氏) 62세이며 금녕군파(金寧君派) 영인면 백석포리 입향조이다. 아버지는 가선대부 중추부사 김진철이고 어머니는 영천이씨(永川李氏)이다. 부인은 안동권씨(安東權氏)이다. 안성 일죽에서 이주하였으나 내력은 잘 모른다. 묘는 아산 동록에 있다고 하나 실전하였다.

[18] 경주김씨 김상해 | 金商邂〈?~?〉

경주김씨(慶州金氏) 26세로 전서공파(典書公派) 영인면 신화리 입향조이다.

아버지는 김상회(金商廻)이며, 어머니는 은진송씨(恩津宋氏)이다.

김상해의 자(字)는 대요(大堯)이며 부인은 경주진씨(慶州陳氏)이다. 묘는 신화초등학교 앞에 있다. 후손은 공주에 산다. 제사는 음력 10월 첫째 주 일요일이다.

[19] 진도김씨 김신남 | 金信男〈?~?〉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진도김씨(珍島金氏) 9세이며 진도군파(珍島君派) 음봉면 월랑리 입향조이다.

아버지는 사헌부 감찰을 지낸 김황(金黃)이며 어머니는 안동김씨와 안산김씨이다. 생모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김신남은 상의원 주부(主簿)를 지냈다. 부인은 남양(南陽) 홍씨(洪氏)이며 오위장 홍응기(洪應沂)의 딸이다. 묘는 음봉면 월랑리 가치리(加峙里)에 있다. 제사는 음력 10월 10일에 지낸다.

[20] 순천김씨 김영 | 金靈〈1571년(선조4년)~1644년(인조22년)〉

조선 중후기의 문신으로 순천김씨(順天金氏) 29세(世)이며 판사공파 아산시 지역, 염치읍 서원리 입향조이다. 선대는 경북 안동에 살다가 증조부인 김수렴 때부터 경기도 고양 일대에 거주하였다. 현재까지 염치읍 서원리에 살고 있는 후손 40세(世) 김세연(金世淵, 77세)씨의 11대조이다.

선공감정을 역임하고 형조참판에 증직된 승평군(昇平君) 김약균(金若勻)의 현손이고 무과 급제 후 정주목사에 오른 김수렴(金粹濂)의 증손, 찰방을 지낸 김훈(金堧)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무과 급제 뒤 전주목사와 부령도호부사를 지낸 김여물(金汝嘯, 1551~1604)이다. 탄금대 전투에서 신립과 함께 장렬히 전사한 김여물(金汝嘯)은 큰아버지이다. 김여물은 장연현감 당시 임진왜란을 당하여 왕의 몽진을 근위하였다. 어머니는 밀양박씨이다.



김영은 영(靈)과 배(排) 등 2남1녀 중 장남이다. 자는 집옥(執玉)이고 호는 백석당(白石堂)이다. 광해군 4년(1612)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통훈대부로 석성현감을 지냈다. 집안의 족보에 의하면 1627년(인조5년)에 정묘호란에 즈음하여 척화상소를 올려 임금(인조)이 가상히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다. 참고로 백부 김여물의 아들이 영의정 등 정승만 다섯 차례나 했던 승평부원군 북저(北渚) 김류(金瑬, 1571~1648)이고 그의 동갑내기 사촌이다.

그가 언제 어떤 연유로 염치에 왔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그의 부인이 신녕윤씨(新寧尹氏)인 점으로 보아 혼인과 관련하여 인근 지역인 염치 서원리에 자리 잡게 된 것으로 추정한다. 신녕윤씨는 조선초 윤자임(尹自任, 1407~1478)이 영인 지역으로 내려 온 뒤 후손들 중 삼척부사 윤필은(尹弼殷, 1516~1586)과 강원부사 '아산8문장' 윤지복(尹之復, 1569~1638) 부자가 당시에 인근에 있었기 때문이다. 혼인 시기일 수도 있고 이후 병자호란 시기에 처가 지역으로 피난한 뒤 정착했을 수도 있다. 대략 370~420년 전이다. 아버지의 묘소는 고양 벽제에 있지만 어머니의 묘가 서원리 아기바위(어금니바위) 아래에 있는 것을 보면 그가 홀로 되신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살았고 입향 시기도 후자로 여겨진다. 김영의 묘는 염치읍 서원리 기와내 서쪽 산줄기에 있다.

김영은 외아들 경승(慶承)만을 두었고 김경승은 딸 하나만을 낳았다. 그 딸은 신창 지역의 학자인 잠야(潛冶) 박지계(朴知誠)의 아들인 은일 학자 박유연(朴由淵)과 혼인하였다. 김경승은 효표(孝標)를 계자로 들였다. 김효표는 수득(壽得), 필득(必得) 등 2남5녀를 두었고 이후 점차 후손이 늘어 집안의 기반을 넓혔다.

집안에 전하는 바에 따르면 동림산(영인산 상투봉 아래) 일부를 사패지로 받았는데 이때 일부러 '앞에는 백산(산이 없다), 뒤에는 석산(돌산)'을 받았다고 한다. 집안에 재산이 많으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곳을 받았다는 얘기가 전한다.

[21] 김녕김씨 김응남 | 金應南〈?~?〉

조선 후기의 인물이며 김녕김씨(金寧金氏) 15세로 충의공파 아산시 권곡동 지역 입향조이다. 현재 권곡동에 거주하고 있는 후손 26세(世) 김세규(金世圭, 63세)씨의 11대조이다.

김응남은 세종 때의 충신으로 세조 즉위에 반대하고 단종 복위를 추진하다 순절한 충의공(忠毅公)

김문기(金文起-사육신에 포함시키기도 함)의 6세손이다. 그의 아들 김현석(金玄錫)도 아버지와 함께 처형되었고 김현석의 아들, 즉 김응남의 고조 김충립(金忠立) 등 남은 가족들은 경북 상주 관아 등에 노비로 배속되는 비극을 겪었다. 이들이 언제 노비에서 풀려났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로 김문기는 1731년(영조 7)에 복관되고 1757년에는 충의(忠毅)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김응남의 증조는 김충지(金忠之, 초명은 忠智, 일명 衷之)이며 조부는 김영추(金永秋, 1542~?)이다. 아버지는 김신학(金信鶴, 1583~)이며 어머니는 경주최씨이다. 아버지 때에 충남 서천군 서면으로 이주하였다.

김응남은 득대(得大), 득일(得一), 응남(應南) 등 삼형제 중 셋째아들이며 사연은 확인되지 않지만 아산시 권곡동으로 와서 자리 잡게 된다. 김응남에 대해서는 자(字)가 내천(乃天)이라는 사실만 전해지며 부인에 관해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래서 후손들은 그의 외아들인 지생(知生, 1610~?)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응남의 아버지 김신학과 아들 김지생의 출생년도가 37년 차이가 나서 김응남의 출생 시기 파악이 어렵고 뭔가 기록에 착오가 있다고 본다. 김지생의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400년 전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한다.

김지생 이후 김천익(金天益, 1638~?), 김상건(金尙建)까지 3대가 외아들로 이어져 왔다. 김천익은 통정대부 공조참의, 김상건은 가선대부 한성부좌윤에 증직되었다. 김상건은 부인 순흥안씨 사이에 순태(順泰)와 순망(順望) 등 두 아들을 두었으니 그 후부터 자손이 번창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김응남의 묘는 아버지의 묘가 있는 서천에 모셔졌고 그의 손자 혹은 증손자 대에 권곡동, 지금의 한울고 앞산으로 옮겨 모셨다가 20여 년 전에 탕정면 용두3리 산골로 옮겨 모셨다. 증손자인 김상건의 묘는 권곡동(온양민속박물관 뒷산)에 있다.

김응남의 후손들은 권곡동을 중심으로 오랜 동안 주로 현재의 시내권에 거주해왔다.

[22] 연안김씨 김의수 | 金義秀 <1821년(순조21년~1897년(고종34년)>

조선 말기의 인물로 연안 김씨(延安金氏) 22세이며 구례현감파(求禮縣監派) 음봉면 신희리 입향조이다.

부인은 남원(南原) 양씨(梁氏) 선재(善在)의 딸이다. 생부(生父)는 택연(宅淵)이고 양부(養父)는 수연



(守淵)이며 양어머니는 경주(慶州)김씨(金氏)로 응주(應柱)의 딸이다. 수원 백봉리에서 아산 음봉면 신희리로 이주하였다. 묘는 음봉면 신희리에 있다.

한편 같은 22세인 김인수(金仁秀, 1855~?)도 백봉리에서 김의수와 함께 음봉 신희리로 이주한 것으로 본다. 자(字)는 성원(聖元)이다. 부인은 곤양(昆陽) 배씨(裴氏)며 영록(永祿)의 딸이다. 묘는 음봉면 신희리에 있다. 음력 10월 6일에 김의수와 김인수의 시체를 올린다.

[23] 김해김씨 김제빈 | 金濟彬 <?~?>

조선 중기의 인물이며 김해김씨(金海金氏) 63세로 안경공파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지역 입향조이다. 현재 문방2리에 살고 있는 75세(世) 김금섭(金今燮, 57세)의 12대조이다.

증 통훈대부이고 부인은 전주이씨(全州李氏)이다. 김제빈은 경기도 양주의 밤나무골에서 출생하였으며 인주면 문방리로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언제 어떤 사연인지는 알 수 없다.

묘는 인주면 문방1리에 있고 묘비와 상석이 있다. 후손은 인주면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 많이 살고 있다.

[24] 김녕김씨 김질 | 金秩 <1364년(공민왕13년)~1454년(단종2년)>

고려 말의 문신이고 조선 초의 은일(隱逸)로 김녕김씨(金寧金氏) 7세이며 김녕김씨 아산시 도고면 도산리 입향조이자 송암공파(松菴公派) 파조이다. 현재 도고면 오암1리에 거주하는 후손 23세(世) 김영훈(金永勳, 86세)씨의 13대조이다.

고조는 고려 원종 때 첨의찬성사에 오른 김극세(金克稅)이고 증조는 형부상서를 지낸 김중원(金重源)이며 조부는 문과급제 후 봉익대부 밀직사사에 오른 김귀갑(金貴甲)이다.

아버지는 문과에 급제한 뒤 전공판서를 역임하고 분성군(盆城君)에 봉해진 김정신(金挺申)이다. 그는 질(秩), 형(滢), 자익(滋益) 등 3남 중 장남이며 두 동생은 경상도 지역에 자리 잡았다.

김질의 자는 국상(國祥) 호는 송암(松菴)이다. 고려 말에 소부감(小府監) 소감(少監-종4품)을 역임하다가 고려가 망하게 되자 벼슬을 버리고 신창 어랑촌, 현재의 도고면 도산리 느랭이 마을에 들어와

은거하였다. 600여 년 전의 일이다. 조선 태조 이성계가 과거의 정의를 생각해서 개국원종공신으로 책훈하고 김녕군으로 봉하면서 예조판서의 벼슬을 주며 여러 차례 불렀으나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 하여 끝내 나아가지 않았다. 스스로 ‘송암(松菴)’이라 호를 짓고 산속에 숨어서 충절을 지키며 일생을 마쳤다. 이성계는 그의 충절을 기리며 도고산 자락을 운음으로 사패하였다. 묘는 그가 살던 도산리 마을 뒷산 자락에 있다.

부인은 밀양박씨이며 외아들 익생(益生)을 두었다. 김익생(1388~1450)은 자(字)가 정부(靜夫)이고 호(號)는 성재(省齋)이다. 어머니가 병환 중인 한 겨울에 호랑이의 도움으로 배를 구해드려 낫게 했다는 효행으로 이미 18세 때(1405년) 효자정려가 내려져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문무의 여러 관직을 거쳐 예조판서에 올랐다. 김익생이 부인 대구서씨 사이에 광구(光圭)와 광기(光耆) 등 2남2녀를 두며 점차 손이 퍼지기는 하였으나 많지는 않은 편이었다.

후손들은 도고면 도산리를 중심으로 오암리와 화천리 등 일대에 널리 퍼져 살고 있다. 해방 직후에는 100여 호가 되었으나 지금은 50호 정도가 되며 아산 시내 지역과 서울에도 많이 살고 있다.



-김질의 묘-



-효자 김익생 정려-

[25] 광산김씨 김징 | 金澄 <?~?>, 김담 | 金湛 <?~?> 형제

조선 후기의 인물로 광산김씨(光山金氏) 31세이며 판군기감사공파(判軍器監事公派) 인주면 문방리 지역 입향조이다. 과천에서 살았다. 인주면 문방리는 지형적으로 삼면이 바다여서 피난처로 적지이므로 징(澄)과 담(湛)형제가 이곳 문방리로 이주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김오상(金五常)이며 어머니는 창녕성씨(昌寧成氏)이다.

김징의 자(字)는 사심(士心)이며 부인은 전주이씨(全州李氏) 이인실(李仁實)의 딸과 장기정씨(長技鄭氏) 정세보(鄭世輔)의 딸이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와 집안 간에 우애가 돈독하였으며 글을 잘 하였고 행동이 올곧았다고 한다. 그의 묘는 인주면 문방리 금안동에 있다.

김담의 자(字)는 악보(樂甫)이며 부인은 전주이씨(全州李氏)로 이곤(李坤)의 딸이다. 담(澐)의 묘는 화장하였다. 음력 10월 15일에 제사를 지낸다. 후손은 인주 공세리, 문방리, 신성리에 산다.

[26] 광산김씨 김척 | 金滌 <1640년(인조18년)~1693년(숙종19년)>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광산김씨(光山金氏) 28세이며 직제학공파(直提學公派)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입향조이다.

아버지는 현신교위(顯信校衛)를 지낸 김우주(金宇冑)이고 어머니는 순천(順天) 박씨(朴氏)로 주부(主簿)를 지낸 박수국(朴守國)의 딸이다. 자(字)는 일신(日新)이며 감찰을 지냈다. 부인은 한양(漢陽) 조씨(趙氏)이며 조세익(趙世翼)의 딸이다.

김척이 처음 창용리에 살던 터에서 종손이 12대 째 살고 있다. 묘는 둔포면 봉재리 선영에 있다. 후손은 염티면 대동리, 영인면 신봉리, 창용리, 둔포면 봉재리 등에 거주하고 있다. 음력 10월 8일에 제사를 지낸다.

[27] 안동김씨 김치서 | 金致瑞 <? ~ ?>

(구)안동김씨(舊安東金氏) 15세이며 익원공파(翼元公派) 영인면 와우리 입향조이다.

아버지는 김정하(金鼎夏)이며 어머니는 경주이씨(慶州李氏)로 이정좌(李廷佐)의 딸이다. 부인은 경주김씨(慶州金氏)이며, 하원(夏源)의 딸이다.

와우리에서 살게 된 동기는 잘 모른다. 묘는 영인면 구성리에 있다.

[28] 안산김씨 김필 | 金埶 <?~?>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로서 안산김씨(安山金氏) 15세이며 아산시 지역, 배방면 휴대리 입향조이다. 경기도 안산 지역에 살다가 들어왔다. 현재 배방읍 휴대리에 거주하는 후손 30세(世) 김제민(金濟敏, 68세)씨의 15대조이다.

진주목사를 지낸 김성경(金星慶)의 현손(4세손)이고, 이조전서 등을 역임하였으며 제2차 왕자의 난에 공을 세워 좌명공신 4등에 책록되고 연성군(蓮城君)에 봉해진 김정경(金定卿, 1345~1419)의 증손자이자 승록대부 판중추원사 김개(金漑, 1405~1484)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성종 14년(1483)에 문과에 급제하고 승문원 교감(校勘)을 지낸 김맹강(金孟綱, ?~?)이고 어머니는 진주강씨(晉州姜氏)로 학자이자 문신이며 시·서·화 삼절(三絕)로 명성이 높은 강희안(姜希顔, 1417~1464)의 딸이다.

4남2녀 중 넷째 아들인 그의 자는 자수(子修)이고 호는 모기재(慕箕齋)이다. 학자로서 대사성에까지 오른 사림의 거두 김식(金湜, 1482~1520)의 문인이다.

김필은 1519년(중종 14) 별시문과에 장원급제한 뒤 성균관 전적(典籍)이 되었다. 그 해(1519년)에 기묘사화가 일어나 조광조 등과 함께 김식이 유배를 당하게 되었다. 그가 이때 스승을 전송한 것이 죄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되자 관직을 버리고 집에서 은거하였다. 그 뒤 1521년에 기묘사화의 여파로 다시 사림이 화를 입은 신사무옥에 연루되었다. 이에 거짓으로 미친 척하여 화를 면한 뒤 외아들 원회(元會)를 데리고 온양군 동면 잔교리(棧橋里-현 세교리)의 수터(秀垆-휴대리), 현재의 배방읍 휴대리로 들어와 살게 되었다.

집안에서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곳에서 살았으며 자손들에게 “벼슬살이를 하지 말 것”을 유언했다. 명종 15년(1560)에 홍문관 부제학에 추증되었다. 『국조인물고』, 『기묘록보유』 등에 그와 관련된 일이 실려 있다. 묘는 선대의 산소가 있는 경기도 안산에 모셔졌으나 안산의 도시 개발로 인해 1978년에 휴대리 종중산으로 옮겨 모셨다.

부인은 전주이씨로 오원군(五原君) 이보정(李寶丁)의 딸이며 1남1녀를 두었다. 김필의 외아들 김원회(金元會)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이 지역에 먼저 터를 잡고 있던 문화유씨(文化柳氏) 집안인 생원 유자기(柳自淇)의 딸과 혼인한 뒤 휴대리에서 조용히 살았으며 수온(守溫), 수공(守恭), 수검(守儉) 등 3남 2녀를 두어 후손들이 인근 각지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김원회의 장남 김수온은 청산(충북 옥천)으로 이주했으며 아들 김계남(金繼男, 1555~?)은 중봉 조현(趙憲)의 제자로서 임진왜란 초의 금산전투(1592년)에서 의병을 모아 스승을 도우러 갔으나 이미



전사한 뒤여서 스승의 심상(心喪) 3년을 스스로 모셨다.

둘째 아들 김수공은 천안 광덕면 신덕리로 자리를 잡고 들어갔다.

셋째 아들 김수검(1549~?)은 휴대리에서 거주하다가 탕정면 동산리의 교동인씨 인충걸(印忠傑)의 맏딸과 혼인하면서 구루미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다. 김수검은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중봉 조헌(趙憲)과 더불어 강학을 하였다. 임진왜란 때(1592년) 조카 김계남(金繼男, 1555~?)과 함께 의병을 모아 조헌을 돕기 위해 금산으로 갔으나 이미 늦어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뒤에 그런 공으로 여러 차례 왕의 부름을 받았으나 나아가지 않았으며 선무원종공신에 녹훈되고 첨지중추부사에 제수되었다.

김수검은 4남 1녀를 두었다. 큰아들 희성은 아들 하나를 둔 뒤 대가 끊어졌고 넷째 희민은 일찍 세상을 떴으나 둘째 희현(希賢)과 셋째 희철(希哲)의 후손들이 밭덕지(동산2리) 등 인근 지역에 집성촌을 형성하게 되었다.

김희현의 큰아들 재건(在鍵)이 공주 정안으로 갔다가 나중에 후손 일부가 다시 탕정면 매곡2리 신평터로 들어왔고 둘째아들 재석(在錫)의 후손은 동산리 일대에, 셋째아들 재정(在鼎) 쪽은 동산리와 음봉면 덕지리 등지로 퍼졌다. 김희철의 후손들은 명암2리 장목이 일대에 묘가 있는 것으로 보아 탕정면 명암리쪽으로도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29] 김해김씨 김합 | 金郃(?~?)

고려 말의 문신이자 조선 초의 은일(隱逸)이다. 김해김씨(金海金氏) 54세로 김녕군파(경파) 아산 죽동(竹洞-대동, 현재의 음봉면 동암리와 송촌리) 입향조다. 현재 음봉면 송촌리에 거주하는 후손 73세(世) 김경태(金慶泰, 88세)씨의 19대조이다.

고조는 김주국(金柱國)이고 증조는 김녕군파의 파조 김녕군(金寧君) 김목경(金牧卿)이다. 조부는 공민왕의 수종공신(隨從功臣)이며 충근양절광보공신(忠勤亮節匡輔功臣)으로 김녕부원군(金寧府院君)에 봉해지고 수시중(守侍中)에까지 오른 충간공(忠簡公) 김보(普)이다. 아버지는 밀직부사를 지낸 김달문(金達門)이며 어머니는 월성군부인 경주배씨(慶州裴氏)이다.

김합은 용(庸)과 합(郃) 두 아들 중 둘째이며 자는 회지(會之)이고 사재감정(司宰監正-정3품)을 지냈다. 그의 집안은 고려의 권신 가문이었으나 그는 고려가 망하자 벼슬에 뜻을 접고 음봉 대동에 들어와 은거했다. 시기는 대략 600여 년 전이다. 다만 왜 이곳을 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태종 때에

가정대부 춘추관사 좌참찬으로 증직되었기 때문에 후손들이 그를 참찬공으로 칭하며 참찬공파의 파조가 된다. 묘는 음봉면 동암1리 김해김씨 종산에 있다.

부인은 해주최씨(海州崔氏)로 정랑 최숙량(崔淑良)의 딸이다. 외아들 통사랑 김효창(金孝昌)과 외손자 김윤(金胤)으로 후손이 이어졌다. 김윤은 세조 때에 무과 급제하여 경력(經歷-종4품)의 벼슬까지 올랐다. 지혜와 용기가 뛰어났던 김윤은 훈련원 첨정으로 재직할 때 세조의 행차를 시종했는데 세찬 바람으로 용기(龍旗)가 쓰러질듯하여 어가가 나아가지 못하자 그 깃발을 세워두고 행차를 계속할 수 있게 하였다. 세조가 크게 발탁하여 등용하였으나 얼마 되지 않아 졸하였으므로 왕이 몹시 애석해 하며 관원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고 병조판서를 추증했다. 그 김윤이 승례(崇禮)와 승필(崇弼) 두 아들을 둔 이후 김합의 후손들이 늘기 시작하였다.

그의 후손들은 음봉 대동을 중심으로 천안 직산, 예산, 평택, 충북 등 각지에서 살고 있다.



-김합의 묘와 재실-

[30] 원주김씨 김현증 | 金鉉曾 <1655년(효종6년)~1708년(숙종34년)>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원주김씨(原州金氏) 19세로 감찰공파(監察公派) 영인면 신봉리 지역 입향조이다.

아버지는 김홍량(金弘亮)으로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어머니는 동래정씨(東萊鄭氏)이다.

김현증은 전농(典農) 부정(副正)을 지냈으며 참의(參議)를 증직받았다. 부인은 죽산박씨(竹山朴氏)이다. 신봉리에 살아온 내력은 잘 모른다.

묘는 신화리 가족 묘역에 있다. 음력 10월 10일에 제사를 지낸다. 후손은 선장면 신성리, 인주면 밀두리, 염치읍 서원리 등에 거주한다.



[31] 경주김씨 김혜심 | 金惠心 <1535년(중종30년)~1588년(선조21년)>

조선 중기의 인물로 경주김씨(慶州金氏) 48세이고 태사공파 중 상촌공파(桑村公派) 15세이며 아산시 방축동 지역 입향조이다. 현재 방축동에 살고 있는 김기조(金基兆, 52세)의 14대조이다.

고조는 호조좌랑에 오른 김영원(金永源)이고 증조는 장흥부사 등을 지낸 증참판 김칭(金稱 혹은 稱)이며 조부는 가선대부로 북병사를 역임한 김양필(金良弼)이다. 아버지는 전라좌수사를 지낸 증이조참판 완정공(完征公) 김정민(金正民, 1517~1550)이고 어머니는 전주이씨(全州李氏)이다. 그의 시호에 따라 후손들은 '완정공파'로 칭한다.

그는 경신(景信)과 혜심 두 아들 중 둘째이다. 자가 경술(敬術)이고 부인은 여산송씨(礪山宋氏), 후부인은 수원백씨(水原白氏)이다. 그가 언제 온양에 왔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그의 묘소가 수원백씨 종산과 붙어있는 점을 고려하면 혼인으로 인하여 처가 쪽에 와서 자리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시기는 대략 430년 전으로 본다. 그의 묘는 방축동 마산저수지(신정호) 제방 동쪽에 있다.

김혜심은 외아들 세훈(世勳)을 두었고 김세훈도 외아들 서부(瑞富)를 두었지만 김서부가 아들 둘 수성(壽誠)과 기성(起誠)을 낳은 이후 점차 후손이 늘어 온양 지역 외에도 송악, 인주 공세리, 서산 대산 등지로 확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김혜심의 묘와 상석-

[32] 경주김씨 김호연 | 金好延 <일명 대일(大一) ?~?>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경주김씨(慶州金氏) 상촌공파 7세이며 공산군파(公山君派) 아산시 지역, 탕정면 명암4리 밭지뜨레(밭지뜨레) 마을 입향조이다. 마을에 거주하던 상촌공파 23세, 공산군파 21세

(世) 김영환(金永煥, 64세)씨의 16대조이다. 이 자료는 후손 김영환씨가 가지고 있는 ‘경주김씨공산군파보’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김호연은 호조좌랑을 역임한 김영원(金永源)의 현손이고 통훈대부 장단부사 김희(金僖)의 증손이며 통훈대부로 공산관관을 지낸 김양수(金良秀)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서흥현감 재직 시 임꺽정 토벌에 공을 세우고 안주목사까지 오른 김연(金堧, 1494~?)이다. 김연 이전의 선대는 경기도 광주와 고양 일대에 거주하였다. 김연은 김희의 큰아들 김양언(金良彦)의 셋째아들인데 숙부인 김양수에게 계자로 왔다. 집안에 전하는 바에 따르면 김연은 복지(길지)를 찾아 서산 음암면 유계리 한다리 마을(대교촌, 대교동)에 자리 잡아 속칭 ‘한다리 김씨’ 터를 닦았다.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 김씨가 태어난 곳이며, 추사 김정희도 그곳에 뿌리를 두고 있다.

김호연의 어머니는 완산이씨(完山李氏)이며 지산부수 이저(李繼)의 딸이다. 그는 3남 중 둘째로 태어났다. 그에 관한 사항은 전하는 바가 매우 소략하다. 통정대부 형조참의에까지 올랐으며 부인은 전주이씨이다. 그가 언제 왜 탕정 밧지므레에 왔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1530년경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하며 약 450년에 들어온 것으로 본다.

그의 외아들 희(曦, 1558~1594)는 가선대부 형조판서를 지냈으며 공연군(公燕君)에 봉해졌다. 김희는 주(鑄), 은(銀), 벽(壁), 경(鏗) 등 네 아들을 두었다. 이 중 김은은 가선대부 호조참판을 역임했으며 중종반정에 참여하여 분의정국추성정난공신(奮義靖國推誠定難功臣)에 책록되고 가정대부(嘉靖大夫) 공산군(公山君)에 봉해졌다. 이후 그 후손들은 충북 음성 감곡에 일부 이주하고 주로 탕정면을 중심으로 거주해왔으며 ‘공산군파’로 칭한다.

김호연의 묘는 원래 용두리 진터 뒷산에 있었으나 산업단지 개발이 진행되어 명암4리 동쪽의 ‘사당골(지명 유래 확인 안 됨)’로 2006년에 옮겨 모셨다. 그 아래에 아들 김희 등 후손의 묘가 있다. 손자 김은의 묘는 경기도 파주에 있으며 밧지므레에 사당이 세워졌으나 충남외국어고등학교 건립으로 인해 예산 고덕에 새로 세웠다. 일부에서 ‘공산김씨’라고 하는 것은 경주김씨 공산군파를 칭하는 것이다.



-김호연의 묘와 묘표-



[33] 언양김씨 김효례 | 金孝禮 <1352년(공민왕1년)~?>

고려말기의 문신으로 언양김씨(彦陽金氏) 13세(世)이고 아산시 방축동 희안리 입향조이다. 현재 희안리에 거주하는 후손 33세(世) 김우영(金宇寧, 74세)씨의 20대조가 된다.

고려 중기의 대장군으로 거란 침입을 격퇴하고 문하시중까지 올랐으며 고종의 묘정에 배향된 위열공(威烈公) 김취려(金就礪, ?~1234)의 5세손이다. 고조는 문하시랑평장사에 오른 익대공(翊戴公) 김전(金佺, ?~1271)이고 증조는 첨의참리를 지낸 문신공(文愼公) 김변(金鉉)이며 조부는 언양부원군(彦陽府院君) 정열공(貞烈公) 김윤(金倫, 1277~1348)이다. 아버지는 문과 급제 후 추밀원사에 오른 김희조(金希祖, ?~?)이고 어머니는 해주최씨로 부지밀직 최서(崔瑞)의 딸이다.

그는 세규(世珪), 효례(孝禮) 등 2남3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대종대부(종3품상)로 성균관 제주(祭酒)에 올랐다. 부인은 전의이씨(全義李氏)이다.

언제 왜 방축동 지역으로 왔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선대는 주로 개성 지역에 살았고 묘는 장단에 있으나 아버지 김희조의 묘는 울산 언양에 있다. 집안에서 전해지기는 이성계가 권력을 잡은 후에 이주하였다고 한다. 방축동 일대가 사패지였다고 보며 대략 600여 년 전의 일이니 매우 오래 전에 들어온 집안이다.

그는 외아들 언경(瑋鏡)을 두었고 김언경도 외아들 명석(命碩)을 두었으며 김명석이 자영(自溟)과 자형(自洞) 등 아들 둘을 둔 이후 특히 김자영이 네 아들을 두면서 이후 후손이 많아지고 또한 조치원, 서울, 안성, 공주 등 각지로 퍼져 나가게 되었다. 온양 지역에는 방축동과 점량동, 득산동, 신창창암리, 도고 기곡리, 배방 장재리 등 각지에 널리 퍼져 있다. 희안 마을에는 주로 선전관공파가 거주하고 있다.



-언양김씨 세천비-



-김효례 등의 남골묘-

[34] 의령남씨 남건 | 南健 < ?~? >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의령남씨(宜寧南氏) 12세(世)이며 양정공파(良靖公派) 아산시 지역, 탕정면 용두리 입향조이다. 현재 마을에 거주하는 남기응(南基應, 71세)씨의 14대조이다.

1442년(세종 24) 문과에 급제한 뒤 통정대부로 봉상시 소운에 오른 남질(南軼, 초명 軼)의 현손이고 천안군수를 지낸 남계응(南繼應)의 증손이며 아산현감을 역임한 남인(南麟)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남필성(南晷星, 일명 엽성曄星, ?~?)이며 통정대부로 간성군수를 지냈고 어머니는 경주이씨(慶州李氏)로 서윤(庶尹)을 지낸 이덕수(李德修)의 딸이다. 남건은 1남2녀 중 외아들이었다.

자는 천행(天行)이며 통정대부로 사헌부 감찰에 올랐다. 부인은 파평윤씨(坡平尹氏)이며 침정 윤한(尹澣)의 딸이다. 인근 마을에 파평윤씨 세거지가 있지만 관련이 없다. 그가 이 마을에 자리 잡게 된 연유는 확인되지 않지만, 대략 1550년경으로 추정하면 약 460년 전이다.

남건은 인(寅)과 우(宇) 두 아들을 두었다. 남인은 선무랑에 올랐고 외아들 홍술(弘述)을 두었다. 남우도 선무랑이 되었고 역시 외아들 홍달(弘達)을 낳았다. 손자 남홍술은 선전관을 지냈고 조천사(朝天使)가 명나라에 갈 때 수행하다가 세상을 떴으며 아들 둘을 남겼다. 손자 남홍달(1585~1650)은 부호군을 지냈으며 아들 다섯을 두었으니 남건의 증손자 때부터 후손이 크게 번성하게 되었다.

남건의 묘는 마을 남쪽 산자락 끝 용두뿔에 있다.



-남건의 묘와 묘비-



[35] 의령남씨 남발 | 南撥 <1561년(명종 16년)~1646년(인조 24년)>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의령남씨(宜寧南氏) 12세이며 충간공파 아산시 송악면 역촌리 입향조이다. 개국일등공신 영의정 남재(南在)의 8세손이며 사평(司評)을 지낸 설애(雪崖) 남언진(南彦鎭)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전주이씨로 서성군(西城君) 이승조(李崇祖)의 딸이다.

자는 공제(公濟)이고 호는 화은(華隱)이다. 부인이 예안 이씨 온양 입향조인 이사종(李嗣宗)의 아들 정악원정 단(端)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를 인연으로 송악 지역에 자리 잡게 되었으며 실제로는 주로 서울에 거주하였다. 우계 성혼(成渾)의 문인으로 1588년(선조 21)에 생원과에 합격하고 의금부도사·종묘서직장·사헌부감찰·보은현감 등을 역임하였다. 1610년(광해군 2)에 문과에 급제한 뒤 공조좌랑에 제수되었고 춘방(春坊-세자시강원)·양사(兩司-사헌부·사간원)를 거쳐 통정대부 우승지(右承旨-정3품)에 이르렀다. 1612년(광해군 4)에 서장관으로, 1619년(광해군 11년)에는 성절사(聖節使)로 두 차례나 연경에 다녀오기도 했다. 1623년에 인조반정이 일어나 관작을 삭탈당하고 유배되었으나 얼마 뒤에 풀려났고 다시 종묘서령·군자감정·통례원정·상의원정 등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모두 나가지 않았다.

일찍이 온양 설애산(설화산) 아래(송악 역촌리)에 집을 짓고 살았다. 관직에서 물러난 뒤 계속 거주하다가 86세에 졸하였고 도승지에 추증되었다. 진사로서 봉사(奉事)를 역임하고 병조참판에 추증된 아들 엽(焯-또는 “황”)과 손자 두성(斗星)·유성(有星)·필성(弼星)·몽성(夢星)·오성(五星)을 두었다. 손자 5형제 중 유성·필성·몽성 3형제가 문과, 오성이 무과에 급제하였다. 묘는 태안 삭선리 금굴산 문중 묘지에 있으며 증손 남구만(南九萬)이 찬한 비가 있다.

[36] 의령남씨 남열 | 南悅 <? ~ 1464년(세조10년)>

조선 전기의 무신으로 의령남씨(宜寧南氏)씨 9세이며 충경공파-직제학공파-호군공파 아산시 지역, 염치읍 방현리 쇠일 마을 입향조이다. 탕정면 명암리에 거주하다가 현재 권곡동에 살고 있는 후손 25세(世) 남정우(南正祐, 68세)씨의 16대조이다.

고조는 조선 개국공신으로 영의정에 오르고 의령부원군에 봉해진 충경공(忠景公) 남재(南在)이고 증조는 병조의랑을 역임하고 영의정에 증직된 남경문(南景文)이며 조부는 문과급제 후 예문관 직제

학을 지낸 남간(南簡)이다. 아버지는 호군을 지낸 남건(南健)이며 어머니는 경주이씨(慶州李氏)이다.

남열은 4남3녀 중 셋째 아들이며 자(字)는 효보(孝甫)이고 부사맹(副司猛-종8품)을 지냈다. 부인은 인천이씨(仁川李氏)로 이구형(李龜馨)의 딸이다.

전해지는 말로는 1465년(세조 11)에 세조가 온양의 온천행궁에 와서 머물 때 이구형(李龜馨)이 재산이 풍부하고 혼인할 만한 딸이 있음을 듣고 직제학 남간(南簡)의 손자 남열(南悅)과 혼인하도록 명하여 호종했던 양반·관원들이 주선을 해서 바로 혼례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남열은 효량(孝良)과 효양(孝讓) 등 2남3녀를 두었다. 큰아들 남효량은 후손이 없고 둘째아들 남효양이 병절교위에 오르고 순제(舜濟)와 순치(舜治) 등 2남3녀를 두면서 자손이 퍼지고 남순제의 아들 대명(大溟)이 선무정난2등 공신에 오르는 등 점차 입신양명하게 된다.

남열의 묘는 염치읍 방현리 쇠일 마을 뒷산 중턱에 있으며 후손들은 염치읍 방현리, 음봉면 동천리, 탕정면 명암리 등을 중심으로 각지에 퍼져 살고 있다.



-남열의 묘-

[37] 의령남씨 남확 | 南擴 <1485년(성종16년)~1547년(명종2년)>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의령남씨(宜寧南氏) 11세이고 직제학공파 중 목사공파 도고 지역 입향조이다. 영의정을 지낸 충경공(忠景公) 남재(南在)의 6세손이자 목사공파(牧使公派) 파조(派祖) 남척(南척)



倜)의 증손이다. 진사 남침(南忱)의 손자이며 청계처사(淸溪處士) 남규(南跬)의 아들이다. 부인은 경주이씨로 참군 이파(李播)의 딸이다.

그는 진사시 초시에 합격했지만 그의 6촌이자 생육신의 한 사람인 남효온(南孝溫, 1454~1492)의 영향으로 세상을 등지고 아산시 도고면 시전리로 들어와 살게 되었다. 그의 아들로 충의(忠義)에 빛나는 국걸(國傑), 국신(國信) 등이 있다. 묘는 신창 남면 태산(台山), 현재의 도고면 시전3리 의령남씨 종산에 있다.



-남환의 묘-

[38] 교하노씨 노응수 | 盧應洙 <1853년(철종4년)~1905년(광무9년)>

조선 말기의 인물로 교하노씨(交河盧氏) 28세(世)이며 서암공파(西菴公派) 아산시 지역, 선장면 대흥리 입향조이다. 현재 용화동에 거주하는 노정우(盧貞愚, 86세)씨의 조부이다. 선대는 오랜 동안 청주 지역에 거주하였다. 고조는 노익중(盧益中), 증조는 노가현(盧可賢), 조부는 노면집(盧勉集)이다. 아버지는 노상후(盧尙厚)이며 어머니는 옥천육씨(沃川陸氏)이다.

노응수의 호는 해암(海岩)이며 부인은 천안전씨(天安全氏) 전정복(全正福)의 딸이다. 그가 언제 왜 선장면으로 왔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혼인으로 인해 아산시 지역과 인연을 맺었고 갯벌을 간척한 농토를 확보하기 위해 선장 지역으로 와서 정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약 130년 전으로 본다.



그는 병환(秉煥), 병순(秉淳), 병현(秉賢), 병철(秉喆) 등 네 아들을 두었고 주로 선장면 일대에 후손들이 많이 퍼졌다. 그의 묘는 선장면 신성리 삼봉산 자락 종산에 있다.

[39] 신창맹씨 맹희도 | 孟希道 <1337년(충숙왕6년)~1423년(세종5)추정>

고려 말 ~ 조선 초의 문신·학자이며 신창맹씨(新昌孟氏) 3세로 아산시 지역, 배방읍 중리 입향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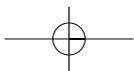
그는 중시조 맹의(孟儀)의 손자이자 두문동 72현인 상서(尙書) 맹유(孟裕)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능성구씨(綾城具氏)이다.

호는 동포(東浦)·호전(湖田)이다. 주로 개경에서 살았으며 정몽주·권근 등과 절친하게 교유했다. 1365년(공민왕14)에 문과에 급제하고 수문전제학(提學-정3품) 등을 지냈다. 1388년(우왕 14) 위화도 회군 이후 아버지 맹유가 서두문동으로 들어가자 그도 동두문동에 은거했다. 이로 인해 후손들은 그를 두문동 72현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아버지가 순절하자 가족을 이끌고 맹씨들의 옛 근거지인 충남 서천 한산으로 이주하였다. 그곳에서 부친의 가묘를 모시고 3년상을 마친 뒤 1392년경에 온양 금곡동(현재의 아산시 배방읍 중리)으로 와서 고려 말의 명장 최영(崔瑩)의 집(현재의 고택)에 자리 잡고 살게 되었다.

그 후 출사를 거부하고 오직 학문 연마와 강론에 전념하였다. 이로부터 온양 일대에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전파되었다고 본다.

한편 그는 효자이기도 하여 부모상을 당하여 직접 흙을 저다가 봉분을 만들고 여막에서 3년 시묘를 하니 흰 새가 날아와 머물렀다고 전해진다. 이미 생정려(生旌閭-살아 있을 때 내린 정려)를 내려 서천 한산에 정효비(旌孝碑)가 1392년(공양왕2)에 세워졌다. 조선 태조도 즉위 후 다시 생정려를 명하여 배방읍 중리에 정문이 세워졌고 효자비와 함께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의 효행은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아들의 효행과 함께 수록되어 귀감이 되고 있다.

묘는 아산시 법곡동 건좌에 있는데 개성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부인 흥양조씨(興陽趙氏)를 이장했던 곳이다. 사후에 후학들이 그의 충절과 학덕을 기려 자하사(紫霞祠-또는 五峰祠오봉사)를 세워 배향해오다가 1634년에 정퇴서원(靜退書院)이 건립되자 그곳에 모셨다. 그러다가 1790년(정조14)에 위치문제가 발생하여 분쟁이 지속되었고 1837년(헌종 3)에 따로 금곡서원(金谷書院)을 세워서 배향





하게 되었다. 1867년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따라 훼철되자 1870년에 고택 옆에 세덕사(世德祠)를 마련하고 아버지 맹유, 아들 맹사성(思誠)과 함께 불천지위로 위패를 모셔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300여년이 지난 1750년(영조26)에 영조가 온양온천에 행행하였을 때 예관을 보내 치제(致祭)하고 ‘충효세업 청백가성(忠孝世業 清白家聲)’이라는 어필 현판을 하사하기도 하였다.

그의 아들 고불 맹사성(孟思誠)을 비롯하여 후손들이 크게 번창하였고 아산시의 거의 전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 후손들이 살고 있다.



-맹희도의 묘와 세덕사-

[40] 여흥민씨 민탁 | 閔琢 <?~?>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여흥민씨(驪興閔氏) 15세이며 청백리공파 아산시 지역, 염치읍 백암리 구무골 입향조이다. 선대는 주로 서울에 거주하였고 선영은 경기도 여주에 있었다. 현재 온천동에 거주하는 후손 30세(世) 민병권(閔丙權, 67세)씨의 15대조이다.

그는 여흥부원군(驪興府院君) 문도공(文度公) 민변(閔忭)의 5세손이다. 태종비 원경왕후 민씨를 낳은 여흥부원군 민제(閔霽)의 아우이자 문과급제 후 대사헌과 관찰사 등을 역임한 민개(閔開, 1360~1396)의 현손이다. 세종 때 문과에 급제한 뒤 경상감사와 이조참판 등을 역임하고 청백리에 오른 민불탐(閔不貪)의 증손이고 대사헌과 관찰사를 지낸 장절공(章節公) 민견(閔騫, ?~1460)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직산현감을 지낸 민경달(閔敬達)이고 어머니는 이씨(李氏)이다.

민탁의 자는 자온(子濶)이다. 집안에 전하는 바와 『신정아주지』의 기록 등에 따르면 백암리에 살고 있던 전주이씨 이견석(李堅石)의 권유로 백암리에 자리 잡았다고 하며 민탁은 이견석의 사위 혹은 손자사위라고 하는데 확인되지 않는다. 시기는 약 500년 전인 1510년경으로 추정한다. 어모장군으로 행충무위부사직을 지냈고 족보에 사직(司直)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후손들이 '사직공'이라 칭한다. 민탁의 묘는 음봉면 신수리 숯골의 도장골에 모셔졌으나 현재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는 아들 희삼(希參)을 두었으며 민희삼(1515~1611)은 명종 7년(1552)에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나 관직에는 나아가지 않았다. 민희삼의 아들 민계(閔溪)는 봉사를 지냈고 민계의 아들 민사성(閔師聖)은 '아산 8문장'에 들었다. 이처럼 민탁이 자리 잡은 뒤 후손들이 가풍을 세우며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

민탁이 처음에는 백암리 구무골에 자리 잡았다가 화재로 인해 백암리 새터로 옮겨 오랜 동안 거주하였으며 수백년 뒤인 1800년경에 후손들이 염치읍 동정리 학대(현재 염티 저수지 수물지)로 이주하였다. 일부는 천안 목천으로 이주했다가 뒤에 다시 들어오기도 했다. 현재 후손들은 염치읍을 중심으로 온천동, 수원, 인천, 서울 등 각지에서 살고 있다.

[41] 밀양박씨 박계영 | 朴啓榮 <?~?>

밀양박씨(密陽朴氏) 57세이며 승지공파(承旨公派) 영인면 신봉리 입향조이다. 참봉(參奉) 박영원(朴永元)의 손자이며 할머니는 단양장씨(丹陽張氏)이다. 박계영의 부인은 남양홍씨(南陽洪氏)이다.

묘는 영인면 신봉리 도장재 가족 묘역에 있다. 후손은 온양을 비롯한 수도권에 산다. 제사는 음력 10월 셋째 주에 지낸다.

[42] 함양박씨 박수현 | 朴壽賢 <1612년(광해군4년)~1699년(숙종25년)>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함양박씨(咸陽朴氏) 16세이며 오한공파(五恨公派) 아산시 지역, 송악면 거산리 입향조이다. 선대는 전남 영암 군서면 일대에 거주하였다. 현재 송악면 외암2리에 거주하는 26세



박관재(朴貫在, 77세)씨의 10대조이다.

그는 문과 급제 후 사간원 정언을 지냈고 1498년(연산군4) 무오사화 때 길성(吉城) 정배, 1504년 갑자사화 때 해남 유배로 세상을 뜬 절의 박권(朴權)의 5세손이며 장사랑 박두정(朴斗精)의 현손이다. 옥천현감을 지냈으며 임진왜란 때 김천일을 도와 고경명 등과 의병 활동을 전개한 증참의 박대기(朴大器, 1537~1601)의 증손이며 역시 아버지와 형의 뜻을 받들어 의병 활동에 참여했던 선교랑 증 호조참판 박승원(朴承源, 1562~1640)이 조부이다.

무과를 거쳐 함경도 병마절도사 등을 지낸 증병조판서 박성오(朴省吾 : 1589~1651)가 그의 아버지이다. 박성오는 인조반정과 이괄의 난 때 공을 세워 정사공신(靖社功臣)과 진무공신(振武功臣)이 되고 병자호란 때도 남한산성으로 왕을 호가하였다. 또한 아버지가 종기를 앓자 한겨울에 두꺼비를 구해 고쳐드린 효자로도 유명하다. 어머니는 여흥민씨와 완산이씨 중 누가 생모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박수현은 수성(壽聖), 수현(壽賢), 수표(壽彪) 3남 중 둘째아들이다. 형 박수성은 의금부도사, 동생 박수표는 무과 급제 후 봉산군수를 지내고 가선대부 병조참판에 증직되었다. 박수현의 자는 인중(仁仲)이고 통정대부 첨지중추부사 용양위 부호군을 지냈다. 부인은 고령신씨(高靈申氏)로 선전관 신철준(申哲濬)의 딸(1614~1696)이다. 신철준은 고령신씨 아산 송악 종곡리 입향조 신응사의 손자이다.

박수현이 아산에 들어온 것은 혼인에 의한 것이다. 집안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박수현의 5대조 박권이 화를 입은 이후 후손들은 문과 급제가 어려워지자 무과로 방향을 바꾸었고 전남 영암에서 서울로 과거 보러 다니는 중간에 박수현을 '심어 놓았다' 고 전한다. 대략 370여 년 전의 일이다.



-박수현의 묘와 묘비-

그는 아들이 없어서 사촌 수임(壽壬)의 둘째아들 세필(世驛, 1644~1699)을 계자로 맞아 대를 이었다. 선전관을 지낸 박세필은 외아들 통덕랑 천주(天籌, 1680~1734)를 두었다. 효자로도 이름이 있는 박천주까지는 외아들 양소(良素, 1709~1782)를 두었지만 그 후대부터는 점차 후손이 늘어 오늘날까지 송악면 일대를 중심으로 크게 번창해왔다.

박수현의 묘소는 송악면 거산리 용두원에 있으며 후손들의 묘도 거산리 일대에 많다.

[43] 밀양박씨 박신지 | 朴愼之 < ?~? >

조선 중후기의 인물로 밀양 박씨(密陽朴氏) 규정공파(糾正公派) 아산시 지역 영인면 신봉리 입향조이다. 규정공의 13세손이다. 아버지는 박한명(朴漢明)이며 어머니는 안동김씨(安東金氏)이다. 성균관 진사를 하였다. 부인은 경주박씨이다.

집안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광해군 때 밀양박씨 규정공파 집안의 어느 분이 정치를 잘 하라고 직언(直言)을 하였는데 그에게 사약이 내려진 것을 누군가가 미리 알려주어 자결하였다. 그 일로 인하여 그 일가가 뿔뿔이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중 한 분인 박신지가 영인면 신봉리로 낙향하게 되었다고 한다. 약 400년 전의 일이다. 박신지의 묘는 신봉리 고용산 분곡(粉谷) 종종 묘역에 있다.

[44] 박자오 | 朴子晤 < 1417년(태종17년)~1465년(세조11년) >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밀양박씨(密陽朴氏) 규정공파(糾正公派) 8세이며 규정공파 아산시 영인면 신현리 입향조이다. 그의 선대는 주로 경기도 고양 원당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다. 현재 신현리에 거주하는 후손 24세(世) 박노숙(朴魯淑, 70세)씨의 16대조이다.

고조는 고려 말에 호조전서를 지낸 박침(朴忱)이고 증조는 문과급제 후 공양왕 때 집현전 제학을 지낸 박강생(朴剛生)이며 조부는 호군에 오른 박의문(朴疑問)이다. 아버지는 문과급제 뒤 대제학을 지낸 박광후(朴光厚)이고 어머니는 전주이씨로 춘성군(春城君) 이겸(李謙)의 딸이다.

박자오의 자는 교연(皎然)이다. 1439년(세종21)에 양성현감으로 나아갔고 그 후 문과에 급제한 뒤



1445년(세종27)에는 사헌부 지평에 임명되었다. 이후 공조정랑을 거쳐 감찰에 올랐으며 세조 즉위에 공을 세워서 1455년(세조1)에 좌익원종공신(佐翼原從功臣) 3등에 녹훈되었다.

그의 아버지 박광후의 묘도 인주면에 있어서 아버지가 입향조일 수도 있지만 집안에서 전하는 바와 『신정아주지』의 기록 등을 근거로 아들 박자오를 입향조로 본다. 그가 언제 어떤 사유로 인하여 아산으로 들어왔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말년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대략 550년 전으로 추정한다. 묘는 아버지의 묘와 함께 인주면 상도(上道-은고개 일대) 선종암동(善鍾菴洞-관암리)에 있었으나 실전되었다.

부인은 경주이씨이며 지평을 지낸 이겸선(李兼善)의 딸이다. 임천군수를 지낸 아들 박효번(朴孝蕃), 포천현감을 지낸 손자 박맹달(朴孟達) 등을 두었고 후손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45] 함양박씨 박지계 | 朴知誠 (1573년(선조 6년)~1635년(인조13년))

조선 중후기의 학자이며 함양박씨(咸陽朴氏) 17세로 밀직부사공파 중 소요당파 아산시 지역 입향조이다.

중종 때 「동몽선습」을 지은 박세무(朴世茂)의 손자이며, 아버지는 군수를 지낸 박응립(朴應立)이고 어머니는 전주이씨(全州李氏)로 사헌부 감찰 이숙의 딸이다.

부인은 남인 계열인 전주이씨(全州李氏) 동지중추부사 이유간(李惟侃)의 딸이며 효종 때 영의정을 지낸 이경석(李景奭)이 그의 처남이다.

박지계는 6형제 중 막내아들이며 아버지 임지였던 황해도 송화에서 태어났다. 자는 인지(仁之)이고 호는 잠야(潛冶)이며 시호는 문목(文穆)이다. 10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학문에 정진하였다. 임진왜란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충북 제천으로 피난하였다가 정유재란 때 충북 괴산에 들어가 우거하면서 어머니를 극진히 간병하여 효행으로도 이름이 있었다.

왕자사부, 좌세마 겸 서연관 등에 천거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그 뒤 조정에서 광해군의 생모에게 비호(妃號)를 올리자는 논의가 일자 신창(현재 위치 불명확)로 들어와 학문에 전념하며 권흥(權興)·조익(趙翼) 등과 도학을 강론하였다. 1613년(광해군5)에 인목대비의 아버지 김제남(金悌男)이 처형당하자 신창현의 집으로 돌아와 우거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그보다 전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략 400년 전의 일이다.



1623년 인조반정 후 사헌부지평에 제수된 이후 동부승지에 올랐고 이조판서로 추증되었다. 예론 논쟁 과정에서 한 때 경기도 남양(南陽)에 우거하다가 이괄(李适)의 난 때 공주로 내려가 왕을 호종하였다. 그 뒤 다시 김장생(金長生)과 같이 서울로 올라갔다.

성리학과 예론에 조예가 있어 많은 논변과 『잠야집(潛冶集)』 등 여러 저술을 남겼다. 인조의 생부인 정원군을 추존하는 ‘원종추숭(元宗追崇)’을 주장하고 이이와 성혼의 문묘종사를 주창하였다. 말년에 신창에 머물다 세상을 떴으며 염치 인산서원(仁山書院)에 추배되었다. 묘는 서산 팔봉산에 있었으나 청원 팔봉산에 명당이 있다 하여 청원군 남이면 사동리 등으로 이장하였다. 시제는 음력 10월 중 편한 날로 수시 정한다.

그의 아들 박유연(朴由淵, ?~?)은 은사(隱士)로서 효종이 여러 관직을 제수하였으나 모두 사양하였고 평상복으로 경연에 참가했던 일로 유명하다. 의학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지평에 추증되었다. 후손은 염티면 중방리 서원리 신창면 등지에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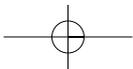
[46] 밀양박씨 박지만 | 朴之蔓 <?~?>

조선 중기의 인물로 밀양박씨(密陽朴氏) 50세(중시조 좌윤공 박을재 14세)이며 초암공파(草庵公派) 아산시 지역, 선장면 신동리 싯골 마을 입향조이다. 선대는 예산 간양리 지역에 거주해왔다. 현재 신동리에 거주하는 후손 61세(좌윤공 25세) 박홍규(朴弘圭, 75세)씨의 11대조이다.

박지만은 고려 말에 전법판서(典法判書)를 지내다가 조선왕조 개창에 반대하고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절을 지키고자 예산읍 간양리에 들어와 은거한 초암 박인우(朴麟祐)의 7세손이다. 고조는 어모장군으로 사맹(司猛, 혹은 상호군)을 지낸 박흥종(朴興鍾, 興宗)이며 증조는 첨정 박창(朴昌)이고 조부는 장사랑 박검(朴儉)이다. 아버지는 통덕랑 박유원(朴由元)이며 어머니는 전주이씨(全州李氏)로 충좌위 부사과를 지낸 이영순(李永順)의 딸이다.

그는 지번(之蕃), 지무(之茂), 지만 등 3남1녀 중 셋째아들이며 자는 경재(敬齋)이고 호는 명촌(明村)이다. 후대 족보에 ‘사문진사(四門進士)’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박지만이 언제 어떤 사유로 선장 신동리에 들어왔는지 알 수 없다. 집안에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인조(1623~49 재위) 때 마을이 밀양박씨로 싯을 이루어 마을 이름이 싯골이 되었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선조 말경에 이 마을로 들어 왔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약 400년 전으로 본다.





그의 부인은 양천허씨(陽川許氏)로 허진(許津)의 딸이다. 4남을 두었으니 세환(世桓), 태환(泰桓), 정환(廷桓), 성환(成桓)이며 이들이 각각 4남1녀, 2남1녀, 2남1녀, 3남을 두어 후손이 매우 번창하였다. 후손들은 선장 신동리 일대와 궁화리, 실옥동, 배방, 천안, 서울 등 각지에 퍼져 살고 있다.

박지만의 묘는 신동리와 접해 있는 선장면 선창리에 있으며, 조부 박검과 아버지 박유원의 묘소도 예산에서 옮겨와 지난 1998년에 묘역을 새로 정비하였다.



-밀양박씨 족보-



-박지만의 묘와 묘역-

[47] 온양방씨 방동귀 | 方東貴 <1693년(숙종19년)~?>

온양방씨(溫陽方氏)는 온양을 본관으로 하는 집안이며 실질적인 시조는 중시조이자 1세조인 신라 말의 방운(方雲)이다. 선대는 경상북도 상주(尙州)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집안에 전하는 바에 따르면 견훤에 의해 집안이 참화를 당하자 방운은 고려에 귀부하였다고 한다. 그는 고려에서 좌복야(左僕射)에 오르고 온수군(溫水君)에 봉해졌으며 온수현(溫水縣)에 와서 복거(卜居)했다고 전해진다. 묘도 배방산에 모셔졌다.

방운의 아들 방중탁(方仲鐸)은 문과 급제 후 첨의정승에 올랐고 묘는 역시 배방산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방운의 손자인 방휴(方休)는 중랑장으로서 강감찬 휘하에서 거란의 격파하는 데 공을 세워 온양군(溫陽君)에 봉해졌으며 묘가 탕정면 장목리(場牧里-현재 명암2리)에 있다고 한다. 3세(世)인 방휴부터 문하시랑평장사에 오른 6세 방유(方裕)까지는 묘가 장목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

다. 여러 도의 절도사를 지내고 온창군(溫昌君)에 봉해진 충숙공(忠肅公) 방재(方宰-7세) 이후에는 묘에 대한 기록이 없다가 9세인 방희진(方曦進)부터 경기도 양주 동두천에 묘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집안에서는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면서 훼손되었다. 배방산은 원래 방운의 묘가 있어서 방씨에게 절을 한다는 의미의 배방(拜方)이었는데 이것이 방씨를 배척한다는 배방(排方)으로 바뀌었다가 나중(1914년)에 꽃다울 방(芳)으로 바꾸어 현재의 배방(排芳)이 되었다’ 고 한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온양방씨가 초기에는 온양 지역에 거주하였으며 방운이 시조이자 입향조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거주지 등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 없으며 배방산과 탕정 등 아산시 지역에 있는 묘는 모두 실전되어 확인되지 않고 용화동 솟골에 단(壇)을 만들어 배향하고 있다.

7세 이후에도 아산시 지역에 후손이 살고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들어 온양방씨 세거지인 평택 팽성 지역에서 다시 아산시 지역으로 26세(世) 방동귀와 방동벽 두 사람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였다. 약 300년 전의 일이다. 이들은 6촌간이며 온양방씨 간의공파(諫議公派)이다.

방동귀(方東貴, 1693~?)는 도고면 시전리로 들어왔다. 입향 사유와 정확한 시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증조는 군수 방유(方瑜, 1590~?), 조부는 효자 정려가 내려진 방이흠(方以欽)이다. 아버지는 증 통정대부 방익립(方益立)이고 어머니는 동래정씨(東萊鄭氏)로 정시세(鄭時世)의 딸이다. 부인은 김해 김씨(金海金氏)로 김만형(金萬亨)의 딸이다. 아들 용수(龍壽), 손자 시간(時良) 등으로 후손이 이어지며 시전리에 거주하다가 5세손(31세) 준순(準淳)에 이르러 초사동 지역으로 이주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재 초사동에 거주하고 있는 후손 34세(世) 방효식(方孝植, 81세)씨로 보면 방준순은 증조, 방



-온양방씨 증시조 방운 신단-



동귀는 8대조가 된다. 도고 시전리에 있던 방동귀와 후손들 묘소는 도고저수지가 만들어질 때 초사동으로 옮겨 모셨다. 현재 그의 후손들은 초사동을 중심으로 송악, 온양, 대전, 서울 등 각지에 거주하고 있다.

한편 방동벽(方東碧, 1680~?)은 음봉면 쌍용리 지역 입향조이다. 방동귀와 마찬가지로 증조는 군수 방유(方瑜, 1590~?)이고 조부는 증가선대부 방이원(方以元)이다. 아버지는 방익창(方益昌)이고 어머니는 확인되지 않는다. 부인은 영월엄씨이다. 묘는 쌍용리에 있다. 아들 용봉(龍鳳), 손자 시만(時萬), 증손 주태(周泰)로 후손이 이어지고 지금까지 쌍용리에 후손들이 살고 있다. 그밖에도 천안 등 각지에 거주한다.

[48] 경주배씨 배극길 | 裴克吉 <?~?>

경주배씨(慶州裴氏) 24세이며 곤산군파(昆山君派) 송악면 종곡리 지역 입향조이다. 아버지는 배문해(裴文海)이고 어머니는 완산이씨(完山李氏)이다.

배극길의 자(字)는 천길(天吉)이며 부인은 예산신씨(禮山申氏)이고 신업근(申業根)의 딸이다. 경기도 화성시 남양면 원천리에서 아산시 송악면 종곡리에 입향(入鄕)하여 살다 아들 배순도(裴順道) 때 인주면 대음리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살아오고 있다. 그의 묘는 송악면 종곡리에 있었고 후손들의 묘는 인주면 대음리에 있었다. 현대 자동차 공장이 오는 관계로 얼마 전에 송악면 강당리에 종종 묘역을 조성하여 이장하였고 경주배씨 재실을 강당리에 마련하였으나 몇 년 전에 소실되었다. 후손은 인주면 대음리, 해암리, 도흥리, 공세리와 영인면, 둔포면, 염티읍, 음봉면 등지에 산다.

[49] 수원백씨 백상덕 | 白尙德 <1714년(숙종40년)~1813년(순조13년)>

조선 후기의 인물로 수원백씨(水原白氏) 22세(世)이며 죽산공파 아산시 지역, 방축동 지역 입향조이다. 현재 송악면 평촌리에 거주하는 29세(世) 백영기(白永基, 74세)씨의 7대조이다.

충숙공(문경공) 백인걸(白仁傑)의 6세손이며, 고조는 우계 성혼의 문인으로 남평현감을 지냈고

호성원중공신에 녹훈된 백효민(白孝民, 1571~1639), 증조는 무과 급제 후 동지중추부사까지 오른 백홍성(白弘性, 1597~?), 조부는 과의교위를 지낸 백이변(白以采, 1638~?)이다. 아버지는 백시영(白時英, 1682~?)이고 어머니는 반남박씨로 박필형(朴弼衡)의 딸이다.

그는 상원(尙瑗), 상덕(尙德), 상삼(尙參) 등 세 아들 중 둘째였으나 큰아들 상원이 백부의 계자로 감에 따라 실질적인 장남 역할을 하게 되었다. 자는 대빈(大彬)이다. 그가 방축동에 들어온 시기와 사유 등 자세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부인은 밀양박씨이며 박해윤(朴海潤)의 딸인데 출신지 등을 알 수 없다. 대략 270여 년 전으로 추정한다. 백상덕이 사망한 해가 계유년으로 되어 있는데 1753년과 1813년 중 둘째 아들이 1772년에 출생한 것이 맞다면 백상덕은 100세를 살은 셈이다.

백상덕은 사철(師喆, 1751~?), 사종(師宗, 1772~1853), 사은(師殷, ?~?) 등 세 아들을 두었다. 백사철이 동근(東瑾) 등 1남1녀를 낳았고 백동근은 3남1녀를 두었으며 백사종은 2남1녀를 두어 후손들이 점차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백사은은 강릉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 백상덕의 후손은 송악면 유곡리와 마곡리, 평촌리, 용화동, 천안 풍세면, 청주 등 각지에 살고 있다

[50] 초계변씨 변자호 | 卞自浩 <?~?>

조선 전기의 문신이며 초계변씨(草溪卞氏) 13세이고 우윤공파 아산시 지역, 염치읍 백암리 입향조이다. 선대는 천안 직산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현재 아산시에 살고 있는 28세 변진복(卞鎭馥, 55세)의 15대조이다.

고조는 문과에 급제하고 연안부사를 지낸 변순(卞純)이고 증조는 문과 급제 후 우윤(右尹)에 오른 변효량(卞孝良)이며 조부는 부사를 역임한 변임(卞衹)이다. 아버지는 판관 변기(卞紀)이며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변자호는 1남1녀 외아들로 태어났으며 관직으로 현감을 지냈다. 부인은 전주이씨(全州李氏)이고 사직 이수인(李守仁)의 딸이다. 이수인은 백암리에 살고 있었으므로 변자호는 혼인을 계기로 이곳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변자호가 1460년경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1480년경을 기준으로 하면 약 530년 전의 일이다.

그는 외아들 홍조(弘祖)만을 두었다. 변홍조는 군수를 지내고 건공장군(중3품)으로 사포진 첨절제사에 올랐다. 변홍조의 외아들 변수림(卞守林)은 장사랑에 올랐다. 변수림은 외아들 오(鰲)와 딸 하나를



두었는데 그 딸이 덕수이씨(德水李氏) 이정(李貞, 1511~1583)과 혼인하여 충무공 이순신(李舜臣) 등 4형제를 낳았고 이정이 아산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다. 변오의 아들 변존서(卞存緒, 1561~?)는 이순신과 외사촌이며 훈련도감 첨정으로 임진왜란에 참전하여 선무원종공신 1등에 책훈되었다. 변자호 이후 6대에 걸쳐 외아들로 어렵게 대를 이어오다가 7세손부터 조금씩 후손이 늘어나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후손 중 일부가 모종동 지역에 와서 살게 되면서 흔히 말하는 ‘변씨네 마을’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변자호의 그의 직계 여러 후손들의 묘소는 음봉면 동천리 동쪽의 시곡(시궁골)에 있다.



-변자호의 묘-



- 변자호의 아들 변홍조의 묘-

[51] 대구서씨 서보수 | 徐普修 <1778년(정조2년)~1817년(순조17년)>

조선 후기의 인물로 대구서씨(大邱徐氏) 20세이며 도위공파 아산시 지역, 탕정면 호산3리 입향조이다. 선대는 예산에 거주하였다. 현재 호산3리 새터 마을에 거주하는 26세(世) 서정근(徐廷根, 73세)씨의 6대조이다.

고조는 상의원 직장(直長)을 지낸 서진리(徐晉履)이고 증조는 진사시에 급제하고 광흥창 주부를 지낸 뒤 좌찬성에 추증된 서문택(徐文澤)이며 조부는 제천현감을 역임한 서종엽(徐宗曄)이다. 아버지는 서명득(徐命得, 1733~1796)이고 어머니는 용인이씨(龍仁李氏)로 이의주(李宜柱)의 딸이다.

1남1녀의 외아들로 태어났으며 부인은 한산이씨(韓山李氏)로 이성채(李成采)의 딸이다. 그가 언제 이곳으로 왔는지는 불명확하다. 혼인을 계기로 온 것으로 추정되며 대략 200여 년 전으로 본다.

손이 없어서 유행(有幸, 1702~1883)을 계자로 들였다. 서유행은 군보(君輔)와 국보(國輔) 두 아들을 두었으며 이들이 각각 2남과 4남을 두어 후손이 점차 널리 퍼지게 되었다. 후손들은 탕정 호산3리와 천안, 서울 등 각지에 퍼져 살고 있다.

서보수의 묘는 선조들의 묘가 있던 예산 대흥면 탄방리에 있었고 후손들의 묘는 탕정면 매곡리 등지에 있었으나 최근에 삼봉산 남쪽 자락 선산에 그의 묘를 옮기고 후손들은 납골묘를 만들어 옮겨 놓았다.



-서보수의 묘와 후손의 납골당-

[52] 대구서씨 서규수 | 徐奎修 <1784년(정조8년)~1839년(헌종5년)>

조선 후기의 인물로 대구서씨(大邱徐氏) 20세이며 도위공파 중 파주공파 아산시 지역, 송악면 거산리 입향조이다. 선대는 경기도 양주에 거주하다가 그의 아버지 때 양성(안성)으로 이주하였다. 현재 송악 거산1리에 살고 있는 28세(世) 서태원(徐太源, 81세)씨의 8대조이다.

고조는 파주목사를 지낸 '파주공' 서정리(徐正履)이고 증조는 서문약(徐文若)이며 조부는 서종억(徐宗億)이다. 아버지는 서명성(徐命城)이고 어머니는 기계유씨(杞溪俞氏)로 유한종(俞漢宗)의 딸이다.

그는 건수(鍵修), 규수 등 2남1녀 중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그가 언제 왜 거산리로 오게 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혼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근거는 없다. 약200년 전의 일로 본다. 묘는 거산리 작은 성골에 있다.



서규수는 외아들 유제(有濟)만을 두었고 서유제가 두 아들 근보(根輔)와 식보(植輔)를 낳았으며 그들이 1남과 3남을 두면서 점차 후손이 늘게 되었다. 후손은 현재 거산리 일대를 중심으로 온양, 천안, 공주 지역에 살고 있다.

[53] 창녕성씨 성준 | 成準 (1554년(명종9년)~1619년(광해군11년))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창녕성씨(昌寧成氏) 13세(世)로 상곡공파(桑谷公派) 아산시 지역, 인주면 대음리 입향조이다. 선대는 서울과 용인 등 경기도 일대에 거주하였다. 현재 배방 중리에 거주하는 16세 성기만(成基萬, 88세)씨의 13대조이다.

성준은 파조인 판서 상곡 성석연(成石琬, 뒤에 石因)의 7세손이다. 고조는 생원 성적(成迪)이고 증조는 무과 급제 후 군수를 지낸 성세공(成世功)이며 조부는 진사 성봉(成鳳)이다. 아버지 성덕원(成德元)은 승헌랑에 오르고 참판에 증직되었다. 어머니는 서흥김씨(瑞興金氏)이며 감찰 김윤장(金允章)의 딸이다.

그의 자는 사칙(士則)이고 호는 삼송(三松)이다. 고부군수 등을 역임하였고 청백하다는 평이 널리 알려졌다. 왜란 때 광해군을 이천(利川)에서 호종한 공으로 통정대부에 올랐다. ‘어머니 서흥김씨가 광해군의 이모였으나 성준(成準)은 시사(時事)를 우탄(優歎)하여 권요(權要)에 굴하지 않았다’는 기록으로 벼슬이나 권력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당대에 이미 문학과 필법으로 이름이 있었고 한강(寒崗) 정구(鄭述, 1543~1620),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1548~1631)과 더불어 학문을 강론하고 예의를 논하였다.

그가 언제 왜 인주로 내려왔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아산현 하도(下道-인주면 대음리)에 은거하고 이때 방축리(인주면 문방리)에 압해정(壓海亭)을 짓고 거문고와 술로써 즐겼으며 당시의 문사(文士)들이 시를 지어 그의 아름다움을 흠모하였다.’는 기록과 그가 고부군수가 된 것이 죽기 전해인 1618년인 점으로 보아 말년에 내려온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처가 쪽은 확인되지 않는다. 임진왜란과 연계하여 대략 400년 전일 것으로 추정해본다. 그의 묘는 서울 북악산 자락에 있었는데 약 20년 전에 인주면 문방리로 옮겨 모셨다.

성준은 취성(就聖), 취현(就賢), 취학(就學), 취문(就問) 등 네 아들을 두었다. 취성은 임피현령, 취



현은 참봉, 취학은 석성현감, 취문은 선공감역을 지냈다. 성준의 후손은 인주 문방리와 냉정리, 천안 직산, 배방 중리 일대로 퍼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성준의 묘-



-창녕성씨 묘역과 재실-

[54] 창녕성씨 성지민 | 成至敏 <1643년(인조 21년) ~ 1717년(숙종 43년)>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창녕성씨(昌寧成氏) 16세로 상곡공파 아산시 도고면 석당리 입향조이다. 현재 신창면 남성리에 살고 있는 후손 25세(世) 성기경(成起慶, 61세)의 9대조이다.

대학자인 문간공(文簡公) 우계 성혼(成渾)의 현손(玄孫)이고 영동현감을 지낸 성문준(成文濬)의 증손이며 사재첨정 성역(成櫟)의 손자이다. 상의원 첨정을 지내고 대사헌에 추증된 구금당(求金堂) 성희주(成熙胄)의 둘째아들이다.

자는 여눌(汝訥) 호는 수출당(守拙堂)이다. 부인은 도고에 내려와 강학했던 포저 조익(趙翼)의 증손녀이자 현령 조지강(趙持綱)의 딸인 풍양조씨(豐壤趙氏)와 통덕랑 한송(漢松)의 딸인 청주한씨(淸州韓氏)이다. 1675년(숙종 1)에 사마시에 합격해서 진사가 되었으며 1681년(숙종 7)에 장릉참봉에 제수된 뒤 봉사·직장·종부주부·사헌부감찰 등을 역임하였다.

1689년(숙종 15)에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로 정하는 데 반대한 송시열 등 서인이 정권에서 쫓겨난 기사환국 때 정치에서 물러나 신창현, 현재의 도고면 석당리에 내려와 조용히 살게 되었다. 이후 갑



술환국(1694년)으로 다시 서인이 집권하자 관직에 나아가 평시령·장예원사의·온양군수·사복첨정 등을 거쳤다. 이어 평창·마전군수를 지내며 선정을 베풀어 선정비가 세워졌고 이어 공조정랑·장악원첨정·장흥주부 등을 지내고 통훈대부에 올랐다.

그의 묘는 도고면 농은리 잔골에 있고 아들 금구현감 성진석(成晉錫)의 묘는 신창면 남성1리에 있다. 후손들이 도고면과 신창면 일대에 널리 퍼져 살고 있다.



-성지민의 묘와 묘표-

[55] 밀양손씨 손길 | 孫恪 <1563년(명종18년)~1590년(선조23년)>

조선 중기의 인물로 밀양손씨(密陽孫氏) 38세(世)이며 밀양손씨 소윤공파(少尹公派)의 아산시 지역, 탕정면 명암2리 장목 마을 입향조이다. 현재 장목 마을에 거주하는 53세(世) 손동열(孫東烈, 69세)씨의 15대조이며 430여 년 전의 일이다.

그는 조선 성종 때 이조정랑을 역임한 손위(孫渭)의 현손이자 세자익위사 시직을 지낸 손수창(孫秀昌)의 증손이고 어모장군으로 충무위 부사직에 오른 손형(孫衡, 1499~1573)의 손자이다. 아버지 손여성(孫汝誠, ?~1578)의 자는 극일(克一)이고 호는 용담(龍潭)과 촌로(村老)이며 1561년(명종 16년)의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성균관 전적 등을 거쳐 선조9년(1576년)에 천안군수로 재임하며 선정을 베풀어 선정비가 세워졌다. 이듬해에 남원부사로 승차하여 재직하던 그 다음해(1578년)에 남

원에서 출하였으며 묘는 선대가 거주해온 논산 가야곡에 있다. 어머니는 평강 채씨(平康蔡氏)이며 채계여(蔡繼與)의 딸이다.

손길은 급(伋), 억(億), 길(佺), 탁(倬) 등 네 아들 중 셋째 아들인데 위로 두 형이 일찍 세상을 떴다. 기록에 따르면 아버지가 남원부사로 갈 때(1577년-선조10년) 그가 어머니 채씨를 모시고 탕정 장목(죽보에는 ‘창복촌-昌福村’)으로 와서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그가 15세 때이니 어머니를 따라 들어왔다고 본다. 어머니는 장목 마을에 묘를 모셨다.

인근 마을인 황골(염치 대동리) 등에 채씨가 거주하지만 약 300년 전부터이고 그의 어머니 채씨는 경기도 안양 지역 출신이어서 관련은 없다. 그가 이 마을로 들어온 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손길의 자는 희숙(喜叔)이며 통덕랑(通德郎)으로 참봉을 지냈다. 부인은 기계유씨(杞溪俞氏)이며 유운(俞運)의 딸이다. 그는 불과 26세에 일찍 세상을 떴다. 다행히 홍수(弘壽), 홍복(弘復), 홍조(弘祚) 등 세 아들을 두었다. 장남 손홍수는 명암리에 자리 잡았다. 아들 중신(重臣)과 언신(彦臣) 등 2남1녀를 두었으나 맏아들 중신은 일찍 세상을 떴고 차남 언신이 외아들 광필(光弼)을 두었는데 광필이 천립(天立), 택립(擇立), 정립(貞立) 등 세 아들을 낳은 뒤부터 후손이 많이 퍼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둘째 손홍복은 후손이 없고 셋째 아들 손홍조는 서산 대산에 가서 자리 잡았다가 손홍조의 손자 구석(九錫)이 공주 유구 등지로 이주했고 이후 일부는 공주 정안이나 천안 풍세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공주 유구에서 48세(世) 때 후손들이 송악면 수곡리와 신창면 신달리로 들어와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손길의 아버지 손여성 기적비-



-손길의 묘-



[56] 여산송씨 송정원 | 宋廷元 <?~?>

여산송씨(礪山宋氏) 22세이고 정가공파(正嘉公派) 영인면 역리 입향조이다. 아버지는 가선대부(嘉善大夫) 만준(萬浚)이며 어머니는 전주(全州)이씨(李氏) 방(芳)의 딸이다.

송정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하지 않는다. 증(贈) 군자감정(軍資監正)이며 부인은 진주 강씨(姜氏)이다. 묘는 몇 년 전에 화장을 하였다.

[57] 평산신씨 신계형 | 申季衡 <1537년(중종32년)~1592년(선조25년)>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평산신씨(平山申氏) 20세(世)로 사간공파 아산시 지역, 둔포면 운용리 입향조이다. 현재 둔포 운용리에 거주하는 32세(世) 신억균(申億均, 65세)씨의 12대조이다. 그의 선대는 경기도 양주 지역에 거주하였으며 그가 둔포에 온 시기와 연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약 450년 전쯤으로 추정한다.

그는 사간공파(思簡公派) 파조인 자헌대부 호조판서 신호(申浩)의 5세손이며 증판중추원사 신경종(申敬宗)의 현손, 형조도관과 정랑을 지낸 신수복(申守福)의 증손, 선략장군 신영보(申永保)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직장(直長)을 지낸 신적(申摘, ?~?)이며 어머니는 진주유씨(晉州柳氏)로 부사 유익후(柳益厚)의 딸이다.

신계형의 자는 정평(正平)이며 생진과를 거쳐 청산현감(靑山縣監-충북 옥천)을 지냈기 때문에 그를 ‘청산공’으로 칭하고 후손들은 ‘청산공파(靑山公派)’로 칭한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난 뒤 순절했다고 한다. 묘는 둔포면 석곡리에 있다.

부인은 여흥민씨이며 민구경(閔具慶)의 딸이다. 외아들 회(澮, 1548~1629)를 두었고 신회가 두 아들 광립(光立)과 광철(光徹)을 낳았다. 이들 이후에 후손들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신계형의 후손들은 주로 둔포면 일대와 충북 음성, 진천 그리고 각지에 있다.

그의 손자 신광철(1606~?)은 부사과를 지냈으며 부인이 열녀정려가 내려진 청송심씨(靑松沈氏, 1607~1636)로 심원회(沈源淮)의 딸이다. 청송심씨는 병자호란 때 피난길에 올랐다가 친정어머니가 오랑캐에게 붙잡힐 위기에 처하자 대신 잡혀서 어머니를 살린 뒤 저항하다가 살해당하였다. 이에 정

려가 내려져 지금까지 마을 전해지고 있다.



-신계형의 손부 청송심씨 정려비와 현판-

[58] 고령신씨 신응사 | 申應泗 (1546년(명종1년)~ ?)

조선 중기의 무신이며 고령신씨(高靈申氏) 12세로 귀래정공파(歸來亭公派) 아산시 지역, 송악면 종곡리 입향조이다. 현재 종곡리에 거주하는 24세(世) 신명우(申明雨, 73세)씨의 12대조가 된다. 선대는 주로 서울에 거주하였다.

고조는 생진과와 문과를 같은 해에 급제한 뒤 대사간을 지냈던 청백리(清白吏) 귀래정(歸來亭) 신말주(申末舟, 1429~1503)이다. 신말주는 신숙주(申叔舟)의 동생이며 단종이 폐위되자 벼슬을 버리고 전북 순창으로 들어가 귀래정을 짓고 은거하였으나 세조의 분노와 형의 권유로 잠깐씩 몇 차례 관직에 나왔으나 곧 사직하고 순창으로 돌아갔다가 성종 즉위 이후 다시 출사하였다.

증조는 순창에 은거했던 증자현대부 신홍(申洪)이며 조부는 사마시와 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동지중추부사에 오른 청백리 정민공(貞敏公) 신공제(申公濟, 1469~1536)이다. 아버지는 첨정을 지낸 신평(申滉, 1520~1572)이며 어머니는 전주이씨로 가평부정(加平副正) 이징(李澄)의 딸이다.

그는 응락(應洛), 응하(應河), 응수(應洙), 응사(應泗) 등 4형제 중 넷째아들이다. 이들 중 첫째 신응락(1540~1634)은 송악면 송학리에 자리 잡았고 넷째 신응사는 송악면 종곡리에 들어 왔다. 둘 중 누



가 먼저 왔고 그것이 언제 어떤 사유로 인한 것인가는 확인되지 않는다. 혼인 및 처가와의 관련도 아직은 알 수 없다.

신응사는 두 아들 혜(德)와 려(勵)을 두었다. 이 중 신력은 송학리의 백부 신응락의 계자로 갔으며 신력 또한 아들이 없어서 신혜의 넷째아들 경준(慶濬)을 계자로 들였으니 이 지역 고령신씨는 실질적으로 신응사의 후손이 되기 때문에 신응사를 입향조로 보았다. 그와 직계 몇 대의 묘는 송악면 종곡리에 있다.

신혜는 철준(哲濬) 등 아들 넷을 두었고 신경준도 아들 넷을 낳았으니 이후 신응사의 후손이 많이 늘었다. 송악면 종곡리와 송학리를 거점으로 하고 온양과 배방 수철리 등 여러 곳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신응사 묘비-

[59] 청송심씨 심광렴 | 沈光濂 <1595년(선조28년) ~ ? >

청송심씨(靑松沈氏) 13세로 안효공파(安孝公派) 음봉면 산동리 입향조이다.

아버지는 호성원종훈(扈聖原從勳)에 책록되고 감찰에 증직된 심해(沈諧)이며 어머니는 동래정씨(東萊鄭氏)로 도사(都事) 정운길(鄭雲吉)의 딸이다.

심광렴의 자(字)는 희현(希賢)이고 음직(陰職)으로 부정(副正)을 지냈다. 부인은 동래정씨(東萊鄭氏)

이고 별좌(別坐) 정준연(鄭俊衍)의 딸이다. 그의 부인 동래정씨(東萊鄭氏)는 정유재란 때 함평으로 피난을 갔다. 왜병이 호남일대를 침공해오므로 함평을 떠나 구갑포(九岬浦)에서 목선을 구해 타고 동래정씨 가족과 진주정씨 가족이 동반하여 서울로 떠났다. 풍량이 심하여 간신히 영광 칠산 바다 묵방포(墨防浦)에 이르렀을 때 적선에 포위당하였다. 세 살 먹은 심광렴을 늙은 충비(忠婢) 복이(福伊)에게 부탁하고 친정어머니 함양오씨와 친정동생 권척(權陟)의 처(妻) 등 12열부(烈婦)가 9월 27일 바다에 투신하였다.

심광렴의 묘는 김포시 대곶면 야감리에서 음봉면 산동리로 이장하였으며, 정유재란 때 절사(節死)한 12열부(烈婦) 정려와 충비(忠婢) 복이(福伊)를 설단하여 모시고 있다. 제사는 음력 10월 상정일(上丁日)에 지낸다.



-심광렴의 처 동래정씨 정려와 충비 복이의 단-

[60] 청송심씨 심대수 | 沈大需 <?~?>

청송심씨(靑松沈氏) 11세이며 안효공파(安孝公波) 염치읍 석정리 입향조이다. 직학(直學)을 지낸 심간(沈簡)의 현손이다. 아버지는 군자정을 지낸 두(斗)이고 어머니는 의령남씨(宜寧南氏)로 남효양(南孝讓)의 딸이다.



심대수의 자(字)는 수백(秀伯)이며 승사랑에 올랐고 부인은 신천강씨(信川康氏)이며 참봉 강계남(康繼南)의 딸이다. 수원 이의동에서 염치읍 석정리로 낙향하여 살았다.

그의 후손들은 같은 안효공(安孝公)의 후손이 많이 사는 수원 이의동에도 살고 있으며 염치읍 방현리, 송곡리, 온양 모종동 등에 산다. 묘는 염치읍 방현리(방수물) 학령(鶴嶺)에 있다. 음력 10월 15일에 제사를 지낸다.

[61] 풍산심씨 심정방 | 沈正邦 <? ~ ?>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풍산심씨(豊山沈氏) 15세이며 아산시 지역, 도고면 신통리 입향조이다. 현재 신통리에 거주하는 28세(世) 심수현(沈壽鉉, 82세)씨의 13대조이다. 선대는 경기도 김포 지역에 거주하였다.

심정방은 조선 태종 때의 무신으로 이방원을 도와 좌명공신(佐命功臣) 4등으로 풍천군(豊川君)에 봉해지고 판공안부사에 올랐던 정양공(靖襄公) 심구령(沈龜齡, 1350~1413)의 6세손이고 문과 급제 후 영흥도호부 판관을 지낸 심광필(沈光弼)의 증손이며 한성부 판관을 지낸 심언달(沈彦達)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중종 29년(1534)에 생원시, 명종 4년(1549)에 문과에 급제하고 통훈대부로 승문원 참교(參校)를 지낸 심연(沈淵)이며 어머니는 밀양박씨로 박혼원(朴渾源)의 딸이다. 생부는 남원에 살던 심담(沈潭)이며 계자로 왔다.

심정방은 1530년경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는 정숙(正淑)이며 증 가선대부 형조참판으로 풍계군(豊溪君)에 봉해졌다. 부인은 평산박씨(平山朴氏)로 참판 박신(朴紳)의 딸이다. 그가 언제 어떤 연유로 인하여 도고 신통리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훈구파 집안으로서 사림파가 득세하면서 낙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략 1570년을 기준으로 440년 전으로 본다. 왜 이곳 도고였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그의 6대조인 심구령의 묘소는 경기도 광주 지역 사패지에 있는데 심구령의 부조묘(不祧廟-불천지위)가 언제 이 근처(선장면 신성리)에 세워졌는지 불명확하다. 그의 직계 후손이 이곳에 자리 잡은 후에 옮겼을 가능성이 있고 이 지역도 사패지였을 수도 있다.

심정방은 동명(東明)과 동웅(東雄) 두 아들을 두었다. 큰아들 심동명(1581~?)은 무과에 급제하고 어모장군 오위도총부 도사를 거쳐 가선대부 행갑산도호부사에 올랐으며 남풍군(南豊君)에 봉해졌다. 그러나 후사가 없어서 동생의 장남 완(完)을 계자로 들인 뒤 2남3녀의 손자를 보았다. 둘째인 심동웅

(1587~?)은 가선대부 행용양위 부호군에 올랐으며 부인 전주최씨 사이에 완(完), 수(修), 칭(備), 휴(休) 등 4남3녀를 두었다. 이 중 첫째는 형의 계자로 갔고 넷째아들은 무후여서 결국 심동옹의 세 아들이 심정방의 대를 잇게 되어 지금도 후손들은 '3파로 이어져왔다'는 말을 쓰고 있다. 심정방과 두 아들의 묘는 신통리 통미에 있다.

풍산심씨 '신창파'로 칭하는 후손들은 도고 신통리를 중심으로 신창 일대, 서울 지역 등으로 퍼져 살고 있다.



-심정방 묘역 그림과 묘-

[62] 순흥안씨 안거인 | 安居仁 <?~?>

조선 중기의 인물로 순흥안씨(順興安氏) 14세이며 3파(교서공파) 중 문정공파 아산시 지역, 영인면 성내리 입향조이다.

대사헌·대제학·우참찬 등을 지낸 문숙공(文肅公) 안송선(安崇善)의 5세손이며 형조정랑·이천부사 등을 지낸 안우삼(安友參, 1441~1494)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어모장군 행 충좌위 부사과를 지내



고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에 증직된 안휘(安輝)이고 어머니는 진주유씨(晉州柳氏)이다.

안거인의 자(字)는 자영(子榮)이고, 부인은 진주소씨(晉州蘇氏)이다. 신창현 지역 입향조인 수인(守仁)과 마찬가지로 사화로 인한 혼란을 피해 과천에서 은거지를 찾아 아산현(영인면 성내리)으로 와서 살게 되었다. 뒤에 가선대부 호조참판으로 추증되었고, 계소(繼蘇)·윤소(胤蘇)·응소(應蘇) 등의 자손을 두었다. 묘는 평택 진위의 소(蘇)씨 종산에 있었는데 1982년에 아산 음봉 후천동 종산에 이전하였다. 현재는 문중에서 영인면 성내리 안골에 숭모재(崇慕齋)를 짓고 안휘(安輝)부터 안거인(安居仁) 이후 후손들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63] 순흥안씨 안인노 | 安仁老 <? ~ ?>

순흥안씨(順興安氏) 23세이며 참판공파(參判公派) 인주면 밀두리 입향조이다.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가 되었다. 부인은 경주김씨(慶州金氏)이다.

안인노는 경기도 용인에서 출생하여 '고향을 떠나면 자손이 번창한다'고 하여 이곳 아산땅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묘는 송악에 있었으나 실전되었다. 후손 중에 재미 화가 안봉규가 있다.

[64] 순흥안씨 안몽란 | 安夢蘭 <? ~ ?>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이며 순흥안씨(順興安氏) 17세로 1파(추밀공파) 중 참판공파 아산시 지역, 송악면 평촌리 입향조이다. 현재 평촌리에 거주하는 후손 27세 안병훈(安炳薰, 71세)씨의 10대조이다. 선대는 주로 경기도 양주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그의 고조는 승사랑 안광수(安光晬)이고 증조는 세자익위사 좌익위(정5품)에 오른 안경률(安景律)이며 조부는 문과 급제 후 충청도관찰사까지 오른 증이조판서 세한재(歲寒齋) 안종도(安宗道, 1522~1600)이다. 아버지는 증좌승지 안세진(安世震, 1540~1590)이며 어머니는 대구서씨(大邱徐氏)로 병사 서봉(徐崱)의 딸이다.

안몽란은 몽주(夢周), 몽란(夢蘭), 몽설(夢說) 3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다. 품계는 선교랑이며 학행으



로 여러 차례 관직이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부인은 강화최씨(江華崔氏) 지평 최선계(崔善繼)의 딸과 원주원씨(原州元氏) 증승지 원신남(元信男)의 딸이다. 그가 언제 왜 평촌리로 왔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집안에서는 인조반정(1623년) 때 왔다고도 하지만 근거는 없다. 그 전의 일일 것으로 추정하며 대략 400년 전으로 본다.

안몽란은 응훈(應墳)과 응호(應麓)등 2남1녀를 두었다. 안응훈은 세 아들 규(珪), 옥(頊), 우(瑀)를 두었고 안응호는 경(璟), 장(璋), 경(璣) 삼남을 두었으니 이후 후손이 많이 늘어나서 오늘날까지 번창하는 계기가 되었다. 안몽란의 딸은 주부(主簿)를 지낸 이기문(李起門)과 결혼했는데 이기문은 예안이씨 온양(송악면 외암리) 입향조인 이사종(李嗣宗)의 삼남인 단(端)의 아들이다. 안몽란의 묘소는 평촌리에 있다.

한편 그의 형으로 사옹원 봉사(奉事)를 지낸 안몽주(1562~?)의 묘는 양주에 있는데 첫 번째 부인 여주이씨의 묘가 방수동(方水洞-염치읍 방현리)에 있는 점이 특이하다. 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 한 가지는 그의 동생도 음봉으로 내려와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안몽설(1567~1638)은 음봉면 쌍암리 지역에 들어와 터를 잡았다. 부인은 예안이씨 이륜(李崙, 1541~?)의 딸이다. 이륜은 예안이씨 입향조인 이사종의 장남이다. 안몽설이 비록 음봉에 자리 잡았지만 혼인을 계기로 들어온 것은 분명하다. 형인 안몽란도 비슷한 시기에 함께 왔을 것으로 추정한다. 안몽설의 큰 아들 응명(應明)의 묘가 송악면 동화리에 있는 것으로 보아 평촌리 안몽란 쪽과 연계가 확실하다.

[65] 순흥안씨 안수인 | 安守仁 <?~?>

조선 중기의 은일(隱逸)로 순흥안씨(順興安氏) 14세이고 3파(교서공파)의 문정공파 중 승지공파 아산시 지역 신창면 궁화리 입향조이다. 현재 궁화리에 거주하는 26세(世) 안상완(安商完, 79세)씨의 12대조이다.

안수인의 고조는 문과 급제 후 대사헌·대제학·우참찬 등을 지낸 문숙공(文肅公) 안송선(安崇善, 1392~1452)이고 증조는 연안부사(延安府使)를 역임한 안의(安誼)이며 조부는 형조정랑·이천부사 등을 지낸 안우삼(安友參, 1441~1494)이다. 아버지는 공조정랑을 역임하고 좌승지로 추증된 안도



(安燾)이며 어머니는 한산이씨(韓山李氏)이다.

안수인의 자(字)는 낙보(樂甫)이고 통정대부 승정원좌승지에 추증되었다. 집안에 전하는 바에 따르면 사화가 거듭되어 정국이 어수선해져서 경기도 과천에서 신창면 궁화리 궁동(宮洞)으로 들어와 자리 잡은 ‘낙향선조’이다. 내려온 시기는 1545년 을사사화 즈음으로 추정되며 대략 460년 전이다. 영인면 성내리 쪽에 자리 잡는 안거인(安居仁)과는 사촌간이다.

부인은 강진김씨(康津金氏)이다. 전(筌)과 범(範) 두 아들을 두었으며 안전(安筌)은 주부(主簿)를 지냈으며 안범(安範)은 무과를 거쳐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에 오르는 등 후손들이 번창하였다. 현손 안일관(安日觀)은 지극한 효행으로 효자로 정려가 내려져 지금도 전하고 있다.

안수인의 묘는 신창면 궁화리 궁동 국수산(國秀山) 자락에 있으며 그 아래에 아들들의 묘도 함께 있다. 후손들은 신창 궁화리 일대를 중심으로 온양, 배방 구령리, 송악, 천안 등 각지에 널리 퍼져 있다.



-안수인의 묘와 후손 안일관의 효자 정려-

[66] 순흥안씨 안식 | 安湜 <1844년(헌종10년) ~ 1921년>

조선 말기의 인물로 순흥안씨(順興安氏) 25세이며 참판공파(參判公派) 인주면 냉정리 입향조이다.

부인은 영일정씨(迎日鄭氏)이며 삼남을 두었다. 장남은 안상우(安相珩)이고 부인은 성주정씨(星州鄭氏)이다. 차남 안상채(安相采)의 부인은 평산신씨(平山申氏)이고 삼남 안상구(安相玖)의 부인은 나주정씨(羅州鄭氏)이다.

이들은 경기도 평택 고덕에서 살았으나 농사철에 물이 부족하여 농사에 어려움이 많아서 물이 풍족한 인주면 냉정리로 왔다. 삼형제가 서로 다른 시기에 이주해왔고 후손들이 현재까지 살고 있다. 묘는 냉정리에 있고 한식 차례를 지낸다.

[67] 죽산안씨 안적 | 安績 (1654년(효종5년)~1710(숙종36년))

조선 후기의 무신이며 죽산안씨(竹山安氏) 24세(世)로 연창위파 아산시 지역, 탕정면 매곡3리 가소지 마을의 입향조이다. 현재 매곡3리에 13대째 거주하고 있다.

고조는 풍덕군수 등을 역임한 안사흠(安士欽)이고 증조부는 안응홍(安應洪)이며 조부는 사헌부 집의에 증직된 안대집(安大稹)이다. 아버지는 좌승지에 증직된 안정위(安廷燁, 1629~1660)이다. 어머니는 전주 이씨(全州李氏, 1625~1685)로 경력을 역임한 이탁(李晫)의 딸이다.

그는 신(紳)과 적(績) 등 2남 중 차남이다. 형 안신은 무과에 급제하고 비변랑, 벽동군수 등을 역임했다. 안적의 초명은 휘(徽)이고 자는 희숙(熙叔)이다. 1676년(숙종2)에 무과에 급제한 뒤 훈련원 부정(副正) 등을 역임하고 세 개 고을의 원을 거쳐 경상좌수사(정3품)까지 올랐다. 집안에서는 그를 '수사공(水使公)'이라 칭한다. 묘는 가소지 마을 천덕산 줄기에 있으며, 사후에 병조참판에 증직되었다.

조부와 부친, 그리고 형 신(紳)은 당진군 정미면 지역에서 살았고 그가 탕정 가소지 마을에 처음으로 들어와 자리 잡게 된다. 300여 년 전의 일이지만 정확히 언제, 왜 들어왔는가는 확인되지 않는다. 부인 전주이씨와의 혼인이 인연일 것으로 보지만 부인의 가계를 알 수 없다.

부인은 이일신(李日新)의 딸 전주이씨(全州李氏)이며 딸 셋을 낳았다. 후부인 남원양씨(南原梁氏)는 양익수(梁益壽)의 딸이며 3남 3녀를 두었으니 이후 후손이 크게 번창한다. 그의 4남 중 첫째인 상한(相漢)은 전주이씨가 아들을 두지 못하자 형의 둘째 아들을 계자로 들인 아들이고 둘째 상오(相五)와 셋째 상우(相



-안적의 묘와 묘역-



禹), 넷째 상직(相稷)은 양씨 소생이다. 큰아들 안상한은 무과 급제 후 곡산부사, 둘째아들 안상오도 무과 급제 후 평산부사를 지냈다. 큰 딸은 충무공 이순신의 후예인 덕수이씨 이봉상(李鳳祥, 1676~1728)과 혼인하였다. 이봉상은 무과 급제 후 포도대장, 총융사, 훈련대장 등을 지냈으며 충청도병마절도사 재임 중 이인좌의 난 때 순절하였고 충민공(忠愍公)의 시호를 받았으며 현충사에 배향된 인물이다.

안적의 여러 후손들은 부사(府使), 수사(水使), 병사(兵使) 등을 지내며 입신양명하였다.

[68] 남원양씨 양주일 | 梁柱一 <1759년(영조35년)~1810년(순조10년)>

조선 후기의 인물로 남원양씨(南原梁氏) 27세이며 참판공파(參判公派) 선장면 군덕리 입향조이다. 현재 음봉면 삼거리에 거주하는 후손 31세(世) 양승덕(梁承德, 일명 원순-元淳, 80세)씨의 4대조이다.

양주일의 조부는 양종우(梁鍾右, 일명 세걸-世傑)이고 아버지는 양언수(梁彦洙, 일명 정태-廷泰)이며 어머니는 하동정씨(河東鄭氏)이다.

양주일은 일명 덕화(德和)이며 부인은 전주이씨(全州李氏)이다. 아들 병환(일명 홍수-洪洙)을 두었다. 예산 대흥에서 선장면 군덕리로 이사하여 살다 인주면 갈매리를 거쳐 현재 거주하는 음봉면 원남리로 와서 자리 잡게 되었다. 그의 묘는 음봉면 원남리에 있다.

후손은 음봉면 원남리와 삼거리, 신창면, 배미동, 천안 성거면 요방리 등 각지에 산다.

[69] 해주오씨 오건 | 吳健 <?~?>

조선 초기의 무신으로 해주오씨(海州吳氏) 10세이며 찬성공파 아산시 지역, 도고면 도산리 입향조이다. 현재 도고면 와산리에 거주하는 25세(世) 오일근(吳壹根, 74세)씨의 15대조이다.

해주오씨 족보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그는 지백주사(知白州事)로 뒤에 문하시중 평장사에 추봉된 문충공(文忠公) 오효순(吳孝純)의 현손이다. 문과 급제 후 윤관(尹瑄)과 함께 여진 토벌에 공을 세우고 뒤에 판이부사를 거쳐 추충공신의

로 상주국이 된 문양공(文襄公) 오연충(吳延寵, 1055~1116)의 증손자이다. 문과에 급제하고 찬성사(贊成事-정2품)에 오른 문경공(文敬公) 오반(吳潘, “찬성공”)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호조판서를 지낸 뒤 낙향하여 후진양성에 힘쓴 양한재(養閒齋) 오성식(吳成式)이며 어머니는 이(李)씨이다. 그의 선대는 경기도 양주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그는 부(溥), 엄(淹), 건(健), 방우(邦佑) 등 네 아들 중 셋째이며 호가 신창(新昌)이다. 그의 호에 따라 후손들은 ‘신창공파’로 칭하기도 한다. 무과를 거쳐 부정(副正-종3품)을 지냈다. 부인은 풍양조씨이다.>

족보에 의하면 오건의 중형인 오염의 부인이 해주최씨 최단(崔鄴)의 딸이다. 최단은 고려말~조선초의 무신으로 이성계의 위화도회군에 참여한 회군공신이자 개국공신(3등)이 된 인물이다. 형의 장인을 기준으로 보면 오건의 생존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고려말~조선초로 봐야 한다. 그렇게 되면 1350년을 기준으로 본다고 해도 3대 차이인 증조부 오연충(1055~1116)과 300년이나 차이가 난다. 거꾸로 보면, 현재로부터 15대조이면 대략 30년으로 보아 450년전이다. 서기 1550년 정도이고 빨라도 1500년경이다. 조선이 들어선 1392년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1930년으로부터 540년 전, 1대가 45년씩이 된다. 뭔가 오류가 있다. 따라서 그를 조선 초의 인물로 보고, 선대보다는 후대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또 한 가지는, 비문에 따르면 그가 신창골에 부임하여 해서지역 방위를 담당했다고 하였는데 해서(海西)는 황해도 지방이고 충청 지방은 호서(湖西)이니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호서라 할 것을 착각하여 해서로 했으리라 본다. 그의 호가 신창인 것으로 보아 신창에 들어와 산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 그의 묘는 도고면 농은리에 있었는데 금년(2009년) 초에 도산리로 옮겨 모셨다.

오건은 외아들 억령(億齡)을 두었고 오억령도 외아들 윤(綸)을 두었으며 오윤 또한 외아들 시준(時俊)을 두었다. 그 뒤 오시준이 섬(暹, 담(曇), 정(暵) 등 세 아들을 두면서부터 후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도고 지역을 중심으로 선장, 신창 지역까지 퍼지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건의 묘-



[70] 해주오씨 오윤성 | 吳允誠 <1576년(선조9)~1652년(효종3)>

조선 중후기의 문신이며 해주오씨(海州吳氏) 14세(世)로 서하공파(西河公派)의 파조이자 아산시 지역 입향조이다.

어모장군으로 행용양위 부사과를 지낸 오계선(吳繼善)의 현손이자 석성현감을 지내고 이조판서에 추증된 오옥정(吳玉貞)의 증손이고 사헌부 감찰에 오르고 좌찬성에 증직된 오경민(吳景閔)의 손자이다.

아버지 오희문(吳希文, 1539~1613)은 벼슬살이를 하지 않았으나 큰아들이 높은 관직에 오르자 선공감역에 제수되고 뒤에 영의정으로 추증되었다. 오희문은 1591년 11월부터 1601년 2월까지, 임진왜란 전후의 시기에 겪었던 여러 일들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쇄미록(瑣尾錄)」 7책을 남겼다. 보물 제1096호(1991.9.30)로 지정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그는 모친상을 당하자 70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죽만 먹으며 3년간 여묘(廬墓)를 하여 청음 김상헌(金尙憲)의 칭송을 받았다. 어머니는 연안이씨(延安李氏)이며 문천군수 이정수(李廷秀)의 딸이며 성종(成宗)의 왕자인 익양군(益陽君)의 외손녀이기도 하다.

오윤성은 4남 중 넷째로 태어났으며, 영의정에까지 오른 오윤겸(吳允謙, 1559-1636)은 그의 맏형이다. 그의 자는 여일(汝一)이고 호가 서하(西河)이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서하공'으로 칭한다. 중훈대부(中訓大夫)로 진천현감을 지냈다. 부인은 전주이씨(全州李氏)로 지평 이충성(李忠誠)의 딸이다. 이충성이 거주했던 곳이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나 신창면 가덕리이거나 인접한 곡교천 건너 지역(염치읍 강청리~중방리)으로 추정된다. 이충성의 형제들, 그리고 오윤성 등이 함께 곡교천 범람원 지역을 개간했다고 전해지기 때문이다.

선대는 주로 경기도 광주와 서울 지역에 거주하였다. 그러나 왜란을 당하여 아버지 오희문 등 가족과 함께 충남 부여 임천에 피난하였던 바, 그곳에서 역시 피난 와 있던 전주이씨 이충성 집안과 만나 오윤성이 금강 건너 함열에서 혼인식을 올렸다. 또한 예산에는 고모가 살고 있어서 예산에도 머물렀고 신창을 거쳐 올라가 맏형이 현감으로 근무하게 된 강원도 평강에서 약 5년간 머물기도 했다. 그가 처가 인근인 신창면 신달리에 정착한 것은 병자호란(1636년)을 전후한 시기로 추정된다. 대략 370년 전의 일이다. 셋째 아들 달삼이 그를 모시고 신달리에 살았다. 그와 그의 후손들 묘소는 공주시 유구면 신영리 여든리(팔십리)에 마련한 선산에 모셔져 있다. 참고로, 병자호란 때의 유명한 '3학사' 중 한 명인 오달제(吳達濟)는 실질적으로 그의 조카이다.

오윤성은 달관(達觀), 달현(達賢), 달삼(達三), 달영(達榮) 등 4남1녀를 두었다. 이후 그의 후손들이

신창을 중심으로 인근 고을로 퍼져나가며 번창하게 된다. 그 중 셋째인 오달삼은 평산신씨(平山申氏) 사이에 도장(道章), 도상(道常) 등 두 아들, 후부인 파평윤씨(坡平尹氏) 사이에 도빈(道彬) 등 3남4녀를 낳았다. 오도빈(1647~1706)은 선략장군으로 선전관을 지냈는데 부인 동래정씨(東萊鄭氏)는 효부로서 정려가 세워져 지금까지 전해진다. 오도빈의 장례 때는 신창현감, 온양군수, 공주목사 등에게 운구에 협조 조치를 요청하여 도움을 받기도 했다.

오도빈의 아들 오수경(吳遂慶)도 효행이 읍지에 기록되었고, 오수경의 장남 오명필(吳命弼)과 차남 오명걸(吳命傑), 4남 오명엽(吳命燁), 오명걸의 아들 오언민(吳彦民) 등이 모두 효자로 기록되었으며 특히 오명걸은 효자정려가 내려졌으나 현재 전해지지는 않는다. 이렇듯 해주오씨 서하공파 가문에 누대에 걸쳐 효행의 가풍이 세워져 대대로 명성이 자자하였다.



-오윤성의 손부 동래정씨 정려-

[71] 단양우씨 우천오 | 禹天吳 <1779년(정조3년)~1849년(헌종15년)>

조선 후기의 인물로 단양우씨(丹陽禹氏) 22세이며 안정공파(安靖公派) 아산시 지역, 송악면 유곡리 느릅실 마을 입향조이다. 현재 느릅실에 거주하고 있는 29세(世) 우보현(禹普鉉, 84세)씨의 7대조이다. 선대는 충북 괴산에 오랜 동안 거주하였고 10대조 때 예산 대술면 마전리로 와서 3대를 살다가 이때 송악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우천오의 고조는 생원시에 급제하고 태학장의를 지낸 우서(禹曙, 1595~?), 증조는 평산 별장을 지냈고 예산 대술에 자리 잡은 우하선(禹夏善, 1634~?), 조부는 적상산성 중군(별장)을 지낸 우해복(禹海福, 1686~1742)이다. 아버지는 우수한(禹守漢, 1715~1784)이고 어머니는 평산신씨(平山申氏, 1714~1782)이다.

우천오의 자는 양의(兩儀)이며 부인은 진주정씨(晉州鄭氏)이다. 집안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가 좋은 곳을 찾아다니다가 광덕산 줄기에서 유곡1리 느릅실 마을을 보고 좋은 곳이라 하여 들어와 살게 되었다고 한다. 증조 이후 손이 귀해서 3대를 내리, 그것도 아주 늦게 간신히 외아들만을 두게 되자 자손이 번창할 수 있는 새로운 곳을 찾아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시기는 대략 200년 전으로 본다.

그는 용득(龍得)과 만득(萬得) 두 아들을 두었다. 큰아들 우용득은 외자에 외자로 3대만에 대가 끊어졌다. 둘째아들 우만득도 외아들 진국(鎭國)만을 두었으나 진국이 아들 셋을 둔 이래로 점차 손이 많아지게 되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천오의 묘는 공주 유구 탑곡리에 있었으나 금년(2009)에 후손들의 묘가 있던 마을 서남쪽, 봉수산 동쪽 중턱에 납골묘를 마련하고 옮겨 모셨다.



-단양우씨 납골묘-

[72] 원주원씨 원수심 | 元守心 <?~?>

조선 중기의 인물로 원주원씨(原州元氏) 20세(世)이며 참찬공파 아산시 지역, 신창면 가덕리 입향조이다. 현재 탕정면 갈산2리에 거주하는 후손 33세(世) 원유철(元裕哲, 74세)씨의 13대조이다.

그는 한성서윤을 지낸 원자공(元自恭)의 현손, 현감을 지낸 원근례(元近禮)의 증손, 증이조참의 원이(元?)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만포첨사를 역임한 원충량(元忠良, ?~?)이며 어머니는 확인되지 않는다.

원수심은 수경(守敬), 수선(守善), 수심(守心), 수의(守義) 등 4남2녀 중 셋째아들이다. 족보에는 첨지중추부사를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증직일 것으로 본다. 부인은 전의이씨(全義李氏)이며 진사이규석(李珪錫)의 딸이다. 동생 원수의가 공홍도 병마우후로 승진한 것이 ‘만력무오’ 즉 1618년(광해군10년)이며 몇 가지를 고려하면 원수심은 1560대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대는 주로 경기도 광주에서 거주했으며 그가 신창으로 온 것은 임진왜란 때로 보아 410여 년 전으로 추정한다. 집안에 전하는 바에 따르면 원래 보령 지역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가덕리 가에 포구까지 밀려오게 되자 결국 그 근처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한다. 같은 시기에 출발했을 것으로 보이는 형 원수경 집안은 보령 청라에 자리 잡았다.

원수심은 외아들 순거(舜擧)를 두었고 원순거는 이건(以乾)과 이곤(以坤) 등 두 아들을 두었다. 원이건은 두 아들 세웅(世雄)과 세호(世豪)을 낳아 점차 후손이 신창을 중심으로 온양, 탕정 등 인근 지역에 널리 퍼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둘째아들 원이곤은 40세 때인 광해군 당시에 과거시험에서의 부정에 대해 상소하였다가 화를 입었는데 이를 ‘명륜소피화(明倫疏被禍)’*라 한다.



-원수심의 묘비-

* 조선왕조실록에는 광해군 10년(1618년)에 사관(史官)이【이곤(元以坤)이 일찍이 상소하여 과거(科擧)에서 농간을 부려 패거리를 부식(扶植)한 이이첨의 간악한 행동을 극력 진달하였다. 이에 흉악한 무리들이 그의 죄를 없애 만든 뒤 계청하여 신국(訊鞠)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몇 차례에 걸쳐 형신(刑訊)을 받는 과정에서 장(杖)을 맞고



거의 죽을 뻔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정배하라는 명이 내려 거제(巨濟)에 위리 안치하게 되었다. 이 옥사에 이극건(李克健)·김원(金愿) 등 몇 사람이 또한 사련인(辭連人)으로 구속되어 모두 유배되었는데, 사적(事跡)이 없어서 기록하지 못한다.】라 적고 있다.

[73] 원주원씨 원몽성 | 元夢聖 <1687년(숙종13년)~1741년(영조17년)>

조선 후기의 인물로 원주원씨(原州元氏) 18세이며 시중공(侍中公)계 원산군-음성공파(原山君-陰城公派) 아산시 지역, 음봉면 원남리 입향조이다. 현재 음봉면 원남리에 거주하는 후손 25세(世) 원도상(元道商, 89세)의 7대조이다.

고조는 임진왜란 때 여주목사 겸 경기강원양도방어사로 순절한 원호(元豪, 1533~1592)이고 증조는 무과급제 후 지중추부사에 오르고 인조반정에 가담하여 정사공신 3등 원계군(原溪君)으로 봉해진 원유남(元裕男)이다. 조부는 역시 인조반정(1623년)에 참여하여 정사공신(靖社功臣) 2등에 책록되고 원평부원군(原平府院君)에 봉해졌으며 좌의정까지 오른 원두표(元斗杓, 1593~1664)이다. 원두표는 7남3녀를 두었다.

원몽성의 생부는 여섯째인 원만령(元萬齡)이고 생모는 전주최씨로 참판 최혜길(崔惠吉)의 딸이다. 둘째아들로 태어나 숙부(일곱째) 원만적(元萬敵)의 계자로 들어갔다. 계부 원만적은 승문원 제술관을 지냈으며 어머니는 우봉이씨(牛峰李氏)로 증참판 이건(李騫)의 딸이며 우봉이씨 음봉 신정리 입향조인 이종직(李宗直)의 손녀딸이다.

원몽성의 자는 희숙(熙淑)이며 통덕랑에 올랐다. 부인은 양천허씨(陽川許氏)로 통덕랑 허장(許漿)의 딸이다. 집안에서는 그가 원남리로 들어온 것은 외가와와의 인연으로 보고 있다. 시기는 대략 300년 전으로 본다. 그의 묘는 영인면 성내리에 있었으나 몇 년 전에 음봉면 원남리 남골당에 옮겨 모셨다.

그는 아들 명팔(命八), 명악(命岳), 명해(命海), 명기(命夔) 등 4남을 두었으며 이 중 첫째와 넷째는 계자로 가게 되어 실제 후손은 원명악과 원명해 형제만 남게 되었다.

원명악(元命岳)은 통덕랑에 올랐으며 부인은 청송심씨로 통덕랑 심노(沈櫓)의 딸이다. 2남2녀를 두었으며 후손은 배방읍 중리와 수철리 일대에 자리 잡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원명해(元命海)는 남양홍씨 참판 홍정서(洪鼎叙)의 딸과 혼인하여 1남2녀를 두었으며 후손들은 그대로 음봉 원남리에서 옮겨지 않고 세거지로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다.

한편 원몽성의 생부인 원만령(元萬齡)의 현손 22세(世) 원유풍(元有豊)은 증조 통덕랑 원몽협(元夢

協) 때부터 조부는 원경기(元景器)까지 홍성에 살다가 아버지 원희손(元希孫)이 논산으로 이주하였다가 원유풍에 이르러 탕정면 갈산리에 와서 정착하였다. 어머니는 청송심씨로 심용학(沈龍學)의 딸이다. 부인은 전주이씨이며 이성선(李聖善)의 딸이다. 원유풍의 묘는 탕정면 갈산2리 여술에 있으며 후손들은 탕정면 갈산리와 동산리 등지에 살고 있다.

[74] 강릉유씨 유득진 | 劉得振 <?~?>

조선 후기(1660년대)의 문신이며 강릉유씨(江陵劉氏) 10세로 병사공파(兵使公派) 아산시 지역, 선장면 죽산리 입향조이다. 선대는 충북 충주에서 거주하였으며 그는 충주에서 태어나 진천에서 성장하였다. 아산시 선장면에서 살다가 현재 대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후손 25세(世) 유규상(劉奎相, 50세)의 15대조이다.

유득진의 고조는 평안도병마절도사를 지낸 병사공파 파조 유신주(劉信周)이고 증조는 성종14년(1483)에 생진과에 합격한 성균진사 유표(劉豹)이며 조부는 군자감 직장 유세영(劉世英)이다. 아버지는 선조35년(1602)에 무과에 급제한 후 통훈대부로 행군기시 판관을 지내고 진무원종공신에 녹훈된 유의남(劉義南, 1577~?)이다. 어머니는 하동정씨(河東鄭氏)이다.

유득진의 자는 여해(與海)이고 호는 당우(堂宇)이다. 집안에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는 문과 급제 후 신창현감에 부임하면서 가족들이 선장면 죽산리에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시기적으로 보면 대략 350여 년 전으로 추정된다.

그의 부인은 김해김씨(金海金氏)이며 외아들 시한(始漢) 등 1남3녀를 두었다. 유시한은 부인 나주김씨(羅州金氏) 사이에 혼손(欣孫) 등 1남1녀를 두었다. 예산현감을 지낸 유흔손은 밀양박씨(密陽朴氏)와 혼인을 하였고 퇴임 후에 밀양박씨 세거지인 선장면 신동리에 들어가 살게 되면서 강릉유씨가 신동리에도 퍼지게 되었다.

유득진의 묘는 선장면 궁평리 종산(당시 신창군 대서면 '당우산')에 있었는데 지난 2006년에 홍성군 금마면으로 이장하여 모셨다. 그의 후손들은 선장면 죽산리와 신동리에 뿌리를 두고 당진군 순성면, 우강면, 합덕 지역으로도 퍼져 살다가 선장면 간척사업이 시작되면서 현재의 선장면 돈포1,2리에 집단 이주하여 세거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대도시 지역에 많이 거주한다.



[75] 문화유씨 유잠 | 柳潛 <?~?>

조선 전기의 인물이며 문화유씨(文化柳氏) 17세(世)로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입향조이다. 현재 탕정면 동산리에 살고 있는 후손 30세(世) 유한영(柳漢永, 79세)씨의 13대조이다.

조선 태종 때 검한성사(檢漢城事)를 지낸 유원현(柳元顯)이 그의 고조부이고 세종 때 대사헌과 이조참판에 올랐던 양도공(良度公) 유명(柳穎, ?~1430)은 증조부이며 인천군사(仁川郡事) 유효련(柳孝聯)이 조부이다. 아버지는 문의현령을 지낸 유정손(柳正孫)이며 어머니는 죽산박씨(竹山朴氏)로 사정(司正)을 지낸 박수양(朴遂良)의 딸이다.

족보에 유잠은 훈련원 주부(主簿-종6품)를 지냈고 원종공신(原從功臣)에 올랐다는 기록이 있다. 집안에 전하는 바에 따르면, 유잠은 세조 때 온양행궁에 근무했는데 이때 함께 근무하던 교동인씨(누구인가 확인되지 않음)가 권유해서 교동인씨(喬桐印氏)와 혼인을 하게 되었다. 교동인씨 입향조 인인경(印仁敬)의 종형제 인수경(印守敬)은 외아들 인호(印瑚 일명 琥)를 두었는데 인호는 아들 없이 외동딸만 두었다. 인호의 3종형제인 인근(印瑾-인인경의 장남)의 큰아들 인철수(印鐵壽)가 한 때 계자(系子)가 되었기 때문에 인호도 동산리 구루미 마을에 들어와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유잠은 바로 그 인호의 외동딸과 혼인한 뒤 구루미 마을에 들어와 자리 잡았다. 세조(1455~68 재위) 재위 기간을 고려하면 대략 540년 전의 일이다.

유잠은 진석(晉錫), 승석(承錫) 등 2남1녀를 두었다. 장남 유진석은 3남5녀를 두었고 현령을 지냈으며 이 마을에 살아 후손이 번성하였고 둘째인 유승석은 군수에 올랐으나 강화도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유잠의 선대는 경기도 양주에 살았으며 그가 이곳에 들어온 인연으로 마을 동쪽 절골 입구에 종산을 마련한 뒤 부모의 묘를 모시고 자신도 그곳에 잠들었다. 30여 년 전에 후손들이 그의 증조부 유명과 조부 유효련의 단(壇)을 묘역에 세워 함께 모시고 있다.



-유잠의 묘비와 묘역-

[76] 문화유씨 유형장 | 柳亨長 <?~?>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문화유씨(文化柳氏) 17세(世)이며 소윤공파(少尹公派)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안골 입향조이다. 선대는 주로 경기도 양주 지역에 거주하였다. 현재 세교리에 거주하는 후손 32세(世) 유경렬(柳慶烈, 70세)씨의 15대조이다.

유형장의 고조는 공민왕대의 공신이고 상호군에까지 오른 문화군(文化君) 유계조(柳繼祖, 1333~1374)이고 증조는 고려 말에 문과 급제 후 조선 개국공신과 좌명공신(佐命功臣) 4등에 책록되고 우의정에 오른 문성부원군(文城府院君) 유량(柳亮, 1356~1416)이며 조부는 종부(宗簿) 소윤(少尹)을 역임한 소윤공파 파조 유한생(柳漢生, 1402~1449)이다. 아버지는 통정대부로 천안군수를 역임한 유훈(柳勳)이고 어머니는 안동김씨(安東金氏)로 감찰 김맹엄(金孟廉)의 딸이다.

그는 선장(善長), 도장(道長), 수장(壽長), 형장(亨長) 등 4남1녀 중 넷째아들로 태어났다. 음직으로 울봉도 찰방(栗峰道 察訪)을 지내서 ‘찰방공’으로 칭한다. 유형장은 연산군(1494~1506 재위)의 통치에 반대하여 벼슬을 버리고 배방읍 세교리 안골로 낙향하여 은거하였다. 정확한 연도는 확인할 수 없지만 무오사화(1498년)나 갑자사화(1504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500여 년 전의 일이다.

부인은 경주설씨(慶州偁氏)이며 사직 설치심(偁致深)의 딸이다. 경주설씨는 일찍부터 배방읍 장재리를 중심을 인근 지역에 살아왔던 집안이다. 유형장은 아버지가 천안군수로 재임할 때 경주설씨와 혼인을 하였고 그 인연으로 낙향 지역을 세교리로 정했을 것으로 본다.

그는 자수(自修), 자숙(自淑), 자기(自淇), 자응(自應) 등 4남1녀를 두었으며 이들이 각각 5남, 2남1녀, 1남2녀, 3남1녀를 두었으니 처음부터 자손이 많고 크게 번창하여 오늘까지 이르고 있다.



-유형장의 묘와 묘비-



셋째아들 유자기의 딸은 기묘사화에 이은 신사무옥(1521년)으로 인근 마을인 배방읍 휴대리로 낙향한 안산김씨(安山金氏) 모기재 김필의 외아들 김원회(金元會)와 혼인하였다.

유형장의 묘는 세교리 안골에 있으며 뒤에 묘가 실전된 그의 아버지의 단과 할아버지의 묘소도 이곳에 옮겨 모시고 있다. 그의 후손은 매우 널리 퍼졌다. 배방읍 세교리를 중심으로 공수리와 구령리, 온천동 일원, 송악면, 염치읍, 신창면, 선장면, 당진군 우강면과 합덕읍, 천안시 성정동과 성남면, 동면, 공주시 정안면과 사곡면, 그리고 대전시, 경기도 용인, 서울, 인천 등 각지에 널리 퍼져 살고 있다.

[77] 파평윤씨 윤근 | 尹根 (1574년(선조 7년) ~ ?)

조선 중후기의 문신으로 파평윤씨(坡平尹氏) 23세이며 소정공(昭靖公)-한성공파(漢城公派) 아산시 지역 송악면 역촌리 입향조이다. 송악면 역촌리에 살다가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후손 35세(世) 윤명희(尹鳴熙, 89세)씨의 12대조이다. 종사를 보고 있는 윤명희씨는 그가 실제로 송악에 와서 살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가 귀양 가서 죽은 뒤에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외가로 내려왔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족보 등 그의 선후 세계(世系)를 알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없고 입향(낙향)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해서 일단 그를 입향조로 한다.

윤근의 고조는 윤숙(尹俶), 증조는 윤백령(尹伯齡), 조부는 윤항(尹沆)이다. 아버지는 문과 급제(1564) 후 강원도관찰사를 지낸 윤희길(尹希吉, 1534~?)이고 어머니는 영산신씨(靈山辛氏) 신중(辛琮)의 딸이다.

윤근의 자는 회원(晦遠)이고 호는 매음(梅陰)이다. 후손들은 '매음공'으로 칭한다. 1606년(선조 39)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1612년(광해군 4)에 식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1620년(광해군 12)에 지평에 제수되었으며 이듬해 물러났다가 그 다음해(1622년)에 평안도에 어사로 파견되었다. 대북(大北)의 영수인 이이첨(李爾瞻)을 공격하였다가 평안북도 위원(渭源)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한다. 묘는 서울 구파발에 있었으나 지금은 송악면 수곡리 가족공동묘지로 이장하였다.

부인은 예안이씨(禮安李氏) 송악면 외암리 입향조인 이사종(李嗣宗)의 장남인 이륜(李崙)의 딸이며 그는 예안이씨와의 혼인을 계기로 진천에서 송악면 외암리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대략 400여 년 전으로 본다.

그의 후손 중 현손(4세손)인 윤훈(尹焜, 1676~1725)은 자가 회이(晦爾)이고 호는 천서(泉西)이다.

당대의 학자인 수암(遂菴) 권상하(權尙夏)의 문인으로 ‘강문 팔학사’로서 학문으로 이름이 있었다. 사마시와 문과에 급제한 뒤 정언과 지평 등 언관직을 지냈다. 사돈 집안이자 평생의 벗이며 수암 문하의 동문인 외암 이간(李柬)과 함께 낙론(洛論)을 주장했다. 일찍이 이간과 함께 송악면 강당골에 관선재(觀善齋)를 짓고 강학하였으니 지금까지 강당골 관선재의 문천사(文泉祠)에 함께 모셔지고 있다. 윤근의 후손은 송악 역촌리에 많이 있고 주로 천안과 서울 등 외지에서 살고 있다.

[78] 파평윤씨 윤동명 | 尹東明 <1601년(선조34년)~1678년(숙종4년)>

조선 후기의 인물이며 파평윤씨(波平尹氏) 27세로 상호군파(上護軍派) 음봉면 동암리 입향조이다. 아버지는 윤정설(尹廷說)이고 어머니는 한산이씨(韓山李氏)이다.

윤동명의 자는 직보(直甫)이며 통덕랑(通德郎)에 올랐다. 부인은 진주유씨(晉州柳氏)로 동지중추부사 유도(柳觀)의 딸이다.

윤동명이 들어올 때 그의 조카인 윤광이(尹光履, 1621~1661)도 함께 들어왔다. 윤광이의 자(字)는 여신(汝臣)이며 부인은 진주유씨(晉州柳氏)로 생원(生員) 유정상(柳定相)의 딸이다.

이들은 천안 목천에서 여러 대를 살던 집안으로 숙부와 조카가 함께 아산 음봉 동암리로 이사하였으며 지금까지 후손들이 이어져오고 있다.

묘는 음봉면 동암리 가족묘지에 있다. 후손은 음봉면 쌍암리와 산동리에 많이 산다. 제사는 음력 10월 13일이다.

[79] 해평윤씨 윤득실 | 尹得實 <1768년(영조44년)~1823년(순조23년)>

해평(海平) 윤(尹)씨 아산 입향조이다. 영의정 윤두수(尹斗壽, 1533~1601)의 6세손이고 지중추부사 혼(昕, 1564~1638)의 5세손이다.

자는 성보(誠甫)이고 부인은 남양홍씨로 홍득권(洪得權)의 딸이다. 혼인을 계기로 처가 근처인 아산 둔포 신항리로 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손자 윤웅렬(尹雄烈)의 출세에 따라 이조참의에 이어



종2품 가선대부 의정부 참찬, 그 후 내부협판(內部協辦)으로 추증되었다. 셋째아들 윤취동(尹取東)의 후손으로 손자 웅렬(雄烈)·영렬(英烈)과 증손(치호·치왕·치창·치오·치소·치영)과 현손(영선·일선·보선)의 대에 집안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다.

현손 윤보선(尹潽善, 1897~1990)이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둔포면 신항리 새말에 있는 윤보선의 생가는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196호, 윤일선 가옥 등이 충청남도 지정 민속자료로 관리되고 있다.

윤득실의 묘는 음봉면 동천리 해평 윤씨 종중 묘역에 있다.



-윤득실의 묘-



-윤보선 전대통령 생가-

[80] 파평윤씨 윤세화 | 尹世華 <?~?>

조선 중후기의 인물로 파평윤씨(坡平尹氏) 23세(世)이며 판도공파(版圖公派) 중 부윤공파(府尹公派)의 아산시 지역, 탕정면 호산리 입향조이다. 현재 호산4리 성뒤 마을에 거주하는 후손 35세(世) 윤길원(尹吉源, 62세)씨의 12대조가 된다.

1531년(중종 26년)에 사마시에 급제하고 이성현감을 지낸 윤정립(尹廷霖, 1486~1550)의 현손이고 경산현령 윤희염(尹希廉)의 증손이며 통덕랑 윤선정(尹先定)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통덕랑 윤종립(尹宗立, ?~?)이며 어머니는 부안임씨(扶安林氏)이다. 윤세화는 6남 중 다섯째 아들이다. 조부 때까지는 경기도 파주 장단, 양주 등에 거주했으며 아버지의 묘소가 천안 구룡동에 있는 것으로 보아 아버

지 대에 탕정의 인근 지역인 천안 풍세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집안에서는 정확히 윤세화가 이곳으로 처음 들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생몰년이 명확히 기록된 것은 고조부 윤정림이기에 막연하나마 1640년 경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여 약 370년 전이라 본다. 혼인을 계기로 분가하면서 이 마을에 와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이지만 명확하지 않다.

부인은 청주한씨(淸州韓氏)로 아들 둘을 두었으나 둘째는 일찍 죽고 큰 아들 윤이평(尹以平) 뒤에도 2대가 독자였다가 현손(玄孫) 형제 이후부터 조금씩 후손이 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체적으로 손이 많은 편이 아니다. 윤세화와 그 후손들의 묘는 상당수가 마을 앞(북서쪽)에 있는 안산에 모셔졌으나 농공단지 조성되고 동서산업을 들어서면서 마을 바로 뒤 성재 자락에 묘역을 마련하여 모두 이장하였다.



-파평윤씨 족보-

[81] 파평윤씨 윤수회 | 尹壽會 <? ~? >

조선 중기의 인물로 파평윤씨(波平尹氏) 20세이며 충간공파(忠簡公波) 음봉면 소동리 입향조이다.

아버지는 참봉 윤선(尹璿)이며 어머니는 순흥안씨로 부사(府使) 안처명(安處明)의 딸이다. 부인은 순흥(順興)안씨(安氏) 수(壽)의 딸이다.



윤수회는 임진왜란 때 의병 활동을 하다가 순절하였다. 그의 아들 윤인우(尹仁佑)는 신창현감(新昌縣監)을 지냈다. 그와 아들 윤인우(尹仁佑)의 묘가 신창 발리(鉢里)에 있었으나 실전되었다. 후손은 음봉면 소동리와 월랑리, 인주면 냉정리, 탕정면 명암리, 배방읍 공수리 등지에 산다.

[82] 파평윤씨 윤양선 | 尹楊善 <?~?>

조선 중후기의 문신으로 파평윤씨(坡平尹氏) 23세이며 태위공파 교리공(校理公) 종중의 아산시 지역, 탕정면 용두2리 무재 마을 입향조이다. 현재 용두2리에 거주하는 후손 34세(世) 윤태균(尹泰均, 54세)의 11대조이다.

그의 고조부는 인종 때 영의정을 지낸 뒤 추성위사홍제보익공신(推誠衛社弘濟保翼功臣) 1등에 책록되고 파성부원군(坡城府院君)에 봉해진 효성공(孝成公) 윤인경(尹仁鏡, 1476(성종 7)~1548(명종 3))이다. 증조부는 절제사를 지낸 윤현(尹現)이고 조부는 경상우수사를 역임한 윤사흠(尹思欽)이다. 아버지 사어공 윤영(尹泳, 1562~1649)은 사마시와 문과에 급제하고 세자익위사 사어(司禦)를 지냈으며 임진왜란 이후 선무원종공신에 책훈되고 이조참판에 증직되었다. 어머니는 장흥임씨(長興任氏)이다.

윤양선은 4형제 중 둘째아들이다. 자는 이성(而聖)이고 통사랑(通仕郎)에 올랐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통사공(通仕公)”으로 칭한다. 부인은 고령박씨(高靈朴氏)로 교위 박응구(朴應祿)의 딸이다.

그가 이곳 용두2리 무재 마을로 들어온 시기와 이유는 불확실하다. 외가나 처가 쪽의 인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 때 피난하여 들어 온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지만 그 때는 소년 시절이어서 가능성이 낮다. 조부 이상의 선대가 주로 경기도 양주, 연천 지역에 근거가 있었지만 장남인 아버지 윤영은 묘소가 충남 논산 벌곡에 있는 점, 그리고 윤영이 후손들에게 “내 자손들은 벼슬에 나가지 말아라.”하고 유지를 남겼다는 집안의 전설 등에 비추어 광해군의 집권이나 인조반정(1623년) 등의 정치적 사건과 관련되어 낙향하였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시기도 대략 400년 전으로 본다.

윤양선은 수(壽, 1614~?), 각(穀, 1622~1696), 전(瑑, ?~?), 규(珪, ?~?) 등 네 아들을 두었다. 수는 묘가 송악면에 있던 것을 옆치읍 대동리(황골)로 옮겼고 둘째아들 각은 충북 진천으로 이주하였으며 묘는 논산 벌곡 부친 묘 아래에 있다. 셋째 전은 이곳 무재에 계속 살았고 묘도 현 위치에 모셔졌으며 넷째 규 역시 아산 지역에 살았고 묘는 옆치읍 대동리(황골)에 있다. 이후 입향조 윤양선의 후손

들이 탕정면 용두2리 무재 마을의 중심으로 염치, 송악, 온양, 진천 등 각지로 퍼져 나가 오늘날까지 번성하였다.



-윤양선의 묘와 재실 모현재-

[83] 파평윤씨 윤인 | 尹隣 <1456년(세조2년)~1549년(명종4년)>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파평윤씨(坡平尹氏) 20세이며 태위공파 중 교리공파 아산시 염치읍 대동리(황골) 입향조이다. 대동리에 살고 있는 36세(世) 윤재영(尹在永, 64세)의 16대조이다.

그는 태종 14년(1414) 문과 급제 후 교리(校理)를 지낸 윤돈(尹惇)의 현손이며 윤돈의 후손은 교리공파로 칭한다. 통정대부로 삼척부사를 역임한 윤계흥(尹繼興)의 증손이고 진사시와 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통례원우통례(通禮院右通禮)에 올랐고 이조참의에 특증(特贈)된 윤석(尹楨, 1435~1503)의 손자이다. 윤석은 세상을 뜬 이듬해인 1504년(연산군10)의 갑자사화로 부관참시를 당하는 참화를 입었다. 이는 이후 후손들 중에 벼슬에 거리를 두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버지는 생원 윤인저(尹仁著)이고 어머니는 청주한씨(淸州韓氏)로 현령 한숙윤(韓叔倫)의 딸이다.

윤인은 1남2녀 외아들로 자는 인지(隣之)이다. 중종 때 무과에 급제하고 여러 곳의 목사 등을 거쳐 가선대부(중2품) 좌부승지까지 올랐다. 무과 출신이지만 문과를 준비하며 학문에 정진했기 때문에 경전에 해박하고 시서(詩書)에 뛰어나 이름이 있었다. 그가 언제 왜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없다. 집안



에 전하기는 조부 윤석이 천양지화(泉壤之禍)를 입자 그가 아버지를 모시고 양성(안성)에 피신했다가 진위(평택)을 거쳐 이곳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왜 염치 대동리였는지는 모른다. 처가인 진주강씨(晉州姜氏)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갑자사화를 기준으로 한다면 500년 전이 된다.

진주강씨 도사(都事) 강운(姜胤)의 딸과 칠원윤씨 서령(署令) 윤문형(尹文亨)의 딸 등 두 부인 사이에 의송(宜疎), 의빙(宜聘), 의겸(宜謙), 의방(宜邦), 의신(宜臣), 의찬(宜贊), 사송(思疎), 이송(而疎) 등 8남2녀의 많은 자녀를 두었고 이후 후손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첫째 윤의송은 봉정대부로 인동현감을 지냈고 둘째 윤의빙은 보령현감을 역임했으며 용인 지역에 자리 잡았다. 셋째인 참봉 윤의겸은 아산에 다섯째 윤의신은 침지중추부사에 올랐으며 평택 지역에 터를 닦았다. 넷째와 여섯째는 무후였다.

윤인과 그의 아버지 윤인저의 묘는 고향인 경기도 안성에 있었으나 지난 1988년에 염치읍 대동리 향골의 석천동(石泉洞)으로 옮겨 모셨다. 후손들은 대동리와 탕정 용두2리를 중심으로 인근 영인과 음봉, 평택, 용인, 수원 지역에 거주한다.

참고로 인근의 탕정면 용두리 무재 마을에도 약 100년 뒤에 같은 파평윤씨 교리공파가 이주해왔으며 윤인의 증조인 윤계홍의 아들 석(楮)과 구(响) 대에서 갈라진 친척이다.



-윤인의 묘-

[84] 신녕윤씨 윤자임 | 尹自任 <1407년(태종7년)~1478년(성종9년)>

조선 전기의 문신이며 신녕윤씨(新寧尹氏)의 시조이자 아산시 지역, 영인면 성내리 입향조이다. 신녕윤씨는 파평윤씨(坡平尹氏)에서 분관(分貫)하였으며 그는 파평윤씨로는 16세(世)에 해당한다.

아버지는 윤신비(尹莘卑)이며 그 이외의 선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족보에는 윤포(尹浦)가 고조, 윤천을(尹天乙)이 증조, 윤성기(尹成起)가 조부로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 형 윤자상(尹自商, 일명 중임仲任, 1394~?)이 있다.

자는 충부(忠父)이다. 1432년(세종 14)에 박팽년 등과 함께 사마시 생원과에 합격하였고 1450년(문종 즉위년) 식년문과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 사간원정언(正言)·사헌부장령(掌令-종4품)을 거쳐 승문원 부교리 겸 지제교에 임명되었다. 정산현감·영주군수·경기도사를 역임한 뒤 사헌부 집의(執義-정3품)에 이르렀다. 정산현감 때 선정을 베풀어서 주민들이 동비(銅碑)를 세웠다. 연로하여 벼슬에서 물러나 영인면 고용산(高湧山) 아래, 영인면 성내리 쇠재에 와서 살았다. 약 530년 전이며 얼마 뒤 72세에 졸했다. 묘는 송악면 평촌리에 있으며 그의 현손 윤지복(之復)이 묘지(墓誌)를 지었다.

부인은 평강채씨(平康蔡氏)이며 좌필선 채윤(蔡倫)의 딸이다. 반(幡), 염(恬), 오(悟), 침(忱), 성(惺) 등 5남을 두었다. 이 중 윤염은 승의부위에 오르고 온양정씨(溫陽鄭氏) 절충장군 정종로(鄭從魯)의 딸과 혼인하였으며 윤침(1454~1504)은 충무위 부사직에 올랐고 부인은 담양전씨(潭陽田氏)로 고려 현감 전실(田實)의 딸이다. 윤성은 현신교위(중5품)에 올랐다고 기록되어 있다. 윤침의 손자(윤세균의 아들) 윤필은(尹弼殷, 1516~1586)은 삼척부사를 지낸 뒤 아들 윤지복 덕에 병조참의에 증직되었고, 윤지복(尹之復, 1569~1638)은 사마시와 문과에 급제하고 형조 정랑에 올랐으며 '아산8문장'으로 이름을 남겼다. 윤침의 또 다른 손자(윤세형의 아들) 윤취은(尹就殷, 1518~1593)은 효행으로 여러 차례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사양하였으며 아산현감을 지낸 토정 이지함(李之菡)도 그의 효성을 칭송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후손들이 많지 않은 편이며 영인면 아산리 등지에 거주하고 있다.



-윤자임의 묘-



[85] 칠원윤씨 윤재탁 | 尹載鐸 <1765년(영조41년)~1835년(헌종1년)>

조선 후기의 무신으로 칠원윤씨(漆原尹氏) 33세(世)이며 동생 윤재건(尹載鍵)과 함께 아산시 지역, 탕정면 매곡리 매골 마을 입향조이다. 윤재탁 형제가 청양 쪽에서 들어왔는데 함께 들어 온 것인지, 따로 왔다면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시기는 대략 220년 전의 일로 추정된다. 현재 매곡2리에 거주하는 39세(世) 윤종철(尹鍾喆, 76세)씨의 6대조이다.

윤재탁은 무과에 급제한 뒤 경기도 수군절도사 등을 지냈으나 서인이 남인에 의해 축출된 1689년의 기사환국으로 유배되어 세상을 뜬 윤시달(尹時達)의 현손이다.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를 지낸 윤일상(尹一商)의 증손이며 신축환국(1721년) 등을 겪은 뒤 고향인 청양 장평으로 낙향한 윤성구(尹聖龜)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효행으로 이름 있는 윤선국(尹善國, 1728~1798)이고 어머니는 안동김씨로 영장 김좌국(金左國)의 딸이다.

윤재탁은 3형제 중 차남이며 초명은 재혁(載赫)이고 자는 관보(寬甫)이다. 정조 때 무과에 급제한 뒤 초산과 길주의 수령을 지내며 선정을 베풀어 선정비가 세워졌으며 전라우도 수군절도사(정3품)에 까지 올랐다. 묘가 매곡1리 매골 마을 뒷산 자락에 있다. 부인은 의성김씨(義城金氏)와 계배 전주이씨(全州李氏)인데 전주이씨 소생으로 아들 다섯이 있었다. 큰 아들 윤치의(尹致誼, 1797~1863)는 순조 때 무과에 급제하고 가선대부로 충청도 병마절도사(종2품)에까지 올랐고 부인은 덕수이씨(德水李氏)로 이노서(李魯瑞)의 딸이다. 윤치의의 묘도 마을 뒷산, 아버지 묘의 동쪽에 있다. 둘째아들 윤정의(尹定誼)는 숙부 윤재건(尹載鍵)의 계자로 들어갔으니 결국 매곡1리 칠원윤씨는 윤재탁의 후손이 되는 셈이다.



-윤재탁의 묘와 윤재건의 묘표석-

한편 윤재건(尹載鍵, 1769~1833)은 삼남으로 윤재탁의 동생이다. 처음 이름은 재후(載厚), 과휘(科諱)는 재규(載奎), 자는 계통(季通)이고 호는 매은(梅隱)이다. 순조 때(1805년) 무과에 급제한 뒤 여러 관직을 거치고 가선대부로 경상좌도병마절도사(종2품)에 올랐다. 부인은 양주조씨(楊州趙氏)로 부사 조득경(趙得慶)의 딸이다. 아들이 없어서 형 재탁의 차남을 계자로 들였으니 그 아들 윤정의(1801~1848)는 통덕랑에 올랐고 아버지와 아들 모두 묘가 역시 매골 뒷산에 있다.

이후 칠원 윤씨는 한 동안 매골에 거주하였으나 지금은 후손들이 살지 않으며 인근 마을인 매곡2리 신평터에 39세(世)인 윤종철(尹鍾喆, 76세)씨 한 가구가 살고 있다.

[86] 해평윤씨 윤최동 | 尹最東 <1716년(숙종42년)~1748년(영조24년)>

조선 후기의 인물로 해평윤씨(海平尹氏) 19세이며 아산공파(牙山公派) 영인면 월선리 입향조이다.

그는 아산현감을 지낸 윤춘수(尹春壽)의 7세손이다. 아버지는 윤득성(尹得成)이며 어머니는 경주정씨(慶州鄭氏)로 정유안(鄭唯安)의 딸이다.

윤최동의 자(字)는 낙부(樂夫)이며 부인은 낙안오씨(樂安吳氏)로 오명삼(吳命三)의 딸이다. 묘는 영인면 월선리(달보기)에 있다. 후손은 월선리, 배방, 당진, 천안 등지에 살고 있다.

[87] 파평윤씨 윤흘 | 尹屹 <1583년(선조16년)~1667년(현종8년)>

조선 중기의 인물이며 파평윤씨(坡平尹氏) 23세로 판도공파 중 정정공파 아산시 송악면 역촌2리 오미니 마을 입향조이다. 현재 역촌리에 살고 있는 36세(世) 윤광덕(尹光德, 50세)의 13대조이다.

그의 고조는 내자시판관을 지낸 윤옥(尹頊)이고 증조는 영돈령부사 파산부원군 윤지임(尹之任)이다. 윤지임은 아들 다섯을 두었으며 딸이 중종의 둘째 계비인 문정왕후(文定王后)이다. 그 중 넷째 아들 윤원로(尹元老)와 다섯째 윤원형(尹元衡)은 외척으로서 권력을 휘둘렀으며 특히 윤원형이 소윤(小尹)의 영수가 되어 대윤(大尹)의 윤임(尹任) 일파를 몰아낸 을사사화(1545년)를 주도하였다. 윤흘의 증조는 윤지임의 둘째아들인 대호군 윤원필(尹元弼)이고 조부는 풍저창수(豐儲倉守)를 지낸 윤륜(尹



繪, 1516~1558)이다. 아버지는 생원 윤경기(尹慶祺)이고 어머니는 전주최씨로 최복필(崔福弼)의 딸이다.

집안에서는 조부 윤륜의 네 아들이 사화로 위태로워지자 금10냥씩을 갖고 밤에 몰래 각지로 낙향을 했다고 전해진다. 사화에 의한 것은 아니고 아마도 권력을 휘두르던 영의정 윤원형이 1565년(명종 20)에 누나 문정왕후가 죽자 실각하여 관직을 삭탈당하고 황해도 강음으로 쫓겨 갔다가 그곳에서 죽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친척들도 보복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낙향했을 것으로 본다. 윤경기는 이때 예산군 신양면으로 들어갔다.

윤흠은 현(峴), 흘(屹), 수(脩), 설(偃) 등 네 아들 중 둘째로 태어났다. 참고로, 이 집안의 족보에 윤경기의 큰아들 윤현(尹峴)이 호가 양심당(養心堂)이고 온양 정퇴서원에 배향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집안에서는 장남으로서 예산에 살았다고 알고 있으며 가계가 달리 기록된 족보도 있어서 정퇴서원에 배향된 ‘양심당 윤현(尹峴)’ 과 동일 인물인지 확인할 수 없다.

윤흠의 자는 자무(子武)이며 충의위에 적을 두었다. 부인은 양성이씨(陽城李氏)이며 현감 이정영(李廷英)의 딸이다. 그가 언제 왜 송악으로 왔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약400년 전의 일로 본다. 묘는 아버지의 묘가 있는 예산 신양에 있다.

여지도서 온양군지의 기록에 따르면 그의 외아들 윤대형(尹大亨, 1610~1676)이 1665년 현종의 온양행궁 행차 때 효행으로 천거되어 사직참봉에 제수되었다고 한다.

윤대형도 아들 정(鎰) 하나만을 두었으나 윤정이 4남1녀를 둔 이후부터 후손이 널리 퍼지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후손들은 송악면 역촌리, 법곡동, 온천동, 천안시 입장면 등에 살고 있다.

[88] 전주이씨 이경후 | 李敬拊 <1759년(영조35년)~1830년(순조30년)>

조선 후기의 인물로 조선 태종 이방원(李芳遠)의 8남인 근녕군(謹寧君) 이농의 12세손이다. 전주이씨(全州李氏) 근녕군파 음봉면 월랑리 입향조이다.

아버지는 부사과(副司果)를 지낸 이언정(李彦挺)이며, 어머니는 김해(金海) 김씨(金氏)로 김행원(金行元)의 딸이다. 부인은 강화(江華) 최씨(崔氏)이며 최중빈(崔重彬)의 딸이다. 연기군 전동에서 음봉으로 이주하였다. 묘는 음봉면 산동리에 있으며 음력 10월 17일에 제사를 지낸다.



- 전주이씨 근녕군파 재실 -

[89] 전의이씨 이기 | 李椅〈?~?〉

조선 전기의 인물로 전의이씨(全義李氏) 15세이며 대사성공파 중 철원공파 아산시 배방읍 복수리 입향조이다. 현재 복수리에 살고 있는 후손 32세(世) 이상일(李相一, 73세)씨의 17대조이다.

이기의 고조는 고려 말 영경운전사(領景雲殿事)를 지낸 전의부원군(全義府院君) 이사안(李思安)이다. 증조는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한 뒤 지평을 지냈으며 통정대부 철원도호부사로 증직된 철원공파 파조 이작(李作, 1356~1426)이고 조부는 통훈대부 진산군수 이영간(李英幹)이다. 아버지는 사헌부 감찰을 지낸 이정기(李正己)이고 어머니는 달성서씨(達城徐氏)로 부사 서미성(徐彌性)의 딸이며 문충공(文忠公) 서거정(徐居正, 1420~1488)과 남매이다.

이기는 유(旣), 저(樗), 기(椅) 등 3남3녀 중 셋째아들이다. 자는 지기(之奇)이고 수직(壽職)으로 첨지(僉知)가 되었다. 부인은 진주강씨(晉州姜氏)로 강규(姜規)의 딸이다.

그가 언제 왜 복수리로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다. 선대에는 주로 개성 지역에 살았지만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대에 충북 오창에 거주하였으며 부인이 진주강씨인 점으로 보아 혼인을 계기로 들어왔으리라 추정하는 정도이나 확인되지 않는다. 약 540년 전으로 본다. 탕정면 매곡2리 신평터에 따로 들어온 이유(李宥)와는 동고조 팔촌간이다.

이기는 익배(益培)와 익무(益茂) 등 2남1녀를 두었다. 둘째아들 이익무의 후손은 다른 곳으로 이주



했는지 세부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 북수리 지역은 장남 이익배의 외아들 온(溫)과 이온의 두 아들 응희(應禧)와 응지(應祉) 이후 후손이 점차 퍼지면서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이기의 묘는 마을 뒷산에 있으며 지난 1997년에 후손들의 묘를 정리하고 단을 세웠다. 현재 후손들은 배방읍 북수리와 공수리, 갈매리를 중심으로 천안 삼태리, 서울, 대전, 청주 등 각지에서 살고 있다.



-이기의 묘와 묘역 표지석-

[90] 우봉이씨 이난손 | 李蘭孫〈? ~ ?〉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우봉이씨(牛峰李氏) 12세이며 참판공파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지역 입향조이다. 세조 때의 원종공신이자 부사를 지낸 이근계(李根繼)의 손자이고 성종 때의 좌리원종공신으로 병사를 지낸 이경(李經)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선산김씨(善山金氏)와 의령남씨(宜寧南氏) 두 분이다.

이난손의 자는 형향(馨香)이며 1495년(연산군1) 진사시에 합격했다. 기묘사화(1519년) 때 화를 입은 사람들의 신원을 위해 상소를 올리고자 했으나 가로막혔고 오히려 그로 인해 남해로 유배되었다. 그 뒤 온양의 매곡리로 들어와 살았다. 뒤에 제릉참봉(齊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우거(寓居)했다. 기묘사화를 기준으로 하면 대략 490년 전의 일이다. 왜 매곡리로 왔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부인은 강릉김씨로 진사 김우(金羽)의 딸이다. 아들 넷을 두었으며 셋째 아들 변(忭)은 무과를 거쳐 첨사(僉使)에 올랐다. 묘는 탕정면 갈산리 삼봉산 아래 절골에 있었으나 선문대학교가 들어서면서 선장면 신동리로 이장했다. 후손들은 탕정면 매곡리를 중심으로 각지에 퍼져 살고 있다.

[91] 전주이씨 이대관 | 李大觀 〈?~?〉

전주이씨(全州李氏) 덕천군파(德泉君派) 인주면 대음리 입향조이다. 부인은 양천(陽川) 허씨(許氏) 석(錫)의 딸이다. 아버지는 이희인(李禧仁)이며 어머니는 사천육씨(泗川陸氏) 군수 육천기(陸天棋)의 딸과 경주이씨(慶州李氏) 이훤(李楦)의 딸 등 두 분이다. 생모는 확인되지 않는다.

인주면 대음리로 오게 된 사연은 잘 모른다. 묘는 안성 북촌에 있으며 후손들의 묘는 인주면 문방리 백장동(百長洞)에 있다. 제사는 음력 10월 15일이다.

[92] 전주이씨 이만장 | 李萬長 〈1617년(광해군9년)~1720년(숙종46년)〉

조선 후기의 인물로 전주이씨(全州李氏) 선성군파(宣城君派) 7세(世)이며 선성군파 아산시 지역, 동산2리 밭덕지 마을의 입향조이다. 현재 동산2리에 살고 있는 후손 17세(世) 이응표(李應豹, 72세)씨의 10대조이다.



-이만장과 후손들의 납골묘-



선성군 이무생(李茂生)은 조선 제2대왕 정종의 아들 17명(15군) 중 넷째 아들이다. 이무생이 파조(派祖)로서 선성군파의 1세(世)가 되며 2세 도성수(陶城守) 이천정(李千丁), 3세 복흥령(復興令) 이미수(李眉壽), 4세 의령감(義寧監) 이운조(李胤祖)로 이어져 5세 의령도정(義寧都正) 이춘영(李春英, 1563~1606)에 이르게 된다. 의령도정이 그의 조부이다.

아버지는 병자호란(1636~1637) 당시 남한산성으로 왕(인조)을 호종하고 후에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을 모시고 청의 심양에 가서 8년 동안 고생을 하고 돌아왔으며 후에 영국원종공신(寧國原從功臣)에 책훈된 일초정(一草亭) 이시재(李時材, 1588~1661)이다. 어머니는 덕수이씨로 충무공 이순신의 중형(仲兄)인 이요신(李堯臣, 1542~?)의 딸이다. 아버지의 묘는 경기도 양주에 있지만 어머니 덕수이씨의 묘는 마을의 서남쪽, 국사봉 동남쪽 기슭에 있다.

이만장은 11남 1녀 중 여섯째아들이다. 자는 여전(汝全) 호는 정립헌(正立軒)이다. 진사로서 의금부 도사를 거쳐 통정대부 행 덕원부사를 역임했다. 족보의 기록대로라면 그는 무려 104세까지 살았으나 부인 강릉김씨 현감 김재탁(金在鐸)의 딸(1616~1678)과의 사이에 2남만을 두었다. 그가 언제, 이곳으로 왔는지는 알 수 없다. 어머니 덕수이씨의 사패지였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고 전해진다. 병자호란(1636)을 전후한 때인 대략 350년 전의 일로 추정한다. 참고로 그의 셋째 형님인 이정장(李井長)은 아산시 송악면 강장리로 들어가 터를 잡았다.

이만장의 두 아들 중 장남 익보(益寶)는 조졸한 듯하고 차남 익서(益瑞, 1678~1729)가 제창(濟昌), 택창(澤昌), 정봉(廷鳳) 등 세 아들을 둔 이후 그의 후손들이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오늘까지 이어져 왔다. 그의 묘는 마을 뒷산, 국사봉 동남쪽 자락에 부인의 묘와 쌍분으로 조성되었는데 그 근처가 처음 와서 자리 잡은 곳이라 전해진다. 지난 2005년에 납골묘를 조성해서 새로 모셨다.

[93] 양성이씨 이복 | 李復 <1659년(현종즉위년)~1709(숙종35년)>

조선 후기의 인물로 양성이씨(陽城李氏) 17세이며 상서공파(尙書公派) 음봉면 월랑리 입향조이다. 아버지는 이복양(李復陽)이고 어머니는 원주(原州)이씨(李氏)로 이유중(李有中)의 딸이다. 부인은 전주이씨(全州李氏)이며 이상질(李尙質)의 딸이다.

이복(李復)은 원래 안성에서 부유하게 잘 살았으나 가세가 기울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 그를 돌보아줄 사람이 없었는데 유모가 돌도 안 된 그를 포대기를 싸안고 음봉면 월랑리로 와서 어느 암자

(庵子)에 살며 키웠다고 한다. 그 후 그는 잘 성장하고 혼인을 하여 여러 대에 걸쳐 자손이 많이 번창하였다. 음봉면 월랑리에는 후손이 거의 떠나고 인주면 문방리, 밀두리, 배방읍 북수리, 안성 등지에 많이 살고 있다. 그의 묘는 음봉면 월랑리에 있으며 음력 10월 16일에 제사를 지낸다.

[94] 전주이씨 이사눌 | 李思訥 <1457년(세조3년)~1519년(중종14년)>

조선 전기의 종친으로 전주이씨(全州李氏) 회안대군(懷安大君-이방간)과 4세(世)이며 아산시 지역, 온양 용화동 입향조이다. 현재 용화동에 살고 있는 19세(世) 이한구(李漢求, 82세)씨의 15대조이다. 시기는 약 530년 전으로 추정한다.

이사눌의 고조부는 조선 태조 이성계(李成桂)이다. 증조부는 회안대군 이방간(李芳幹, ?~1421)이며 잘 알려져 있듯이 태조 이성계의 넷째 아들이다. 제1차 왕자의 난 때는 다섯째 아들인 동생 이방원과 힘을 합쳤으나 1400년(정종2년)에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가 패하여 유배되었다. 이후 그의 후손들은 한동안 주로 전주 지역에 거주하였으며《선원록(璿源錄)》에 등재되지 못했으나 선조(宣祖)의 전교를 거쳐 숙종의 전교로 1680년(숙종6년) 《선원록》에 오르게 되었다. 조부는 회안대군의 둘째아들 금성군(金城君) 이선(李善, 1409~1475)이다. 아버지는 금성군의 외아들 장산정(長山正) 이형(李衡, 1427~1494)이다. 어머니는 문화유씨(文化柳氏)로 분순부위 유자방(柳自芳)의 딸이다.

그는 이형의 세 아들 완원부정(完源副正) 이사문(李思文), 완계부정(完溪副正) 이사안(李思安), 완천부정(完川副正) 이사눌(李思訥) 중 셋째아들이다. 호는 죽헌(竹軒)이며 자신대부(資信大夫-종3품 종친)에 올랐다. 부인은 온양정씨(溫陽鄭氏)로 통덕랑 정교(鄭僑)의 딸이다. 온양정씨와의 혼인으로 인하여 그가 온양 용화동으로 와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사눌은 외아들 이철(李哲, 1478~1539)을 두었다. 적순부위 증가선대부 이철은 이설(李雪)과 이운(李雲, 일명 영신(映信), 1528~1590) 등 아들 둘을 두었다. 이설은 후손이 없고 이운에게서 외아들 7세 이한(李漢), 8세 이효정(李孝挺)까지 외아들로 이어졌다. 이효정이 이간(李侃)과 이은(李閔) 등 아들 둘을 둔 이후 점차 후손이 퍼지기 시작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손이 귀한 편이었다.

이사눌과 그의 아들 이철의 묘는 선대의 묘가 있던 전주에 모셔졌으나 지난 1999년에 신인동 입구, 흥거리 동남쪽 산줄기 종산에 옮겨 모셨다. 그 아래에는 원래부터 있던 이효정의 묘와 송악 유곡리, 탕정 명암4리, 온양 실옥리 등에 있던 묘소들을 옮겨 이간과 이은까지 모두 6대 7기의 묘소가 있다.



이사눌의 후손들은 온양을 중심으로 서울, 청양, 대구 등 각지에 퍼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사눌의 묘와 묘역-

[95] 경주이씨 이사일 | 李思逸 < ? ~ ? >

경주이씨(慶州李氏) 26세이며 상서공파(尙書公派) 음봉면 쌍용리 지역 입향조이다.

아버지는 주부(主簿)와 호조좌랑(戶曹佐郎)을 지낸 이희복(李希福)이고 어머니는 의인(宜人) 함양박씨(咸陽朴氏)이며 참판 박민헌(朴民獻)의 딸이다.

부인은 창원황씨(昌原黃氏)이다. 묘는 음봉 쌍용에 있다. 후손은 음봉면 쌍용리와 쌍암리에 산다. 음력 10월 15일에 제사를 지낸다.

[96] 예안이씨 이사종 | 李嗣宗 < ? ~ 1589년(선조22년)>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예안이씨(禮安李氏) 17세(世)로 온양파(수온파-수원·온양파) 아산시 지역, 송악면 외암리 입향조이다. 현재 외암리에 거주하는 종손 이준세(李準世)씨의 15대조이다. 경기도 수원 화성에서 1546년에 송악면 외암리로 들어왔다. 460여 년 전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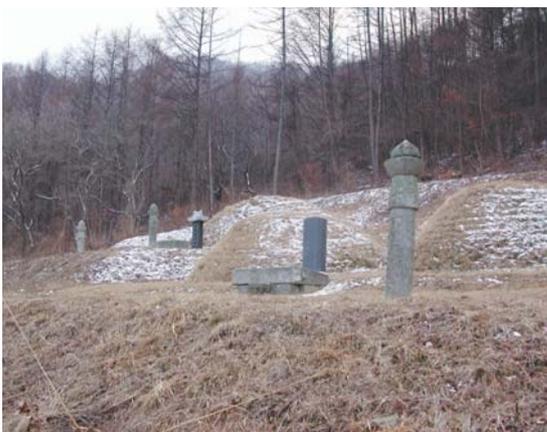
그의 고조는 문과 급제 후 통정대부로 군기감정을 지내고 이조판서에 증직된 이온(李輶, 1382~?) 이고 증조는 통훈대부로 상호군에 오른 이시(李恃, ?~1490)이며 조부는 사직을 지내고 정국원종공신에 녹훈된 이성간(李成幹)이다. 아버지는 선릉참봉을 지낸 장사랑 이연(李堧)이고 어머니는 안동 권씨이다.

그는 장(場) 연(堧) 곤(坤) 경(境) 등 4남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큰아들 이장의 후손은 수원에 정착하였고 셋째와 넷째아들은 무후하였다.

이사종의 자는 언운(彦胤)이다. 승훈랑으로 수성금화사 별제(修城禁火司別提)를 지냈기 때문에 집안에서 ‘별제공’으로 칭한다. 부인은 평택진씨(平澤陳氏)로 참봉 진한평(陳漢平)의 딸이다. 그는 혼인을 계기로 외암리로 들어왔다. 일부에서는 부친 이연의 묘소가 송악면 유곡1리 사기소 마을에 있어서 이연이 들어온 것으로 보지만 이연이 들어와서 거주한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묘는 송악면 유곡리 봉수산 종산에 있다.

그는 윤(崙, 1541~?), 급(莢), 단(端, 1554~1623) 등 세 아들을 두었다. 큰아들 이윤은 주부를 지내고 통정대부로 증직되었고 셋째 이단 역시 주부에 오르고 통훈대부 장악원정에 증직되었다. 그 중에서도 단의 후손이 주류를 형성하였다. 이단의 차남 진문(振門)의 증손으로, 이사종의 5세손이며 인물성동론을 주창한 조선 후기의 대학자 문정공(文正公) 외암(巍巖) 이간(李柬, 1677~1727)이 태어나 문증을 크게 빛냈다. 또한 외암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통 민속마을로서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 236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사종의 후손은 송악면 외암리를 중심으로 송악면 일대와 수원, 서울 등 각지에 살고 있다.



-이사종의 묘-



-외암민속마을-



[97] 전의이씨 이상량 | 李相亮 < ? ~ ? >

조선 후기의 인물이며 전의이씨(全義李氏) 24세로 태사공파 아산시 지역, 탕정면 갈산리 입향조이다. 현재 갈산리에 거주하고 있는 32세(世) 이홍상(李洪相, 63세)의 8대조이다.

이상량은 이면(李勉, ?~1693)의 증손이고 이수기(李壽祺, ?~1708) 손자이다. 아버지는 이항태(李恒泰, ?~1751)이며 어머니는 여흥민씨(驪興閔氏)이다.

이상량은 전의이씨 24세라는 것 외에는 알 수 있는 것이 없다. 언제 왜 이 마을로 왔는지 확인할 수 없다. 선대는 주로 경기도 광주에서 살았고 바로 위 3대는 예산 대흥에 거주했으며 이상량이 이 마을로 들어오게 되었다. 마을 동쪽에 그의 부모인 이항태 내외의 묘가 있으나 그의 묘는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상량은 진영(晉榮)과 관영(觀榮) 두 아들을 두었고 이후 후손이 퍼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98] 신평이씨 이상신 | 李商新 < ? ~ ? >

조선 후기의 인물이며 신평이씨(新平李氏) 18세(世)로 판서공파(判書公派)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입향조이다. 현재 공수리에 거주하고 있는 후손 27세(世) 이창영(李昌永, 73세)씨의 9대조이다.

아버지는 이천규(李天奎)이고 어머니는 문화유씨(文化柳氏)이다. 이상신의 자는 흥증(興仲)이고 부인은 창녕성씨(昌寧成氏)이며 성억창(成億昌)의 딸이다. 그의 선대는 당진군 순성면에 거주하였는데 그가 언제 어떤 연유로 공수리에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다. 외가 쪽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하지만 확인되지 않는다. 시기도 막연히 약 300년 전으로 본다.

이상신은 일형(日馨)과 필형(必馨) 두 아들을 두었다. 이일형의 후손은 증손까지는 배방 공수리에 살다가 현손부터는 당진 순성면으로 되돌아갔다. 둘째아들은 이필형의 후손은 지금까지 공수리를 중심으로 인근 마을에 거주하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상신과 두 아들의 묘는 배방읍 회룡리 선영에 있다.

[99] 전주이씨 이생인 | 李生寅 <1586년(선조19년)~1616년(광해군 8년)>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전주이씨(全州李氏) 경명군파 아산시 염치읍 강청리 입향조이다. 성종의 아들인 경명군(景明君) 이침(李枕, 1489~1552)의 후손이다. 창선대부(彰善大夫) 창원수(昌原守) 이세의(李世義)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창녕성씨(昌寧成氏)로 참의 성수익(成壽益)의 딸이다.

자는 진경(震卿)이며 부인은 상주김씨(尙州金氏)로 좌의정 김귀영(金貴榮)의 딸이다. 1606년(선조 39) 식년시에 진사가 되었고 1612년(광해군 4)에 왕이 성균관 유생에게 감귤을 내리고 제술시험을 봤을 때 수석을 차지해서 바로 회시(會試-복시)를 볼 수 있는 특전을 받기도 했다. 이듬해에 성균관 장의(掌議)로서 복인 이이첨과 같은 입장에서 영창대군과 인목왕후를 비판하는 상소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광해군을 지지하다가 1623년 인조반정 이후에 물러나 아산에 들어와 우거(寓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문중에서는 송파공으로 부른다.

그의 아들 이제형(李齊衡, 1605년~1663)은 문과 급제 후 사간원 헌납 등을 지냈으며 이제형의 손자 쌍호당 이단석(李端錫, 1625년~1688)은 생진과와 문과에 급제하고 경상·전라·충청·함경중도 관찰사와 형조참판에 올랐던 청백리이며 충민(忠愍)의 시호를 받았다.

이생인의 후손은 염치읍과 영인면, 서울 등 각지에 살고 있다.

[100] 아산이씨 이서 | 李舒 <고려 중기, ? ~ ?>

고려 중기의 문신으로 아산이씨(牙山李氏)의 문헌상의 1세조다. 아산 이씨는 경주(慶州) 이씨에서 갈라져 나온 성씨이다. 고려 전기에 형부상서(刑部尙書) 판어사대사(判御史臺事)를 지낸 이주좌(李周佐, ?~1040)를 상징적 시조(始祖)로 하고 고려 중기의 벽상공신 이서(李舒)를 중시조 및 문헌(족보)상의 1세조로 한다.

그는 고려 고종 때 밀성부사(密城副使)로 임명되었고 1251년(고려 고종 36)에 공을 세워 군기감(軍器監)이 되었으며 1268년(고려 원종 9)에 판위위사사(判衛尉寺事)에 올랐다. 1258년에 최씨무신정권의 마지막 집권자 최의(崔誼)를 주살하고 왕정을 복고한 무오정변(戊午政變)에서 공을 세워 삼중대광보국(三重大匡輔國) 벽상공신(壁上功臣)으로 아주백(牙州伯)에 봉해졌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아산



을 본관으로 했다. 그가 실제로 아산에 거주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이용(李翺)까지의 세계(世系)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의 후손 이용(李翺)을 실질적인 1세조로 한다. 묘는 음봉면 신수리 소탄동 마을의 안산, 즉 아주백산(아주박산) 중턱에 있다. 임진왜란 이후 그의 묘를 잃었다가 1858년(철종 9)에 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 묘갈을 다시 찾아서 봉분을 새로 조성한 뒤 비를 세웠다. 단기 4288년(서기 1955)에 후손 천규(天奎)가 찬한 신도비가 묘역 입구에 세워졌으며 1987년에 다시 묘역을 정비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 이서의 묘표 -

[101] 경주이씨 이석명 | 李錫命, 이익명 | 李益命 형제

조선 후기의 인물로 경주이씨(慶州李氏) 32세, 석탄공 14세이며 석탄공파 아산시 지역 입향조이다. 선대는 오랜 동안 경기도 과천 일대에 근거를 두었다. 이들 형제의 5대조 때부터 청양 대치, 정산 일대로 들어와 살았는데 집안에 전하는 이야기로는 난을 피하기 좋은 내포 심승지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병자호란 즈음에 청양으로 이주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석명<李錫命, 1762년(영조38년)~1822년(순조22년)>은 둔포면 신항리 자라목 마을 입향조이며

지금 둔포면 신항리에 거주하는 38세(世) 이관우(李寬雨)씨의 6대조이다.

이익명(李益命, 1765년(영조41년)~1838년(헌종4년))은 탕정면 용두3리 산골 마을 입향조이고 탕정면 용두3리에 거주하는 38세(석탄공 20世) 이완우(李完雨, 76세)씨의 6대조이다.

이들은 첨지중추부사 이득형(李得亨, 1614~?)의 현손이고 이성장(李成章)의 증손이며 이세원(李世元)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통정대부 첨지중추부사 이광국(李光國, 1733~1815)이며 어머니는 진주하씨(晉州河氏)와 영월엄씨(寧越嚴氏)이며 생모는 확인되지 않는다.

석명(錫命), 익명(益命) 등 2남3녀 중 형제이며 그들이 언제 탕정으로 들어왔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역시 집안에서 전해오는 바에 따르면 청양에서 도적들이 쪽지를 보내 뉘를 준비해놓으라는 등의 협박이 잦아서 살기 좋은 곳을 찾아 새로 옮겨온 곳이 둔포 신항리와 탕정 용두리였다고 한다.

큰아들 이석명은 일명 태명(台命)이며 자는 백삼(伯三)이다. 부인은 결성장씨(結城張氏)로 장봉령(張鳳齡)의 딸이며 아들 배천(培天) 등을 두었다.

둘째아들 이익명의 자는 중겸(仲謙)이며 부인은 수원백씨(水原白氏)로 증참의 백사눌(白師訥)의 딸이다. 배흥(培興), 배곤(培昆), 배수(培洙) 등 3남3녀를 두었다. 이들이 각각 2남1녀, 2남2녀, 1남3녀를 두면서 후손이 많이 늘었다.

이석명과 이익명의 후손은 '아산종중'을 이루었고 아산 지역 이외에도 당진, 충북 증평, 경기 과천 등지로도 퍼져 살고 있다. 이석명은 천안 차암동에, 이익명은 탕정 용두리에 묘소가 있었으나 1968년에 집안에서 예산 대술에 선산을 마련하여 과천과 청양 등지에 있던 선조들의 묘소와 함께 모두 옮겨 모셨다.

[102] 청주이씨 이성생 | 李誠生〈?~?〉

조선 중기의 인물이며 청주이씨(淸州李氏) 19세로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 입향조이다. 현재 염치읍 백암리에 거주하는 후손 31세(世) 이남옥(李南玉, 70세)씨의 12대조이다.

이성생은 승정대부 공조전서 이거의(李居義)의 7세손이며 세종17년(1435)에 문과에 급제하고 가선대부 예조참판에 오른 이하성(李夏成)의 5세손이다. 증조는 승의랑 이원복(李元福)이고 조부는 통훈대부 행 과천현감 이두(李岫)이다. 아버지는 통훈대부 행 사헌부감찰 이지천(李知天)이며 어머니는 진주김씨(晉州金氏)이다.



이성생은 통덕랑에 올랐으며 부인은 영해박씨(寧海朴氏)이다. 정랑을 지낸 아들 이동엽(李東曄), 선교랑에 오른 손자 이준형(李俊亨) 등으로 후손이 이어졌다.

집안에 전하는 바로는 임진왜란을 당하여 한양에서 가솔들을 이끌고 음봉면 월랑리로 피난을 온 뒤 그대로 정착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400여 년 동안 후손들이 거주하는 세거지가 되었으며 그의 후손들은 ‘아산과 종종’으로 칭한다.

그의 묘는 음봉면 월랑리에 있으며 후손들은 월랑리를 중심으로 염치읍 백암리, 둔포면 둔포리와 염작리, 아산시와 천안시 일원과 수도권 등에 600여 명이 살고 있다.



- 청주이씨 재실과 청의재 현판 -

[103] 합천이씨 이순경 | 李純慶〈? ~ ?〉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합천이씨(陝川李氏) 18세이며 목사공파 아산시 지역, 염치 강청리 입향조이다.

합천이씨 1세조인 강양군(江陽君) 이개(李開)의 17세손이며 고려 말에 안동도호부사를 지낸 이요(李瑤)의 현손이고 안동부사 이중경(李仲卿)의 증손이다. 판관과 낭천현감을 지낸 여심당(如心堂) 이택(李澤, 1425~1487)의 손자이며 생원 이팽노(李彭老)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평해(平海) 황(黃)씨 윤원(允元)의 딸이다.

할아버지 이택(李澤)의 장인이 풍산심씨(豊山沈氏) 심귀령의 셋째아들 풍산군 심치(沈寔)이고 처가가 있는 김포에 살았다. 그런데 이택의 처가와 관련된 어떤 사건(확인되지 않음)이 일어나자 피해를

우려해서 아들과 손자를 각지로 흩어져 피하게 했다고 한다. 아버지 팽노는 강원도로 갔고 외아들이었던 그는 김포에서 뗏목을 타고 아산만을 거쳐 곡교천을 거슬러 올라와서 강청리에 은거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로 인해 합천이씨는 강청리에 가장 먼저 뿌리를 내려서 지금까지 500년 정도의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

이순경의 다른 이름은 범기(範基)이고 참봉에 제수되었다. 부인은 창녕조씨(昌寧曹氏)이며 군수를 지낸 조승섬(曹丞暹)의 딸이다. 아들 몽서(夢瑞)를 두었고 이몽서는 영(英), 방(芳), 행(荇) 등 세 아들을 두었다.

손자 이영(李英)은 통정대부 첨지중추부사에 올랐고 이행(李荇)은 임진왜란 중이던 1593년의 제2차 진주성 싸움에서 순절하여 선무원종공신에 책훈되었다. 이영(李英)의 아들인 증손자 정형(廷亨)은 부호군에 올랐다.

이순경의 묘는 산양리 송죽동에 있었으나 다른 후손들의 묘와 함께 몇 해 전에 강청리의 종종 납골당으로 이장되었다. 염치읍 강청리를 중심으로 온양 등 각지에 후손들이 살고 있다.



-합천이씨 납골당 안내 표지석과 납골당-

[104] 연안이씨 이습원 | 李習源 <1779년(정조3년)~1834년(순조34년)>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연안이씨(延安李氏) 19세이며 관동파(館洞派) 아산시 지역, 도고면 도산리 입향조이다. 후손으로 도고면 도산리에서 거주하다가 온천동으로 이주한 24세(世) 이명승(李明承, 88



세)씨의 6대조이다.

이습원의 고조는 대제학과 판서를 역임한 이일상(李一相, 1612~1666)이고 증조는 통훈대부로 사복시첨정을 지낸 이성조(李成朝, 1648~1696)이며 조부는 돈녕도정 이여신(李礪臣)이다. 아버지는 생진과와 문과에 급제하고 대사간에 오른 이석보(李奭輔, 1724~1782)이고 어머니는 파평윤씨로 윤희(尹錡)의 딸이다.

그는 익원(翼源), 휘원(翬源), 흡원(翕源), 습원 등 4남3녀 중 넷째로 태어났으며 자는 열지(悅之)이고 동지중추부사에 올랐다. 부인은 안동김씨로 김성우(金成遇)의 딸이다. 그가 언제 왜 도고 도산리로 들어왔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후로 추정한다. 그는 치수(致秀)와 복수(宓秀) 두 아들을 두었고 이들이 각각 외아들만을 낳았다. 그 이후 조금씩 손이 늘기도 했지만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이습원의 후손들은 도고면 도산리를 중심으로 온양, 송악 평촌리 등에 살고 있다.

한편 다른 기록에 따르면 조선 후기에 충청도관찰사와 형조판서(1800년) 등을 지낸 이정운(李鼎運, 1734~?)이 연안이씨이고 '신창 출신'이라 하였는데 이습원과 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이습원의 증조부인 이성조(李成朝, 1648~1696) 내외의 묘가 도산리 가래골(추곡)에 있으며 이습원의 맏형인 이익원(李翼源)의 세 번째 부인인 김해김씨의 묘 또한 가래골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습원보다 더 윗대에서 들어와 자리 잡았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105] 용인이씨 이시민 | 李時敏 (1532년(중종27년)~1592년(선조25년))

조선 중기의 인물로 용인이씨(龍仁李氏) 22세(世)이며 참판공파(參判公派) 아산시 지역, 탕정면 매곡리 입향조이다. 450여 년 전이다. 현재 도고면 농은리에 이주해서 살고 있는 매곡리 출신 37세(世) 이문갑(李文甲, 76세)씨의 15대조이다.

그는 공조참판을 지낸 자헌대부 참판공 이승충(李升忠)의 5세손이고 통훈대부로 임피현령을 지낸 평정당(平亭堂) 이봉손(李奉孫)의 현손이다. 문과에 급제한 뒤 사간에 오른 이효독(李孝篤)의 증손인데 이효독의 후손들은 사간공파로 칭하기도 한다. 역시 문과 급제 후 첨지중추원사에 올랐으며 강직하고 선정으로 이름이 있던 이홍간(李弘幹, 1486~1546)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이영성(李永成, 1506~1543)으로 진사시를 거쳐 문과에 급제하고 사간원 정언(正言-정6품)에 올랐으나 아쉽게 일찍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개성고씨(開城高氏) 동지중추 고자겸(高自謙)의 딸이다.



이시민은 부민(膚敏), 시민(時敏), 사민(思敏), 덕민(德敏) 등 4형제 중 둘째이며 자는 경이(敬而)이다. 부인은 전의이씨(全義李氏)로 종사랑 이홍주(李弘澍)의 딸이다. 이홍주는 전의이씨 대사성공파 아산시 지역, 고개 너머 이웃 마을인 매곡2리 신평터 입향조인 이유(李宥, ?~?)의 장남이다. 이시민은 혼인으로 인해 경기도 용인 지역에서 이곳 매곡1리 매골로 들어온 것이다.

넷째인 이덕민(李德敏, 1543~1618)은 자가 계도(季道)이고 호는 송파(松坡)이다.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았던 은일(隱逸)이었으며 염치읍 서원리에 있던 인산서원(仁山書院)에 배향되었던 학자이다. 『대동기문(大東奇聞)』에 그의 행적이 실려 있다. 염치읍 백암리에 살았으며 만전(晩全) 홍가신(洪可臣), 송곡(松谷) 홍익현(洪翼賢)과 함께 교유·강학하였다.

그리고 이덕민의 숙형인 이사민(李思敏, 1541~?)이 근처에 살았다, 이사민은 아산에 거주하였다는 사마방목의 기록, 이덕민의 묘가 음봉면 산동리 '공동골(公東骨) 송파야(松坡野)'에 있다는 족보 기록, 이덕민의 호가 송파(松坡)이고 아들 치요(致堯)의 호가 아주(牙洲-족보에는 牙洲로 되어 있으나 牙洲의 잘못된 것으로 봄)라는 점 등으로 보아 이사민과 이덕민이 나중에는 음봉면 산동리 지역에 거주하였을 것으로 본다. 이덕민은 유복자로 태어났고 이사민이 1576년 사마시에 합격한 36세 때에 아산에 거주했다는 것 등으로 보아 둘째인 이시민이 먼저 탕정 매골에 자리 잡은 뒤 이어서 그의 동생 둘이 가까운 염치와 음봉 지역에 자리 잡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시민은 아들이 없어서 형 이부민의 둘째 아들 치각(致愨)을 계자로 들였고 이치각도 외아들 후식(厚植)만을 두었으나 이후식이 득원(得黿), 득구(得龜) 등 두 아들을 낳은 뒤부터 매골을 중심으로 후손이 널리 퍼지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시민의 묘는 마을 뒷산에 있었으나 1990년에 도고면 농은리 논골에 종종 묘역을 새로 마련하여 용인에 있던 선고의 묘소, 음봉산동에 있던 동생 이덕민의 묘소 등과 함께 옮겨 모시고 있다.



-용인이씨 종종 묘역 안내비와 이덕민의 묘비-



[106] 아산이씨 이용 | 李鬯 <? ~ ?>

고려 말 문신으로 아산이씨(牙山李氏)의 실질적 1세조이자 아산 지역 입향조이다. 아산 이씨는 경주(慶州) 이씨에서 갈라져 나온 성씨로, 고려 전기에 형부상서(刑部尙書) 판어사대사(判御史臺事)를 지낸 이주좌(李周佐)를 시조(始祖)로, 고려 중기 이서(李舒)를 중시조로 한다. 서(舒)는 삼중대광보국(三重大匡輔國) 벽상공신(壁上功臣)으로 아주백(牙州伯)에 봉해졌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아산을 본관으로 하였다. 묘소가 음봉면 신수리에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아산에 거주하지는 않았고 서(舒) 이후의 세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의 후손인 옹(鬯)을 실질적인 1세조로 한다. 최근의 족보에는 서(舒) - 병부상서 양중(養中) - 좌복야 윤중(允重) - 옹(鬯)으로 이어지는 세계를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그는 서(舒)의 증손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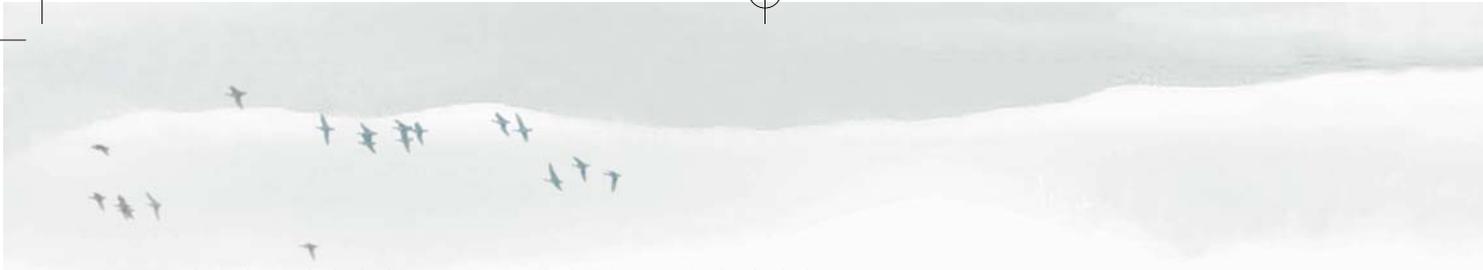
그는 고려 말 공민왕 때에 문하시중(門下侍中)까지 올랐던 인물로서 이성계 일파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한 뒤 그를 좌의정으로 제수하고 세 차례나 불렀지만 모두 거절하고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에 내려와 은거했다. 그 후 시를 읊고 낚시질로 자적하며 지냈기에 그의 자호(自號)인 조은(釣隱)은 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본조를 섬기어 관은 좌의정에 이르렀다.'는 기록은 일방적으로 제수한 것을 기준으로 적은 것이다. 그의 손자 이원생(李原生)은 홍문관(弘文館) 정자(正字)를 지냈으며 이원생의 손자 이석번(李碩蕃)이 중종 때 정국공신(靖國功臣)이 되어 아성군(牙城君)에 봉해지고 공조판서를 역임하기는 했지만 조선시대에는 고려 때만큼 번성하지 못했다.

부인은 김해 김씨 극열(克悅)의 딸이다. 묘는 경기도 양주 망우리에 있었으나 실전(失傳)되었고 경기도 포천 가산면에 단(壇)을 세워 제사하고 있다.

[107] 전주이씨 이욱 | 李郁 <1586년(선조19년)~1658년(효종9년)>

조선 중후기의 인물로 전주이씨 임언군파(林堰君派) 6세(世)이며 아산시 지역, 신창면 궁화리(혹은 가덕리) 입향조이다. 임언군은 조선왕조 제2대 왕 정종(定宗)의 8남 이녹생(李祿生)으로 그의 후손인 임언군파는 주로 경기도 파주 장단에 거주하였다.

이욱은 임언군의 5세손이며, 장택수(長澤守) 이효자(李孝慈)의 현손, 마주령(馬周令) 이경손(李敬孫)의 증손, 청천감(菁川監) 이석분(李碩奮)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이윤원(李胤元, 1530~1592)이며



어머니는 선산김씨(善山金氏) 김견포(金見匏)의 딸이다.

그는 세 아들 중 둘째이며, 관직에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인은 안동김씨(安東金氏)로 김원(金院)의 딸이다. 그가 언제 왜 신창으로 와서 자리 잡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시기는 특별한 근거가 없으므로 그의 생애 중간쯤을 기준으로 1620년경으로 보고 약 390년 전으로 추정한다. 묘는 신창면 궁화리 가곡에 있다.

외아들 명화(明華, 1607~1676)를 두었고 이명화는 종립(宗立), 덕립(德立), 소립(韶立) 등 세 아들을 두어 그 이후 자손이 많이 늘어 번창하였다. 뒤에 후손들 중 일부가 온양, 탕정, 음봉 지역에까지 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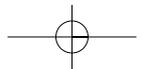
[108] 전의이씨 이유 | 李宥 〈 ? ~ ? 〉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전의이씨(全義李氏) 15세(世)이며 대사성공파 아산시 지역 탕정면 매곡2리 신평터 마을 입향조이다. 선대는 황해도 개성 지역에 오랜 동안 거주하였다. 후손으로 현재 매곡2리에 거주하는 30세(世) 이장호(李長鎬, 75세)씨의 15대조이다.

이유는 영경운전사(領景雲殿事) 전의부원군(全義府院君) 이사안(李思安)의 현손이고 함길도 경력을 역임한 이좌(李佐)의 증손자이며 부사직을 지내고 좌승지에 추증된 이삼기(李三奇)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세조 12년(1466)에 문과에 급제한 뒤 한림(예문관 검열)과 사헌부 장령(정4품) 등을 지냈고 좌승지에 추증된 이인석(李仁錫)이며 어머니는 백천 조씨(白川趙氏)이다.

그가 정확히 언제, 어떤 일로 인하여 이곳으로 들어왔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유의 묘가 선대의 고장인 개성이 아닌 멀리 충청도의 전의에 있었던 점으로 보아 그가 개성에 살다가 온양으로 들어왔고 근처에 선산이 없어서 전의에 모신 것으로 추정한다. 그의 아들인 이홍주부터 3대(代)는 가까운 대추리(배방읍 장재리 지역. 정확하게는 대추리 산너머 천안 쌍용동 지역에 묘가 있었다.)에 묘가 있기 때문이다. 배방읍 북수리로 들어온 이기(李椅)와는 8촌간이며 북수리 쪽이 조금 먼저 들어왔을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승사랑(承仕郎)으로 한림원에 재직했으며 부인은 강릉김씨(江陵金氏)로 진사 김우(金羽)의 딸이다. 1남 1녀를 두었는데 아들 이홍주(李弘澍, ?~?)는 종사랑(從仕郎)에 올랐다. 이홍주의 부인은 교동인씨(喬桐印氏)로 지평 인침(印琛, ?~?)의 딸이다. 인침은 약 600년 전에 탕정면 동산리에 들어





은 교동인씨 입향조 인인경(印仁敬, ?~?)의 셋째아들이다.

이흥주 또한 1남 1녀를 두어 손자인 이응룡(李應龍)은 적순부위(迪順副尉)를 지냈다. 이응룡은 준(峻), 흘(屹), 장(嶂) 등 3남 2녀를 낳았는데 그 중 차남 이흥(李屹, 1564~1642)은 1606년(선조 39) 병오년 사마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었고 종영, 문영, 생영, 창영, 동영, 인영 등 6남1녀를 두어 전의 이씨 집안을 널리 흥하게 하였다.

전의 어천동에 있던 이유의 묘는 탕정면 매곡리로 옮겼다가 30년 전에 가까운 호산4리 성뒤 마을의 남쪽 성재 줄기 골룩재에 묘역을 정비하고 인근 각지의 선조 묘들을 함께 옮겨 모실 때 그곳으로 이장하였다. 그의 후손들은 탕정면 매곡리를 중심으로 호산리, 배방읍 갈매리, 천안, 대전, 서울 등 곳곳으로 퍼져 나가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유의 묘와 종종 묘역 모습-

[109] 한산이씨 이의재 | 李義載 <1801년(순조1년)~1836년(헌종2년)>

조선 후기의 인물로 한산이씨(韓山李氏) 22세(世)이며 인재공파 아산시 지역, 탕정면 매곡리 입향조이다. 현재 갈산2리 여술 마을에 거주하는 이천규(李千珪, 80세)씨의 고조부이다.

그는 80세까지 살아서 수직(壽職)으로 통정대부 첨지중추부사의 직첩을 받은 이이형(李以馨, 1673~1752)의 현손이고 이해수(李海壽)의 증손이며 이천복(李天馥)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차남인

이규오(李奎五, 1776~1832)이고 어머니는 양천 허씨(陽川許氏)이며 아들 둘을 두었다. 선조들은 아버지까지 여러 대에 걸쳐 천안 북면에서 살았다.

이의재의 자(字)는 치오(致五)이고 부인은 우봉이씨(牛峰李氏)로 이시배(李時培)의 딸(1808~1852)이다. 그가 이 마을에 들어온 것은 약 190년 전의 일이며 매골이 우봉이씨의 세거지인 점으로 보아 처가 마을에 와서 자리 잡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먼저 들어와 자리 잡은 뒤에 그의 형인 이극재(李克載)도 이어서 매골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아들 셋을 두었으며 이후 인근 지역에 터를 잡고 후손이 이어지며 오늘에 이르렀다.

[110] 전주이씨 이의호 | 李義浩 <1777년(정조1년)~1836년(헌종2년)>

조선 후기의 은일(隱逸)이며 세종의 다섯째 별자(別子-서자)인 광평군(廣平君) 이여(李瑱)의 13세손이며 전주이씨 아산시 염치읍 강청리 입향조이다. 통덕랑 이언징(李彦徵)의 증손이고 이응현(李膺顯)의 손자이며 증 조봉대부 동몽교관 이호중(李昊中)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안동김씨로 김광운(金光運)의 딸이고 부인은 초계정씨(草溪鄭氏) 정진황(鄭鎭璜)의 딸이다.

이의호의 자는 사성(士性) 호는 화암(華菴)이다. 어릴 때부터 성품이 순후하고 효행이 탁이(卓異)했다. 충북 진천 백곡(栢谷)에서 출생했는데 1803년에 분가하여 천안 직산에 살다가 1812년(순조 12)에 아산 강청리로 들어와 정착했다. 약 200년 전의 일이다.



-이의호의 묘와 아들 이태연의 효자 정려 현판-



태연(泰淵)과 향연(恒淵), 익연(益淵) 등 아들 셋을 두었고 장남 이태연이 효자로 정려를 받았다. 묘는 그가 강청리에 와서 짓고 살던 집 뒤의 종산에 있으며 2003년에 세운 묘비가 있다. 후손들이 염치 강청리를 중심으로 각지에 거주하고 있다.

[111] 전주이씨 이인묵 | 李仁默 <1808년(순조8년)~1859년(철종10년)>

조선 후기의 인물로 세조(世祖)의 3자 덕원군(德源君) 이서(李曙)의 11세손이며 전주이씨(全州李氏) 덕원군파 음봉면 신희리 입향조이다.

아버지는 이동주(李東柱)이며, 어머니는 안성이씨(安城李氏) 이명엽(李命燁)의 딸이다.

이인묵은 삼형제의 장남이며 부인은 덕수이씨(德水李氏) 이침(李沈)의 딸이다.

아우인 이인걸(李仁杰, 1811~1872)과 이인조(李仁照, 1820~1866) 등 삼형제의 묘가 모두 둔포면 신양리(왕지봉)에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시기에 둔포면 신양리로 와서 살다가 음봉면 신희리로 이주한 것으로 본다.

이인걸의 부인은 영천이씨(永川李氏)로 이행진의 딸이고 이인조의 부인은 반남박씨(潘南朴氏)이다.

후손은 공주, 성환, 둔포면 신양리, 음봉면 신희리에 살고 있다.

[112] 전의이씨 이장규 | 李長揆 <1678년(숙종4년)~1743년(영조19년)>

조선 후기의 인물로 전의이씨(全義李氏) 24세(世)이며 첨지공파 아산시 지역, 기산동 입향조이다. 기산동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31세 이한옥(李漢玉, 80세)씨의 7대조이다. 선대는 김포(현재 서울 화곡동) 지역에 거주하였고 약 310년 전에 이곳으로 들어왔다.

이장규의 고조는 문과 급제 후 병조참판·개성유수 등을 역임한 북촌 이선복(李善復, 1575~1621), 증조는 문과에 급제하고 예조좌랑과 평안도사(平安都事) 등을 지낸 통훈대부 이성전(李晟傳), 조부는 생원시와 진사시에 모두 급제한 이국영(李國英)이다. 아버지는 진사시와 문과에 급제하고 병조좌랑과 강원도사 등을 지낸 이희태(李熙台, 1652~1703)이고 어머니는 안동권씨로 진사 권원(權瑗)의 딸이다.

그는 1남2녀 외아들이며 자는 명서(明叙)이다. 부인은 창녕성씨(昌寧成氏)이며 진사 성봉장(成鳳章)의 딸이다. 그가 이 지역에 온 것은 창녕성씨와의 혼인에 따라 처가가 있는 곳으로 들어온 것이라 한다. 그러나 성씨가 딸을 셋 낳고 아들은 낳지 못했다. 후부인 청주한씨(淸州韓氏) 한주(韓柱)의 딸 사이에 세 아들 성우(聖羽), 박우(博羽), 경우(景羽)를 보았다.

큰아들 이성우는 손이 없어서 셋째 이경우의 외아들 영록(永祿, 1773~1821)을 계자로 들였으니 이장규의 후손은 첫째와 둘째에게서 이어지게 되었다. 이후 후손이 많아져서 기산리 거리미 마을은 전 의이씨가 대부분이었고 집안의 묘가 있는 종산(보갑산 줄기)을 마을에서 '시젯산'이라고 하였다. 후손들이 퍼져 배방 갈매리, 송악 거산리, 당진 등으로 확산되었다.

이장규의 묘는 마을 남쪽 종산에 있으며 후에 그의 조부와 증조의 묘소도 모셔와 함께 있다.



-이장규의 묘와 종중 재실 모습-

[113] 덕수이씨 이정 | 李貞 <1511년(중종6년)~1583년(선조16년)>

조선 중기의 인물이며 충무공 이순신의 아버지이자 덕수이씨(德水李氏) 11세로 아산 지역, 염치읍 백암리 입향조이다.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후손 27세(世) 이재왕(李載旺, 66세)씨의 16대조이다.

정정공(貞靖公) 대제학 이변(李邊)의 현손이고 병조참의 이거(李瑠)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평시서 봉사(平時書 奉事) 지낸 이백록(李百祿)이고 어머니는 초계변씨(草溪卞氏)로 생원 변성(卞誠)의 딸이다. 이백록



이 1519년(중종 14)에 일어난 기묘사화(己卯士禍) 때 신진사림과 뜻을 함께 하여 벼슬을 버리고 은거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로 인해 이정(李貞)도 실직이 아닌 병절교위로 임명만 되었고 일찌감치 벼슬의 뜻을 접었다.

가정 형편도 어려워서 1553년(명종8-추정)경에 처가(妻家)가 있는 아산 백암리(백발)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 그의 부인도 초계변씨(草溪卞氏)이며 현감 변수림(卞守林)의 딸이다. 그는 비록 벼슬이나 공적에서 크게 드러나는 일은 없었지만 나름대로 큰 뜻을 품었기에 네 아들의 이름을 중국의 삼황오제(三皇五帝)와 하(夏)나라 왕의 이름을 써서 지었으니 희신(羲臣)·요신(堯臣)·순신(舜臣)·우신(禹臣)이었다. 희신과 요신은 비교적 일찍 세상을 떴으나 이들 대(代)에 참판공파(희신), 율리공파(요신), 충무공파(순신)로 나뉜다. 그의 후손들은 나라를 위해 큰 공을 많이 세웠다. 그는 이순신이 함경도에서 군관으로 근무하던 1583년 11월에 향년 73세로 졸하였고 사후에 이순신의 공적으로 순충적덕병의보조공신(補祚功臣) 대광보국 승록대부 좌의정 겸 영경연사 덕연부원군(德淵府院君)에 봉해졌다. 묘는 음봉 삼거리 중중 묘역에 있다.

그의 후손은 아산시 각지에 널리 분포되어 번창하였으며 그 중에서 충무공파가 가장 번창하였다. 참고로 덕수이씨 시조인 이돈수(李敦守)등 3대의 단을 1968년에 득산동에 건립했으며 지난 2007년에 음봉면 삼거리로 옮겨 모시고 있다.



-이정의 묘와 묘표-

[114] 전주이씨 이정장 | 李井長〈?~?〉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전주 이씨(全州李氏) 선성군파(宣城君派) 7세(世)로 전주이씨 선성군파 아산시 지역 입향조 중의 한 사람이며 송악면 강장리에 터를 잡았다. 현재 강장리에 살고 있는 후손 17세(世) 이응권(李應權)씨의 10대조이다.

선성군 이무생(李茂生)은 조선 제2대왕 정종(定宗)의 아들 17명(15군) 중 넷째 아들이다. 이무생이 파조(派祖)로서 선성군파의 1세(世)가 되며 2세 도성수(陶城守) 이천정(李千丁)의 아들인 3세 복흥령(復興令) 이미수(李眉壽)가 이정장의 고조이다. 증조는 4세 의령감(義寧監) 이윤조(李胤祖)이고 5세인 의령도정(義寧都正) 이춘영(李春英, 1563~1606)이 그의 조부이다.

아버지는 병자호란(1636~1637) 당시 남한산성으로 왕(인조)을 호종하고 후에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을 모시고 청의 심양에 가서 8년 동안 고생을 하고 돌아왔으며 후에 영국원종공신(寧國原從功臣)에 책훈된 일초정(一草亭) 이시재(李時材, 1588~1661)이다. 어머니는 덕수이씨로 충무공 이순신의 중형(仲兄)인 이요신(李堯臣, 1542~?)의 딸이다. 아버지의 묘는 선대의 묘소가 있는 경기도 양주에 있지만 어머니 덕수이씨의 묘는 탕정면 동산2리 국사봉 동남쪽 기슭에 있다. 동산2리는 그의 친동생인 여섯째아들 이만장(李萬長, 1617~1720)이 자리 잡은 마을이다.

이정장은 11남 1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자가 여상(汝常)이며 감역(監役)을 지냈다는 것 이외에는 생몰년을 포함하여 그에 관하여 전해지는 사항이 거의 없다. 대략 1610년경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한다.



-재실 표지석과 이정장의 묘-



그가 언제 어떤 이유로 송악면 강장리에 왔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시기는 대략 병자호란(1636~37)을 전후로 추정하며 어머니가 아산 출신인 것으로 미루어 외가 쪽과의 인연으로 아산시 지역에 오게 되었을 것으로 본다. 처음 자리 잡았던 곳은 강장리 무태골 지역이었다. 그는 후손들에게 ‘벼슬을 하지 말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부인은 기계유씨(杞溪俞氏)이며 부사 유희회(俞希會)의 딸이다. 이정장은 외아들 익현(益顯, ?~?)만을 두었다. 자가 명중(明中)인 통덕랑 이익현은 사창(師昌), 향창(恒昌), 이창(頤昌) 등 세 아들을 두었으며 이후 점차 손이 널리 퍼지게 된다.

이정장과 그의 자손들 묘소는 송악면 강장리에 있다. 후손들은 송악면 강장리를 근거지로 하고 온양 서울 부산 등 각지에서 살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

[115] 우봉이씨 이종직 | 李宗直 <1563년(명종18년)~1651년(효종2년)>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우봉이씨(牛峯李氏) 14세이며 참판공파(參判公派) 음봉면 신정리 입향조이다. 아버지는 생원시에 급제하고 별천(別薦)으로 장악원(掌樂院) 주부(主簿)를 지낸 이필(李泌)이다.

이종직의 자(字)는 경숙(敬叔)이며 박사암(朴思庵)의 문인(門人)이다. 절충장군 용양위부호군을 지냈으며 가선대부 호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오위도총부(五衛都總府) 총관(總管)에 증직되었다. 부인은 광주이씨(廣州李氏)로 부사정(副司正) 이유정(李惟精)의 딸이다. 묘는 아산시 음봉면 산정리(서당골)에 있다. 음력 10월 8일에 제사를 지낸다. 후손은 대구, 온양, 평택, 신창, 둔포 등지에 산다.

[116] 고성이씨 이지호 | 李之皞 <1610년(광해군2년)~1690년(숙종16년)>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고성이씨(固城李氏) 19세(世)이며 도촌공파(桃村公派) 아산시 지역, 탕정면 갈산리 입향조이다. 현재 마을에 거주하는 29세(世) 이홍렬(李弘烈, 70세)의 10대조가 된다.

진사로서 형조좌랑과 해남현감을 역임한 이광택(李光澤)의 증손자이고 생원으로 예빈시 별좌를 지낸

이해(李瑨)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통덕랑 이찬(李贊)이고 어머니는 천안전씨(天安全氏)로 참봉 전세익(全世翼)의 딸이다.

이지호는 삼남 중 차남이다. 자(字)는 백고(白高)다. 갈산1리 안지므레 마을은 천안전씨가 먼저 자리 잡고 있던 마을인데 이지호가 외가인 이 마을에 들어와 터를 잡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그가 1646년(인조 24년)에 생원진사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된 것은 이미 부친이 세상을 떠난 뒤의 일이다. 아버지의 사망 시기는 전해지지 않으나 그가 어렸을 때의 일로 보인다. 아버지 이찬(李贊)의 비문에도 이지호가 전씨 문중에서 학업을 연마하고 이로부터 내금리(안지므레)에서 고성이씨의 후손들이 세거(世居)하기 시작했다고 전하고 있다. 1630년 전후에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하니 약 380년 전의 일이다. 선대는 주로 경기도 남양에 거주하였다.

족보에는 '선조 경술 생'으로 되어 있으나 경술년(1610)은 광해군 때이다. 진사가 된 해도 족보에는 '을유'라 하였지만 '사마방목'에는 병술년(1646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가 즐한 해가 족보의 기록대로 경오(庚午)년이라면 향년 81세가 된다. 묘는 '온양 일북면 내금호례 작곡(作谷), 즉 지금의 탕정면 갈산1리 안지므레 잣골에 있다.

부인은 순흥안씨(順興安氏)이며 태두(泰斗)와 태하(泰河) 두 아들을 두었다. 이태두는 후손을 두지 못했고 차남 이태하가 동휘(東輝)와 덕휘(德輝)를 두었으나 장남 이동휘가 또 자식이 없어서 동생 이덕휘의 외아들인 관(罐, 1703~1733)을 계자로 하였다. 이관의 외아들 명대(明大)가 삼남을 둔 이후 손이 퍼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손이 많은 편은 아니며 갈산리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지호의 묘와 상석-



[117] 전주이씨 이진수 | 李鎭洙 <1827년(순조27년)~1910년>

본관은 전주이며 석보공의 14세손이다. 전주 이씨(全州李氏) 석보공파(石保公派) 영인면 창용리 입향조이다. 아버지는 요석(堯錫)이며 어머니는 파평(坡平)윤씨 복섭(復燮)의 딸이다.

관(官)은 통정대부(通政大夫)이며 부인은 순창(淳昌) 설씨(薛氏) 맹문(孟文)의 딸이다. 묘는 음봉면 동천리에 있다. 음력 10월 셋째 주 일요일에 시제를 올린다.

[118] 한산이씨 이형배 | 李亨培 <1597년(선조30년)~1664년(현종5년)>

목은 이색(李穡)의 10세손이고 한산이씨(韓山李氏) 17세(世)이며, 양경공파(良景公派) 아산시 지역, 둔포면 봉재리 입향조이다. 봉재리에 거주하는 후손 27세(世) 이서구(李瑞求, 76세)씨의 10대조이다.

그의 고조는 사마시에 급제한 증좌부승지 이지훈(李之薰)이고 증조는 첨지중추부사 이식(李埴)이며 조부는 증이조참판 이흥남(李興男)이다. 선대는 주로 금천(衿川-현재 서울 신림동 지역)에 거주하였다.



-이형배의 묘-



아버지는 증좌부승지 이순(李淳, 1562~1637)이며 어머니는 성주황씨(星州黃氏)로 황세득(黃世得)의 딸이다. 그는 원배(元培), 형배(亨培), 천배(天培), 정시(廷蓍) 등 네 아들 중 둘째로 태어났다. 형 이원배는 외아들 육(穡)을 두었으나 대를 잇지 못하였고 셋째인 이천배도 무후하였고 넷째는 출계하였으니 그가 실질적으로 대를 잇게 된 셈이다.

이형배의 자는 인백(仁伯)이며 이조참의에 추증되었다. 그가 언제 왜 둔포 봉재리로 왔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그의 부인이 교동인씨(喬桐印氏)로 참봉 인쇄나(印大那)의 딸이기 때문에 멀지 않은 탕정면 동산리 일대가 교동인씨 세거지여서 혼인으로 인하여 들어오게 되었으리라 추정하지만 근거는 없다. 병자호란 때 피난을 계기로 정착했을 수도 있다. 시기는 대략 370~380년 전으로 본다. 부친의 묘소도 옆 마을인 음봉 신정리에 있지만 그가 모셔온 것으로 추정한다. 그의 묘는 옆 마을인 둔포면 관대리에 있다.

그는 집(稭), 계(稽), 진(稹), 익(稭), 희(稀), 거(矩) 등 6남2녀를 두었으니 이후 후손들이 크게 번창하였다. 둔포 봉재리와 음봉 신정리를 중심으로 하여 장재울, 온양, 청양 등 각지로 퍼져 나갔고 지금까지 잘 이어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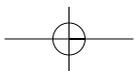
[119] 성주이씨 이화 | 李華 〈?~?〉

조선 중후기의 인물이며 성주이씨(星州李氏) 9세(世)로 문열공파(文烈公派) 아산시 지역 입향조이다. 현재 탕정면 명암3리에 살고 있는 이석진(李錫震, 66세)씨의 15대조이다.

아들은 이현정(일명 국정國禎, 1549~1607)이며 손자는 이이(李儼, 1581~1663)이다. 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명확하게 그를 입향조로 여기고 있다. 그의 증손자인 12세(世) 이후기(李厚祺, 1608~1672)가 탕정면 명암3리 증좌미 마을 입향조다. 이화는 음봉 또는 둔포 지역에 처음 자리를 잡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증손자 이후기는 증좌미에 들어오기 전에 인근 마을인 가락바위에 살았다고 한다.

이화의 정확한 입향 시기는 알 수 없다. 아들 이현정이 태어난 시기를 기준으로 막연하게 대략 460년 전 쯤의 일로 추정한다. 묘는 설화산 남쪽 자락에 있다고 하나 확인하지 못했다.

증손자 이후기의 아들 요(橈)가 덕연(德淵), 덕원(德源), 덕운(德潤), 덕영(德泳), 덕침(德沉) 등 5남과 2녀를 두면서 증좌미 일대에서 성주이씨의 후손이 번창하게 되었다.





[120] 예안이씨 이희문 | 李喜聞 〈?~?〉

조선 중기의 인물로 예안이씨(禮安李氏) 9세이며 아산시 지역, 영인면 성내리 쇠재 입향조이다. 선대는 보은 지역에 살았다. 현재 성내리 쇠재에 거주하고 있는 24세(世) 이헌중(李憲鍾, 71세)씨의 15대조이며 서기 1500년경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는 무신이자 과학자로서 세종 때 여러 방면에서 큰 공을 세운 익양공(翼襄公) 이천(李蒧, 1376~1451)의 5세손이며 철원도호부사를 지낸 이효로(李孝老)의 현손이다. 통훈대부로 행원주판관을 역임한 이중석(李仲石)의 증손이자 호군을 지낸 이수배(李秀培)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병절교위 이형(李炯)이며 어머니는 청주한씨(淸州韓氏)로 첨정 한서윤(韓叙倫)의 딸이다. 이형의 묘가 ‘아산 일북면 혁산동(赫山洞- 음봉면 소동리 바루미)’에 있다는 족보의 기록으로 보아 이형이 아산 지역 입향조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집안에서는 아들 이희문을 입향조로, 그리고 ‘아산 파’의 파조로 여기고 있어서 일단은 그렇게 정리하되 이형에 관하여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희문은 희문(喜聞), 혼문(欣聞), 윤희(胤韓) 3형제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인은 안동권씨 부장(部將) 권응(權膺)의 딸이다. 그가 언제 어떤 이유로 이곳에 왔는지도 알 수 없다. 아버지와 들어왔다면 대략 500년 전, 그가 들어왔다면 대략 450년 전으로 추정한다. 그의 묘는 영인면 상성리 배두실에 있다.

이희문은 아들이 없어서 조카 춘영(春英)을 계자로 들였고 이춘영 역시 이강(而強)을 계자로 맞았다. 이이강은 아산현감을 지낸 청백리 윤춘수(尹春壽)의 딸 해평윤씨 사이에 진행(震行), 진득(震得), 진복(震復) 등 3남을 두었으나 이 중 둘째는 2대 뒤에, 셋째는 당대에 손이 끊어졌다. 결국 후손은 이진행의 4남에게서 이어져 왔다. 이진행(1586~1642)은 1636년 병자호란 때 강화도로 사직단 신주를 대피시켰다가 봉환한 공로로 사직령과 금화현감에 제수되었으며 문장이 뛰어나 ‘아산 8문장(文章)’으로 이름이 높았다.

이희문의 후손은 손이 귀한 편이어서 널리 퍼지지는 못한 편이고 영인 일대를 중심으로 하고 평택 평성에 일부가 살고 있다.

[121] 교동인씨 인인경 | 印仁敬 <?~?>

고려 말 조선 초기의 문신이며 교동인씨(喬桐印氏) 아산시 지역, 탕정면 동산1리 구루미 마을의 입향조이다. 인인경은 교동인씨 44세(世)이며 중시조 인당(印瑠, ?~1356)으로부터 4세이다. 동산리에 거주하다가 현재 천안으로 이사한 후손 60세(世) 인영철(印永哲, 70세)씨의 16대조이다.

고려 후기의 무신으로 서북면병마사와 참지정사 등을 역임했고 석성부원군에 봉해졌으며 상산군(商山君) 김득제(金得齊) 등과 함께 왜구 격퇴와 항몽 투쟁에 공을 세웠으나 끝내 희생된 중시조 인당의 증손이다. 역시 고려말의 무신이며 아산만 일대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는 등 각지에서 왜구 격퇴에 큰 공을 세우고 이부시랑(정4품)을 지낸 인쇄(印海, ?~?)의 손자이다.

홍주목사와 서북면체찰사 등을 거쳐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 종2품)로 재임 중 최영 세력으로 분류되어 이성계 세력에 의해 경북 함창으로 유배 후 사사당한 인원보(印原寶, ?~?)가 그의 아버지이다. 황해도 토산군(兔山郡)에 주로 거주했다고 하는 인원보는 조선 건국 이듬해인 1393년에 이성계에 의해 형조판서로 추증되고 익재공신(翊載功臣) 함산군(咸山君)에 봉해졌다. 어머니는 파평윤씨(坡平尹氏)로 병조참판 윤상은(尹相殷)의 딸이며 인경(仁敬)과 예경(禮敬) 두 아들을 두었다.

인인경의 자(字)는 성직(聖直)이고 호는 아천(雅川)이다. 부인은 선산김씨(善山金氏)로 공조판서 겸(兼)의 딸이다. 조선 태종 때 통훈대부(通訓大夫-정3품)에 올랐고 삼군진무(三軍鎭撫), 행삭주도호부사(行朔州都護府使)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그가 언제 왜 탕정면 구루미 마을에 오게 되었는지 그 내력은 알 수 없다. 1417년(태종 17년)에 세자의 패륜 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자 관직을 버리고 이곳으로 와서 은거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약 600년 전의 일이니 그 연원이 매우 깊은 집안이다.

인인경은 아들 여섯을 두었다. 장남 근(瑾)은 공조좌랑·강서현령 등을 지냈고, 차남 종(琮)은 숙부에게 출계하였다. 3남 침(琛)은 사헌부 지평을 역임했으며 4남 구(球)는 용양위 부장에 올랐고 5남 진



-인인경의 묘-



(珍)은 단종 1년(1453) 무과에 급제하였다. 인인경으로 인하여 구루미 마을은 교동인씨의 세거지가 되었고 이후 아산시 지역 이외에도 예산 덕산, 홍성, 당진 면천, 보령 등 내포지방과 천안, 전주, 여주 등 각지로 후손이 퍼지게 되었다. 그의 증손대에 이르러 여러(10개) 파가 나뉘게 되었다.

*세자 패륜 사건 : 태종의 세자 양녕대군이 곽선(郭璇)의 첩 어리(於里)를 간통하고 궁중에 들어온 사건이다. 이 당시 인인경은 군부의 책임자 중 하나인 삼군진무(三軍鎭撫) 직책에 있었는데 '동궁문(東宮門)을 파수함에 조심하지 못했던 까닭', 즉 세자가 드나드는 문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간접 책임으로 의금부에 하옥되었다가 풀려났다.

[122] 평택임씨 임수겸 | 林守謙 <1409년(태종9년)~1492년(성종23년) >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평택임씨(平澤) 8세이며 전객령공파 아산시 지역, 도고면 화천리 입향조이다. 현재 화천리에 거주하는 25세 임승목(林承穆, 79세)씨의 17대조이다.

그는 고려 말에 세자전객령(世子典客令)을 지낸 평택임씨 4세이자 중시조(1세조)인 임세춘(林世春-世椿)의 현손이다. 증 통훈대부 공조판서 임보(林祿)의 증손이고 진사로 가선대부에 오른 임윤생(林允生)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통례문 봉례(奉禮)를 지낸 임무(林茂)이고 어머니는 강릉김씨이다.

임수겸의 자는 익지(益之)이고 호는 갈곡(葛谷)·갈곡신옹(葛谷愼翁)이며 김숙자(金叔滋)의 재종형인 김종리(金從理)의 문인이다. 1447년(세종 29) 친시(親試)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에 보직되고 1455년(단종 3)에 우정언(右正言)에 임명되었으며, 1457년(세조 3)에 좌익원종공신(左翼原從功臣) 3등에 책훈되었다. 사예(司藝), 사성(司成)에 제수되어 성균관과 종학·사학 등에서 교육과 학문 발전에 기여했다. 이후 전라도관찰사와 호조·예조참의(參議)·대사성(大司成)·대사간(大司諫) 등을 역임했다. 세조가 늘 편전에 불러들여 정사를 논의하고 총애했으며 이후 부제학에 올랐으나 곧 관직에서 물러나 신창현, 현재의 아산시 도고면 화천리로 퇴거(退去)했다. 1470년(성종 1)에 사표(師表)로 부름을 받고 주자(胄子-세자)를 가르쳤으며 이듬해에 동지성균관사에 올라 오랜 동안 후학 양성에 힘쓰다가 1482년(성종 13)에 사직하고 물러나 도고로 내려와 머물렀다. 그가 왜 도고 화천리로 왔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의 후손들은 그의 호를 따서 '갈곡공파'로 칭한다.

부인은 진주강씨이며 영중추 강득호(姜得浩)의 딸이다. 추(樞), 환(桓), 근(根), 석(檉), 격(格), 집

(稱) 등 6남을 두었다. 이중 둘째는 부친과 흥양, 셋째와 다섯째는 수원, 넷째는 부여 임천, 여섯째는 여주 지역에 터를 잡았다.

큰아들 임추(林樞)는 봉열대부(정4품)로 정언을 지냈으며 부인은 초계정씨로 사복시정 정지손(鄭智孫)의 딸이다. 임추는 두 아들 자영(自英)과 자화(自華)를 두었다. 임자영은 부사직을 지냈고 후손이 계속 도고에서 살아왔다. 둘째 임자화는 생원시에 급제했고 3남을 두었으며 예산 쪽에 자리를 잡았다.

임수겸의 후손 중에는 6세손 매헌(梅軒) 임석주(林錫周)가 포저 조익의 문인이었으며 처사이자 학자로서 이름이 있었고 임석주의 손자 임상언(林尙彦)은 호가 도산(道山)이며 가선대부 행동지중추부사에 올랐고 문집을 남겼다.

임수겸이 도고 화천리에 머물 때 정자를 짓고 연정(蓮亭)이라 하였으며 이후 후손들을 교육하는 장소로 이용되었다. 그 뒤 쇠락해진 것을 1955년에 16세손 임달선(林達善)이 중수해서 마을 서당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그는 84세에 졸하였고 묘는 수원(화성시) 봉담면 봉서산에 있다. 직계 후손들의 묘는 도고 일대에 있다. 지금도 도고 도산리 일대를 중심으로 후손들이 살고 있다.



-임수겸이 지은 연정과 큰아들 임추의 묘-

[123] 장흥임씨 임욱 | 任勳 <1680년(숙종6년)~1736년(영조12년)>

조선 후기의 무신이며 장흥임씨(長興任氏) 아산시 지역, 영인면 월선리 입향조이다.



고려 때 문하시중을 지낸 임원후(任元厚)의 16세손이다. 남해현령 임식(任湜)의 손자이고 1672년(현종 13)에 무과에 급제한 뒤 통덕랑에 오르고 병조판서에 추증된 수창(壽昌)의 아들이다.

자는 군보(郡輔)이다. 1680년(숙종 6)에 무과에 급제하고 선전관을 거쳐 용천부사, 영흥대도호부사 등을 역임했다. 영조4년(1728)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나자 도순무사(都巡撫使) 오명항(吳命恒)의 휘하로 출동하여 안성, 죽산 등지에서 싸워 이기며 난을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이 공으로 분무(奮武-뒤에 양무(揚武))원종공신에 책록되어 공신록(功臣錄券)과 영정(影幀)을 하사받았고 뒤에 전라좌수사로 제수되었다. 후손들이 1980년에 아산시 영인면 월선리 산기슭에 영정을 봉안한 영정각(影幀閣)을 건립했다. 후손들은 영인면 월선리를 중심으로 각지에 거주하고 있다.



-임옥 영정각 정문과 영정각 현판-

[124] 풍천임씨 임희지 | 任羲之 <1568년(선조1년)~1637년(인조15년)>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풍천임씨(豊川任氏) 17세로 아산시 염치읍 쌍죽리 죽실 입향조(入鄕祖)다. 풍천임씨는 본관인 풍천을 별칭으로 서하(西河)라고도 한다. 현재 실옥동에 거주하는 후손 29세(世) 임주빈(任周彬, 75세)씨의 12대조이다.

그의 고조는 임유손(任由遜)이고 증조는 현감 임주(任柱)이며 조부는 강원도관찰사와 좌승지를 역임한 명신(名臣) 임내신(任彥臣)이다. 아버지는 진사(進士)로서 대흥현감을 지낸 임기(任琦)이고 어머니

니는 전주이씨로 판관 이빈국(李賓國)의 딸이다.

임희지의 자는 일소(逸少)이다. 한양에서 출생하고 거주했으나 부친이 왜란 중이던 1594년에 병으로 아산 사기소에서 졸하자 묘소를 아산 염치 동정리(독정리)에 모시고 3년 시묘를 하면서 인근 대실(죽실) 마을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다. 이후 후손들이 인근 마을에 살게 되었다. 부인은 원주원씨(原州元氏)로 군수 원경심(元景諱)의 딸과 해주오씨(海州吳氏)이다.

그는 1591년(선조24)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1604년(선조 37)에 평강현감(平康縣監), 1607년(선조 40)에 감찰에 제수되었다. 1617년(광해군 9) 별시문과에 급제한 뒤 성균관 사예(司藝-정4품) 겸 춘추관 편수관을 지내던 중에 북인(北人) 주도로 인목대비 폐출이 추진되자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온 뒤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으며 70세에 졸했다.

조부인 임내신(任肅臣)의 농장이 천안 방축동(쌍용 2동)에 있었는데 그는 임진왜란 중에 곡식 1,000여 석(섬)을 내어 군량미와 구호미로 쓰도록 했다. 특히 농장 인근 길가에 큰 솔 10여 개를 길어놓고 죽을 쑤어 난민을 구호했다고 전한다. 선무원종공신 3등에 책훈되었고 후에 이조참판 홍문관 제학에 추증되었다. 묘는 천안시 풍세면 구룡리 배골에 있다.

임희지는 환(喚)과 준(峻) 등 아들을 두었다. 임환(任喚)은 아들 임홍망(任弘望)이 지중추부사에 이르고 명성이 있어서 참찬에 증직되었다. 임준은 절충장군에 올랐고 아들 임홍량(任弘亮)은 목사에 오르고 문장으로 이름이 있었다.

또한 증손 강개옹 임창(任敞)과 현손 서재 임징하(任徵夏) 등이 의리로서 이름을 알렸고 9세손 고산 임헌회(任憲晦)는 조선 말기에 학자로서 이름이 높았으며 선조들을 모시는 독성서사를 건립하였으며 최근에 독성서원으로 중건되었다.

임희지의 후손들은 염치읍 쌍죽리와 동정리를 중심으로 온양, 배방, 천안 풍세, 연기 전의 등에 거주하고 있다.



-독성서원 현판과 뒷모습-



[125] 아산장씨 장서 | 蔣壻〈?~?〉

고려 중기의 인물로 아산(牙山) 장(蔣)씨 시조(始祖)이다. 장영실(蔣英實)의 선조라 알려져 있다. 중국의 북송(北宋, 960년 ~ 1126년) 말기에 여진족의 금(金)나라가 중원을 압박할 때 당시 금좌광록대부 신경위 대장군이었던 그는 금을 정벌하자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배를 타고 고려로 망명해서 지금의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다. 이를 전해들은 왕(예종)이 그에게 식읍(食邑)과 아산군(牙山君)이라는 봉작(封爵)을 하사했다고 한다. 그 후 자세한 내용은 불확실하나 이로 인해 그의 후손들이 아산을 본관으로 하게 되었다. 아산 장씨 집안의 자료에 따르면 그의 증손 숭(崇)은 고려조에 판군기감사 겸 도총사를 역임했고 숭의 아들 득분(得芬)은 도총사를 거쳐 판군기시사에 올랐다. 6세손 균(均)은 판도판서에 올랐으며 균의 아들 자방(自芳)은 삼사부사 겸 검교예빈경을 역임했는데 거주지는 경북 의성군 점곡면 교동이다. 자방의 아들 5형제가 모두 전서(典書)를 지내 '5전서'로 유명하다. 후손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은 조선 세종 때의 장영실(蔣英實)이다.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에 장장군묘(蔣將軍墓)라는 큰 무덤이 있다. 일찍이 멸실되었던 것을 후손들이 묘소 자리를 다시 찾아 토지를 매입하고 1967에 그 자리에 있던 '장장군 신사'라는 신당을 헐고 봉분을 만들었다. 이후 2006년에 지금의 모습으로 재정비했다. 아산시에 거주하는 후손들은 확인되지 않는다.



-장서의 묘와 장영실 추모비-

[126] 인동장씨 장훈주 | 張勳周 <?~?>

조선 후기의 인물로 인동장씨(仁同張氏) 23세(世)이며 태상경공파 아산시 지역, 음봉면 동암리 입향조이다. 현재 신동에 거주하는 33세 장기선(基善, 68세)씨의 10대조이다.

그의 고조는 무과 급제 후 통덕랑으로 부사직을 지낸 장효문(張孝文)이고 증조는 무과에 급제하고 선전관을 지낸 장인기(張仁紀)이며 조부는 감찰을 역임한 장호(張皓)이다. 아버지는 무과 급제 후 신천군수에 오른 장신한(張信翰, 1605~1678)이며 어머니는 밀양손씨로 손상권(孫尙權)의 딸이다.

장훈주는 셋째아들로 태어났으며 일명 득주(得周)이다. 족보에 기록된 관직은 확인되지 않는다. 부인은 천안손씨(天安孫氏)라 되어 있으나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밀양손씨나 천안전씨의 오기일 것으로 보인다. 그가 음봉 대동리로 온 시기와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어머니가 밀양손씨이니 가까운 탕정면 명암2리 장목 마을이 밀양손씨 세거지임을 고려하여 외가 근처로 들어오게 된 것으로 추정한다. 혹은 아들 세용(世龍)의 부인이 전의이씨인 점에 근거하여 아들의 혼인으로 아들이 먼저 들어온 뒤에 합류하였거나, 아들이 실질적인 입향조인데 아버지의 묘를 근처에 모셨기 때문에 집안에서 그 아버지를 입향조로 여긴 경우일 수도 있다. 집안에서 명확히 주장하는 대로 일단 장훈주를 입향조로 본다.

시기는 그의 아들 장세용(1648~1712)의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대략 360년 전쯤으로 추정한다. 그의 선대는 풍덕(개성 개풍)에 있었기 때문에 장훈주의 후손들은 ‘풍덕에서 왔다 하여 풍덕파(豐德派)’로 자칭한다.

장훈주는 세용, 세일(世一), 세백(世伯), 세막(世莫) 등 네 아들을 두었고 큰아들만 온양지역에 거주하였다. 장세용은 영현(寧顯), 수현(壽顯), 정현(貞顯) 3남을 두었으며 역시 장남이 고향에서 대를 이어갔고 이후 후손들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장훈주와 그의 직계 후손 수대의 묘는 온양 청당리, 지금의 풍기동에 있었으나 탕정면 명암4리로 이장하였다.

[127] 담양전씨 전익현 | 田益顯 <1766년(영조42년)~1805년(1829년?)>

조선 후기의 인물로 담양전씨(潭陽田氏) 23세이며 경은파(耕隱派) 아산시 지역 송악면 중곡리 입향조이다. 현재 음봉면 산동리 용혈리에 살고 있는 30세(世) 전병기(田炳基, 55세)의 7대조이다. 선대



는 연기군 금남면 지역에 거주하였다.

그의 고조는 전흥우(田興雨), 증조는 전원색(田元穡), 조부는 전선재(田善栽)이다. 아버지는 전서운(田瑞雲)이고 어머니는 경주김씨(慶州金氏)로 김경연(金敬連)의 딸이다.

철현(喆顯), 익현(益顯), 모현(謨顯) 3형제 중 둘째인 전익현의 자는 사인(士寅)이다. 부인은 광산김씨(光山金氏)이며 김시택(金時澤)의 딸이다. 그가 온 시기와 연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대략 200여 년 전이다.

전익현은 용성(龍聖)과 인성(麟聖)을 두었다. 큰아들 전용성이 경천(慶天), 경대(慶大), 경삼(慶三) 등 세 아들을 두었다. 그 중 큰아들 전경천(田慶天)이 음봉면 용혈리(산동1리)로 이주하였는데 사연을 알 수 없다. 전경천은 부인 해주오씨(海州吳氏) 사이에 시균(時勻), 덕균(德勻), 풍균(豐勻), 제균(濟勻), 영균(永勻) 등 아들 다섯을 두면서 후손이 늘게 되었다.

한편, 전익현이 올 때 동생 전모현이 함께 송악 종곡리로 들어왔다. 음봉면 산동리 지역은 큰아들 쪽 후손이고 송악면 종곡리와 마곡리에는 작은아들 후손으로 이어져 왔다. 전익현의 묘는 송악면 거산리 구만이에, 전모현의 묘는 갈재에 있다. 후손들은 세거지인 송악면 종곡리와 마곡리, 음봉면 산동리를 중심으로 온양, 천안, 서울 등 각지에서 살고 있다.

[128] 천안전씨 전민 | 全敏 <? ~ ?>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천안전씨(天安全氏) 41세이자 문효공파 아산시 지역, 배방읍 회룡리 입향조이다. 선대는 천안 풍세면 삼태리 일대에 거주하였다. 그곳은 천안전씨의 발상지로서 백제(십제) 개국공신이자 천안전씨의 도시조인 환성군 전섭(全攝)의 묘단(墓壇)과 제실이 있다. 전민은 현재 회룡리에 거주하는 후손 58세(世) 전해옥(全海玉, 일명 영홍泳弘, 89세)의 17대조이다.

전민의 고조는 고려 후기에 문과 급제 후 상의도감사(商議都監事)를 지낸 전신(全信, 1276~1339)이고 증조는 사의서승을 지낸 전성안(全成安)이며 조부는 조선 태종 때 문과에 급제하고 선부전서에 오른 전덕방(全德芳)이다. 아버지는 진도군수를 지낸 전근(全謹)이고 어머니는 제주고씨(濟州高氏)로 부사 고선(高堧)의 딸이다.

전민은 호(皓), 교(皎), 민(敏) 등 3남 중 셋째아들이다. 생원으로서 연산현감(連山縣監)을 지냈기 때문에 후손들은 그를 '연산공(連山公)'으로 칭하며 그는 연산공파의 파조가 된다. 부인은 광산김씨(光

山金氏)이며 계흠(季欽)과 계우(季友) 두 아들을 두었다.

큰아들 전계흠은 문과를 거쳐 승헌랑으로 공주판관을 지냈으며 전계흠의 외아들 희(禧)는 무관으로 사정(司正)을 역임했다. 전희는 오륜(五倫), 오상(五常), 오기(五紀), 오행(五行) 등 네 아들을 두었다. 둘째 전계우는 부사정을 지냈으며 아들 간손(幹孫, ?~1507)은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벼슬에 나가지 않고 은일로 지냈다.

전민의 묘는 배방읍 회룡리 배방산 남쪽 기슭 종종 묘역에 있었으나 실전되어 단을 만들어 모셨고 그의 아들 공주판관 전계흠의 묘도 근처에 있다. 전민의 후손들은 회룡리를 중심으로 하여 배방읍 각지와 탕정면 일대, 온양, 천안 등 각지에 널리 퍼져 살고 있다.



-전민의 아들 공주판관 전계흠의 묘-

[129] 동래정씨 정걸선 | 鄭傑先 <1667년(현종8년)~1750년(영조26년)>

조선 후기의 인물로 동래정씨(東萊鄭氏) 22세이며 문익공파(文翼公派) 아산시 지역, 실옥동 시루골 입향조이다. 선대는 오랜 동안 경기도 화성시 지역에 거주하였고 여러 대의 묘소가 반월면 속달리, 현재 군포시 지역에 있다. 현재 시루골에 거주하는 32세(世) 정인환(鄭寅煥, 78세)씨의 10대조이다.



정결선은 조선 중종 때 영의정을 지내고 중종의 묘정에 배향된 문익공(文翼公) 정광필(鄭光弼, 1462~1538)의 7세손이다. 적성현감을 역임한 정혜연(鄭蕙衍, 1562~1635)의 현손이고 사과(司果)를 지낸 정시일(鄭時一)의 증손이며 충의위(忠義尉)에 재임했던 정진화(鄭晉和)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1666년(현종7년) 무과에 급제한 뒤 감찰에 오른 정재제(鄭載濟, 1640~1694)이고 어머니는 전주 이씨(全州李氏)로 현감 이인한(李燐漢)의 딸이다.

그는 학선(學先), 득선(得先), 결선(結先) 삼형제 중 셋째아들이며 초명은 한결(漢傑)이었다. 부인은 나주주씨(羅州朱氏)이다.

정결선이 언제 왜 이곳에 와서 자리 잡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의 7대조인 문익공 정광필이 기묘사화 때 온양에 귀양을 왔었다는 집안의 구전이 있지만 직접적 관련성은 없다. 형들이 고향 지역에 거주했던 것으로 보아 혼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나주주씨의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시기는 대략 300여 년 전으로 본다.

그는 외아들 석조(錫祚)를 두었고 정석조 역시 외아들 태순(泰淳)만을 두었다. 정태순이 아들 둘을 낳은 뒤부터 점차 후손들이 늘어나 번창하였다. 실옥동 일대를 중심으로 하여 온양시내 일원에 널리 퍼지고 공주와 예산 등지로 이주하기도 하였다.

그의 묘소는 염치읍 염성리에 있으며 다른 후손들의 묘는 대부분 송악면 동화리 종산에 있다.



-정결선의 묘와 묘비-

[130] 해주정씨 정순인 | 鄭淳仁 〈?~?〉, 정일인 | 鄭日仁 〈?~?〉 형제

해주정씨(海州鄭氏) 행촌공파(杏村公派) 6세이며 해주면 관암리 입향조이다. 아버지는 정광한(鄭廣漢)이고 어머니는 안동권씨(安東權氏)로 권선(權善)의 딸이다. 순인(淳仁)과 일인(日仁)은 형제이다.

큰아들 정순인의 초휘는 원인(元仁) 자(字)는 춘여(春汝)이다. 부인은 평산신씨(平山申氏) 신의동(申義同)의 딸과 초계주씨(草溪周氏) 주운계(周運繼)의 딸이다. 묘는 염치면 산양리에서 해주면 관암리 남골묘로 모셨다.

둘째아들 정일인의 부인은 강진(康津) 이씨(李氏)이다. 묘는 해주면 냉정리에서 관암리 남골묘로 모셨다.

정순인과 정일인 형제는 본래 천안 직산에서 살았으나 어머니 안동권씨를 따라 해주면 관암리로 오게 되었다. 관암리는 어머니 권씨의 친정이다. 제사는 한식 차례로 올린다.

[131] 나주정씨 정도성 | 丁道聖 〈?~?〉

조선 후기의 인물로 압해정씨(押海丁氏=나주정씨) 19세이며 대사헌공파 아산시 지역, 선장면 돈포리 입향조이다. 현재 선장면 군덕리에 살고 있는 29세(世) 정해곤(丁海坤, 53세)의 10대조이다. 선대는 경기도 고양 지역에서 살았다.

그의 고조는 사마시와 문과에 급제하고 충청감사를 지냈으며 원종공신 1등에 책훈된 증이조참판 정윤우(丁允祐, 본명은胤祐, 1539~1605)이다. 증조는 진사 정호겸(丁好謙)이고 조부는 정언득(丁彦得)이다. 아버지는 정시춘(丁時春)이고 어머니는 결성장씨(結城張氏)와 언양김씨(彦陽金氏) 김강(金崗)의 딸이다.

정도성은 1650~1660년경에 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자는 여분(汝賁)이고 부인은 서흥유씨(瑞興柳氏)로 유수온(柳守溫)의 딸이다. 그가 언제 왜 선장으로 왔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없이 간척사업과 관련이 있을까 추정해보는 정도이다. 시기는 대략 320년 전으로 추정한다.

그는 외아들 주신(周愼, 1685~?)을 두었고 정주신도 외아들 지대(志大, 1709~?)만을 낳았다. 정지대가 위옥(渭沃)과 위청(渭淸) 두 아들을 두었고 그들이 다시 아들 둘씩을 두면서 이후 후손이 늘어나



변창하게 되었다. 선장에 살던 그의 7세손 정건섭(丁建燮, 일명 정태영丁泰榮)과 8세손 정규희(丁奎熙, 일명 정수길丁壽吉)가 동학혁명과 항일민족운동에 참여하여 이름을 남겼다. 후손들은 주로 선장 일대에 퍼져 살고 있다.

정도성과 그 후손의 묘는 주로 도고면 신언리 노래골에 있었으나 그의 묘를 포함하여 여러 묘는 화장을 해서 정리했다.

[132] 온양정씨 정보천 | 鄭普天 〈 ? ~ ? 〉

온양정씨의 시조는 고려 중기에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 호부상서(戶部尙書)를 지냈다고 전해지는 정희공(貞僖公, 貞禧公) 정보천(鄭普天)이다. 집안에서는 그를 아산시 지역 입향조로 보고 있다.

그의 선계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진다. 첫째는 후삼국 통일전쟁 시기의 이야기이다. 고려 태조 왕건이 유금필(庾黔弼) 장군에게 명하여 탕정군(湯井郡-온양)에 성(북부성-배방산성)을 쌓을 때 온양 지역의 토착 호족이었던 정보천의 선조가 감독을 맡아 성을 잘 쌓은 공으로 호장(戶長) 벼슬을 주고 이후 자손이 대대로 온양(온수)의 호장을 맡도록 한 것이 온양정씨의 시초라고 본다. 두 번째는 온양정씨가 경주정씨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것이다. 경주정씨의 도시조(都始祖)는 진지부(珍支部) 촌장 지백호(智伯虎)이다. 정보천은 지백호의 34세손이며 신라 하대의 장군으로 장보고와 함께 활약한 정년(鄭年, 連)의 7세손이라고 한다.

집안에 전하는 바에 따르면 정보천은 상향(桑鄉-桑梓之鄉-조상들의 묘가 있는 곳)에서 즐겼다고 한다. 묘소는 온양군 남면 백악동(白岳洞-현재의 송악면 동화2리 배골)에 있었으나 세월이 흘러 실전되었다. 또한 고려 말 이후 여러 차례의 전란으로 문서들이 소실되어 자세한 내력을 알 수 없다고 한다. 1947년에 온양 읍내리(온주동)에 단을 세워 제향을 올리다가 1973년에 영인면 월선리에 모신사를 짓고 정보천부터 11세(世) 소윤공(少尹公) 정순우(鄭淳祐)까지 함께 모시고 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후손들의 직계 선조로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인물 중에는 선무랑 정수(鄭穗)와 이조정랑 정충근(鄭忠根)이 있다.

정수(鄭穗, ?~?)는 조선초기의 인물로 온양정씨 13세(世)이며 소윤공파 중 삼등공파(三登公派) 온양 신인동 전의실로 낙향하였다. 증조부는 정년(鄭年), 조부는 소윤공 정순우이다. 아버지는 삼등현령과 보문각학사를 역임한 정득진(鄭得珍)이다. 집안의 기록에는 정득진이 두문동 사건 때 순절하였

다고 하며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어머니는 창원공씨(昌原孔氏)로 증랑장 공백(孔伯)의 딸이다.

정수는 아버지가 순절한 뒤 온양으로 내려 온 것으로 추정된다. 600여 년 전의 일이다. 묘는 신인동 전의실에 있다. 부인은 청주경씨(淸州慶氏)이며 숭무(崇武)를 계자로 들였다. 정승무는 계공랑으로 도사(都事)를 지냈으며 부인 창원황씨(昌原黃氏) 사이에 한수(漢壽), 한근(漢謹), 한계(漢桂) 등 세 아들을 두어 후손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정충근(鄭忠根)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온양정씨 14세이며 소윤공파 아산시 영인면 월선리에 낙향한 인물이다. 소윤공(少尹公) 정순우(鄭淳祐)의 증손이고 판선공감사 정득량(鄭得良)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고성군사(高城郡事)를 지낸 정포(鄭袍)이며 어머니는 안동권씨(安東權氏)로 소윤 권추(權鍾)의 딸이다.

충근(忠根), 충본(忠本), 충기(忠基), 충간(忠幹) 등 4형제의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관직이 이조정랑에 올랐으므로 '정랑공'으로 칭하며 정랑공파의 파조가 된다. 그가 어떤 이유로 월선리에 들어와 자리 잡았는지 구체적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시기는 대략 550년 전의 일로 추정한다.

부인은 청주한씨(淸州韓氏)로 도사 한암(韓巖)의 딸이다. 석(錫), 종(鍾), 건(鍵) 등 세 아들을 두었으며 정석은 의종(義宗)과 예종(禮宗)을 낳았으니 이들이 진사공파와 수사공파의 파조가 된다. 정종은 인조(仁祖)와 순조(純祖)를 두어 이들 또한 금위공파와 통정공파의 파조가 되었다. 정충근의 묘소는 영인면 월선리 선영에 있다. 현재 아산시 일대와 천안시 지역에 정랑공 정충근의 후손이 주로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태안과 서울 일대에도 많이 살고 있다.



-온양정씨 재실-



- 정충근의 묘 -



[133] 양주조씨 조계신 | 趙季神 <?~?>

조선 전기의 문신이며 양주조씨(楊州趙氏) 8세(世)로 문강공파 중 참교공파 아산시 지역, 배방읍 장재리 입향조이다.

그는 조선 초의 문신으로 문과에 급제하고 승록대부 영중추원사(종1품)을 지낸 문강공(文剛公) 조말생(趙末生, 1370~1447)의 현손이며 문과를 거쳐 강원도관찰사와 첨지중추원사를 역임한 조근(趙瑾)의 증손이고 학문에도 뛰어나고 역시 문과 급제 후 승문원 참교(종3품)에 오른 조중휘(趙仲輝)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종사랑 조광유(趙光裕, ?~?)이고 어머니는 언양김씨(彦陽金氏)로 주부 김중행(金仲行)의 딸이다.

조계신은 계웅(季雄), 계신(季神), 계령(季靈) 3형제 중 차남이다. 자는 자룡(子龍)이며 관직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나 집안에서는 사직공(司直公, 또는 사직부군)으로 칭한다. 부인은 경주설씨(慶州契氏)이며 설순보(契舜輔)의 딸이다. 배방읍 세교리에 있는 경주설씨 집안, 즉 처가의 산에 조계신의 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혼인을 계기로 장재리 연화동 지역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하였다. 대략 480년 전의 일이다. 현재 후손이 없어서 정확한 사항은 파악되지 않지만 수 십 년 전까지는 장재1,2리에 경주설씨 후손이 몇 가구 살았다고 한다. 묘는 고속철도 공사로 인해 원위치에서 100여 미터 위로 옮겨 모셨다.

그는 아들이 없어서 형 조계웅의 둘째아들 조눌(趙訥, 1528~1605)을 계자로 맞아 들였다. 증손자 조이후(趙爾後)가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종2품)에 올라 사복시정에 증직된 조눌은 지유(之柔)와 지강(之剛) 형제를 두었다. 둘째 지강은 고양 벽제에 살던 조계웅(조계신의 형)의 큰 아들 조인(趙訥)의 계자로 들어갔으나 지강과 그의 후손이 주로 온양과 천안 유량동 일대에 거주하였다. 조지유는 부사과를 지냈고 좌승지에 증직되었으며 상요(相堯), 상순(相舜), 상우(相禹) 등 3남을 두었다.

그중 셋째인 시암(時菴) 조상우(趙相禹, 1582~1657)는 예학과 의리에 밝았던 학자로서 당대의 학자들인 잠야 박지계(朴知誠), 포저 조익(趙翼), 동춘당 송준길(宋浚吉), 신독재 김집(金集), 후천 황종해(黃宗海) 등과 강론하며 교유했다. 또한 1634년(인조12년)에 배방읍 중리에 정암(靜庵) 조광조와 퇴계(退溪) 이황을 배향하는 정퇴서원(靜退書院)을 세우는 일을 주도하였다. 또한 지극한 효행의 본을 보였으므로 효종 때 학행으로 천거되어 제릉참봉(齊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였다. 현종의 1665년 온행(溫幸) 때 아들 이숙(爾翮)과 함께 효자 정려가 내려졌으며 1670년(현종11)에 정퇴서원에 추향되고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문집 《시암집(時庵集)》7권을 남기기도 하였다.

조상우의 부인은 진주강씨(晉州姜氏)이며 첨지중추부사 죽창 강주(姜籀)의 큰딸이다. 이후(爾後), 이



중(爾重), 이숙(爾翹), 이소(爾昭), 이병(爾炳), 이한(爾翰) 등 6남 2녀를 두어 모두 학문과 효행, 관직 등에서 집안의 이름을 알렸다.



- 조계신의 묘 -



- 현손 조이후의 묘 -

[134] 창녕조씨 조병심 | 曹秉心 <1815년(순조15년)~1897년(광무1년)>

조선 말기의 학자로 창녕조씨(昌寧曹氏) 40세이며 창녕부원군과 아산시 지역, 인주면 공세리 지역 입향조이다. 현재 선장면 선창리에 거주하는 44세(世) 조영필(曹永弼, 74세)씨의 고조부이다. 선대는 오랜 동안 천안 병천에 거주해왔으며 경기도 여주에서 몇 대를 이어오다 공세리로 들어오게 되었다. 대략 150년 전의 일로 본다.

조병심의 고조는 영조 때 생진과에 급제하고 산청현감, 진주진관병마절제도위 등을 지낸 통훈대부 조윤적(曹允迪)이고 증조는 정조 때 생원시에 급제한 뒤 목사와 도정(都正)에 오른 통훈대부 조휘진(曹翬振)이며 조부는 조석연(曹錫衍)이다. 아버지는 조억승(曹億承, 1792~1848)이며 어머니는 의령 남씨 남건심(南建心)의 딸과 전주이씨 이종기(李鍾基)의 딸인데 누가 생모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는 1남1녀 외아들로 태어났으며 자는 완일(完逸)이다. 부인은 용인이씨로 주부(主簿) 이재양(李在陽)의 딸이다. 집안에 전하는 바에 따르면 훈도(訓導)를 하기 위해 공세리로 들어왔다고 한다.

조병심은 자녀가 없어서 먼 친척(생부 曹秉華)에게서 궁환(肯煥, 1841~?)을 계자로 들였다. 조궁환



은 고종11년(1874)의 생원시에 급제하였으며 부인은 해주오씨로 오경필(吳慶弼)의 딸이다. 조공환은 규택(圭澤)과 규익(圭益) 등 아들 둘을 두었다. 조규택은 3남을 두었으며 인주 공세리와 도흥리 일대에 후손들이 거주한다. 3남1녀를 둔 조규익은 선장면 선창리 큰선장에 와서 훈도(아마도 서당 훈장일 듯함)를 하게 되어 선장 일대에도 후손들이 퍼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일부는 천안 쪽으로 가기도 했다.

조병심은 인주 공세리에 살았으나 묘는 선대가 살았던 경기도 여주에 모셨으며 후손들은 인주와 선장 일대에 묘가 있다.

[135] 양주조씨 조영리 | 趙榮履 <1731년(영조7년)~1768년(영조4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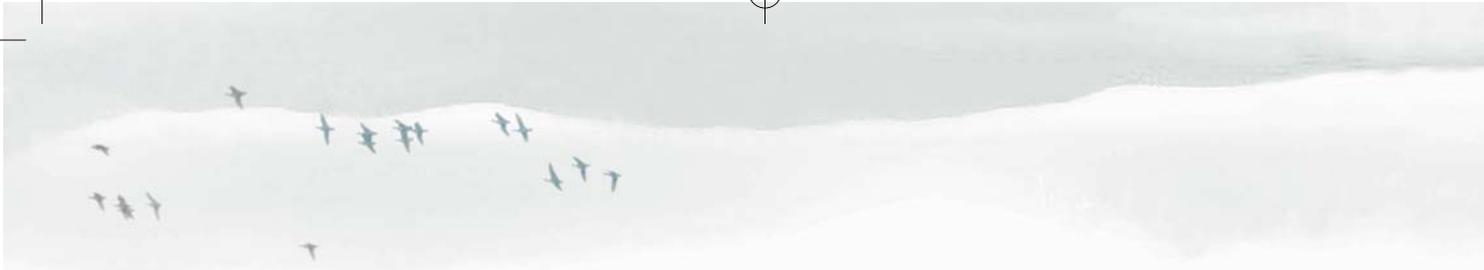
조선 후기의 인물로 양주조씨(楊洲趙氏) 16세이고 문강공파(文剛公派) 아산시 지역, 영인면 신봉리 입향조이다.

할아버지는 창성도호부사 겸 청북(淸北)좌방어사(左防禦使)를 지낸 조태겸(趙泰謙)이다. 아버지는 전라도(全羅道)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를 지낸 조국빈(趙國彬)이다. 어머니는 해남윤씨(海南尹氏)로 도사(都事) 윤정미의 딸이다.

조영리는 통덕랑(通德郎)에 올랐으며 부인은 전의이씨(全義李氏)이고 이항태(李恒泰)의 딸이다. 묘는 영인면 신봉리에 있다. 음력 10월13일에 제사를 지낸다.

한편, 조영리가 신봉리 섭골에 들어와 자리 잡은 뒤에 같은 집안인 양주조씨 18세 조택진(趙宅鎭, 1749~1802)이 들어왔다. 조택진의 아버지는 통덕랑을 지낸 조한달(趙漢達)이며 어머니는 예안이씨(禮安李氏)이고 군수를 지낸 이도병(李道柄)의 딸이다.

조택진은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와 선전관 등을 하였다. 부인은 덕수이씨(德水李氏)와 달성 서씨(達城徐氏)이다. 그의 묘는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에 있고 부인의 묘는 둔포면 봉재리(오리골)에 있다.



[136] 풍양조씨 조익 | 趙翼 <1579년(선조12년)~1655년(효종6년)>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이고 풍양조씨(豐壤趙氏) 증시조 평장사공 조신혁(趙臣赫)으로부터 10세(世)이며 아산시 지역, 도고면 도산리의 입향조이다. 현재 초사동에 거주하고 있는 후손 20세(世) 조명재(趙明載, 72세)씨의 10대조이다.

동지중추부사 조현범(趙賢範)의 현손, 한풍군(漢豐君) 조안국(趙安國)의 증손, 현령 조간(趙侃)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선공감 첨정 등을 지내고 첨지중추부사에 오른 조영중(趙瑩中)이며 어머니는 해평 윤씨(海平尹氏)로 아산현감을 지낸 윤춘수(尹春壽)의 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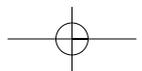
그는 경기도 광주가 고향이고 서울에서 출생했다. 자는 비경(飛卿)이고 호는 포저(浦渚)·존재(存齋)다. 퇴계의 제자인 윤근수(尹根壽)의 문인이 되었으며, 제자백가와 복서 등을 널리 공부했다. 부인은 성주현씨(星州玄氏)로 무과 급제 후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우고 현감을 지낸 현덕량(玄德良)의 딸이다.

임진왜란 중에 음식으로 정포만호(井浦萬戶)가 되고 1602년 문과급제 후 삼사의 여러 관직을 거쳤다. 1611년(광해군 3)에 김굉필·조광조·이언적·정여창 등의 문묘종사를 주장하다가 정인홍(鄭仁弘) 등의 반대로 좌천되어 고산도찰방 등 외직에 나갔으나 곧 사직하고 고향 광주로 내려갔다.

1618년(광해군10)에 인목대비가 유폐되고 영창대군이 사사되자 처가가 있는 신창현(도고면 도산리)로 들어와서 5년여 동안 은거하며 학문에만 전념했다. 그는 이때와 이후 1637년부터 1648년까지 이곳에 머물면서 신창에 살고 있던 권득기(權得己)와 박지계(朴知誠) 그리고 온양의 조상우(趙相禹) 등과 교유하고 강론하는 한편, 여러 제자들을 배출하여 우리 고장의 학문 발달에 크게 기여했다.

1623년 인조반정 후 다시 출사하였고 대동법의 충청도 실시에 기여했다. 1631년에 모친상을 당해 3년간 시모를 한 뒤 대사헌 등 여러 관직을 역임했다. 예조판서로 있던 1636년의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에서 실종된 아버지를 찾느라고 왕을 호종하지 못해 삭직·유배되었으나 효성에서 비롯된 일이고 뒤에 패잔병을 모아 적과 싸우며 남한산성으로 들어가고자 했음이 밝혀져 풀려난 뒤 신창으로 돌아왔다. 이후 이조판서 등에 제수되었으나 아버지 봉양을 이유로 모두 사양했다. 아버지의 삼년상 뒤 여러 관직을 거쳐 중추부영사를 지내다가 1655년(효종 6)에 광주에서 77세로 졸했다. 문효(文孝)라는 시호가 내려졌고 묘는 예산 신양리에 있다.

그는 성리학에 정통했고 특히 예학에 밝았으며 《포저집(浦渚集)》을 남겼다. 개성 송양서원, 광주(廣州) 명고서원, 그리고 그를 모시기 위해 1670년에 세운 신창(도고면 도산리)의 도산서원(道山書院)에





배향되었다. 도산서원은 흥선대원군 때(1871년) 철폐되었는데 풍양조씨 문중에서 지난 2006년에 그의 묘가 있는 예산군 신양면 신양리 종산에 이전·복원하였다.

조익은 몽양(夢陽), 진양(進陽), 복양(復陽), 내양(來陽), 현양(顯陽) 등 다섯 아들, 이른바 '5양'을 두었다. 흥산현감을 지낸 조몽양은 예산 신양, 단양군수를 지낸 조진양은 단양과 서울, 대제학에 오른 문간공(文簡公) 조복양은 포천과 논산과 수원, 생원 조현양은 수원 지역으로 후손들이 이어졌다.

넷째아들인 조내양은 도고산 아래에 살았기 때문에 호가 도산(道山)이다. 1633년(인조 11년)에 생진과에 급제했으나 병자호란으로 강화가 성립되자 도고에 내려와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그러나 38세의 젊은 나이에 아깝게 세상을 떴으며 뒤에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부인은 연안(延安) 이씨(李)로 좌의정 시백(時白)의 딸이며 외아들 지현(持憲)만을 두었고 조지현은 명인(命仁), 명형(命亨), 명정(命禎), 명재(命才) 등 네 아들을 두었다. 이 중 조명인은 수원 쪽으로 가고 셋째 조명정은 당숙(조복양의 아들 조지겸)의 계자로 갔다. 둘째 조명형과 넷째 조명재는 온양에 자리 잡았다. 조명형은 아들이 없어서 사후에 조명재의 둘째 아들 한숙(漢淑)이 계자로 갔으니 온양 지역의 풍양조씨는 실질적으로 조명재의 후손이 되는 셈이다.

조명재(1677~1732)는 통덕랑에 올랐으며 파평윤씨 진사 윤기(尹耆)의 딸 사이에 한식(漢寔), 한숙(漢淑), 한철(漢哲), 한덕(漢德), 한일(漢逸), 한길(漢吉) 등 6남을 낳았다. 조한식은 일찍 죽고 조한덕은 일찍 대가 끊어졌으며 조한일 쪽은 논산 지역을 거쳐 대전과 서울 지역으로 퍼졌다. 조한숙과 조한길의 후손이 주로 온양 초사동 지역과 송악 일대에 자리 잡고 번창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 풍양조씨 재실과 납골묘 -

[137] 신안주씨 주이환 | 朱离焕 <?~?>

조선 말기의 인물로 신안주씨(新安朱氏) 25세(世)이며 아산시 지역, 송악면 유곡리 입향조이다. 그의 선대는 예산 봉산면 일대에 거주해왔다. 현재 유곡리에 거주하는 주영석(朱榮錫, 67세)씨의 고조이다.

주이환의 증조는 주휘성(朱輝成), 조부는 주도흥(朱道興)이다. 아버지는 주태용(朱泰龍)이며 어머니는 경주김씨(慶州金氏)이다. 외아들로 태어났으며 혼인을 계기로 송악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였다. 약 160년 전이다.

주이환의 다른 이름은 우명(禹明)이다. 부인은 경주이씨(慶州李氏)이다. 윤덕(潤德, 1850~?), 봉덕(奉德, 1852~?), 기덕(起德, 1867~1922) 등 세 아들을 두었고 이후에 여러 자손이 유곡리 일대에 뿌리를 내리기로 살고 있다. 그의 묘는 마을 남쪽 송학리 산중턱에 있다.



-주이환(일명 우명)의 묘-

[138] 충주지씨 지정광 | 池廷光 <?~?>

충주지씨(忠州池氏) 29세이며 충성군파(忠城君派) 인주면 금성리 입향조이다.

지정광의 고조는 충성군(忠城君) 지계최(池繼崔)이다. 지계최는 이괄의 난 때 안현(鞍峴)에서 크게



전공을 세워 진무공신(振武功臣) 3등과 충성군에 봉해지고 한성판윤에 추증되었다. 아버지는 지수연(池水連)이고 어머니는 동래정씨(東萊鄭氏)이며 진사(進士) 정기형(鄭基亨)의 딸이다.

지정광의 초휘(初諱)는 정경(廷景)이고 부인은 경주김씨이다.

그가 충북 충주에서 무슨 연유로 인주면 금성리로 이주하였는지는 잘 모른다. 후손 통덕랑 지응청(池應淸)의 처 해남윤씨의 열녀 정려가 있고 증가선대부 호조참판 겸 의금부사 지한문(池漢文)의 처 경주최씨(慶州崔氏)의 효부 정려가 있으며, 지석범(池錫範)의 자선비가 인주면 금성리에 있다. 지씨 종중에서 금성리 마을에 대지 300평을 희사하여 보건소와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데 기여하여 금성리 마을 주민들이 충주지씨 종중 공헌비(碑)를 마을회관 앞에 세웠다. 서기 2000년 금성리 구룡동에 영모재를 건립하여 지정광 이하 5대까지 모셨고 음력 10월10일에 제사를 올린다.



-효부 경주최씨 정려와 열녀 해남윤씨 정려-



- 지석범 자선불망비각 -

[139] 여양진씨 진한호 | 陳漢豪 <1679년(숙종5년)~1717(숙종43년)>

조선 후기 인물이며 여양진씨(驪陽陳氏) 17세(世)이고 매호공파 아산시 지역, 선장면 대정리 입향조이다. 여양진씨의 발상지인 여양(驪陽)은 홍성군 장곡면 지역인데 진한호의 선대는 경기도 용인과 안성 지역에 거주하였다. 그가 선장으로 들어온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대략 300년 전으로 본다. 현재 마을에 살고 있는 23세(世) 선장면 대정리에 살고 있는 진병무(79세)씨로 보면 6대조이다. (6대

차이로 보면 300년은 너무 길다.)

여양진씨 대동보에 따르면 그의 고조부는 사직을 지낸 진우신(陳又新), 증조부는 증자현대부 진유(陳維), 조부는 통덕랑 진홍립(陳弘立)이다. 아버지는 진하(陳夏, 1627~1657)이고 어머니는 광산김씨(光山金氏, 1633~1694)이다. 아버지의 졸년(卒年)과 그의 생년에 착오가 있다. 또한 그의 졸년과 그의 아들 진담(陳譚, 1727~1775)의 생년이 맞지 않는다. 족보에는 계자(系子)라는 기록이 없으니 의문이다. 확인할 방법이 없고 집안에서는 진한호가 처음 들어왔다고 전하고 있음을 참고할 뿐이다.

조선 후기에 농업이 발전하면서 선장면 일대의 갯벌을 간척하여 농토로 만들 때 그도 이 곳으로 들어와 터를 닦은 것으로 전해진다. 집안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선장 대정리 지역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여양진씨 집안이라고 한다.

진한호의 부인은 청주이씨(淸州李氏)이며 외아들 담(譚)을 두었다. 진한호의 묘는 도고면 도고산 줄기에 있다고 전해지나 현재 찾을 수 없다. 족보에 진담은 환(煥), 옥(燠), 구건(九乾), 구범(九範), 구석(九錫), 구원(九元), 구호(九昊), 의원(儀元) 등의 아들을 둔 것으로 되어 있다. 어쨌든 이후 여양진씨가 선장을 중심으로 도고, 신창 지역 각지에 퍼지게 되었다.

[140] 연안차씨 차유명 | 車有明 <1654년(효종5년) ~ ? >

조선 후기의 인물로 연안차씨(延安車氏) 31세이며 오산공파(五山公派) 아산시 지역, 신창면 신달리 입향조이다. 현재 영인면 신운리에 살고 있는 후손 42세(世) 차준기(車濬基, 73세)씨의 11대조이다.

고조는 문과에 두 차례 급제하고 봉상시 첨정을 지냈으며 시문에 뛰어나 ‘송도삼절(松都三絶)’, ‘동방문사(東方文士)’로 일컬어졌던 차천로(車天輅, 1556~1615)이다. 차천로의 호는 오산(五山)으로 오산공파의 파조가 되며 ‘아산팔문장(牙山八文章)’에 들어 있으나 아산과의 관련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증조는 문과급제 후 양산군수 등을 지낸 차전곤(車轉坤, 1586~?)이고 조부는 진사 차후재(車後載, 1604~1676)이다. 아버지는 차세장(車世章, ?~?)이고 어머니는 전주이씨로 사과(司果) 이응식(李膺植)의 딸이다.

차유명은 삼남 중 둘째아들로 태어났으며 자는 선지(善之)이다. 부인은 한양조씨(漢陽趙氏)이다. 그가 언제 어떤 사유로 신창으로 들어왔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시기는 대략 330년 전으로 추정한다. 묘는 곡교천 건너인 인주면 냉정리 악항(岳項)에 있다.



그는 언제(諺制), 언정(諺正), 언호(諺浩), 언업(諺業) 등 네 아들을 두었다. 이들은 주로 신창면 신달리를 중심으로 거주하였으며 손이 많지 않은 편이었다. 후손들의 묘도 인주면 냉정리와 대음리 일대에 있었는데 지난 2007년에 냉정리 악항에 납골묘를 조성하고 광문사(光文祠)라는 사당을 세웠다.

현재 후손들은 신창면 신달리와 남성리, 영인면 신운리, 인주면 밀두리와 대음리, 둔포면, 천안 성환 등지에서 살아오고 있다.



- 연안차씨 재실과 차유명의 묘 -

[141] 평강채씨 채봉장 | 蔡鳳章 <1654년(효종5년)~1729년(영조5년)>

조선 후기의 인물이며 평강채씨(平康蔡氏) 17세(世)로 소감공파(少監公派) 아산시 염치읍 대동리 입향조이다. 선대는 주로 경기도 양주에 거주하였다. 현재 염치읍 대동리 황골 마을에 거주하는 후손 28세(世) 채희운(蔡熙允, 80세)씨의 11대조이다.

그는 선교랑 채충익(蔡忠益)의 증손이고 진사로 통진현감을 지낸 채영후(蔡榮後)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진사시에 급제하고 문장이 뛰어나 시집을 남겼으며 통정대부로 추증된 채시경(蔡時鏡)이다. 어머니는 전주이씨로 이인(李寅)의 딸이며 6남4녀를 두었다.

채봉장은 셋째아들로 자는 자의(子儀)이다. 부인은 담양전씨(潭陽田氏)로 전기윤(田起尹)의 딸이다. 응복(膺福), 응록(膺祿), 응정(膺禎), 응상(膺祥), 응희(膺禧) 등 5남1녀를 두었다.

그가 언제 어떤 사유로 아산으로 들어왔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그의 셋째아들인 채응정

이 처음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사마방목(司馬榜目)》에는 장남인 채응복이 25세 때 합격한 숙종25년(1699)의 생원진사시 때 거주지가 아산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채응복이 장남이라는 점, 아우들도 둘이 더 들어왔던 점 등으로 보아 아버지인 채봉장 때 들어온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사유는 불명확하나 어떤 사정으로 인해 근거지였던 경기도 양주를 떠나게 되었다. 아버지 채시경의 묘는 경기도 양평에 있다. 채봉장은 아들의 혼인을 계기로 아산 지역으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신정아주지에는 그가 홍성 결성(結城)에서 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장남 채응복과 삼남 채응정이 모두 안산김씨 집안의 딸과 혼인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채응복의 부인은 안산김씨(安山金氏) 동지중추부사 김시환(金始煥)의 딸이다. 김시환은 안산김씨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지역 입향조인 모기재(慕箕齋) 김필(金玘)의 5세손이다.

큰아들 채응복(1675~1744)은 문과급제 후 외직을 거쳐 세자시강원 보덕과 사헌부 집의를 역임하였다. 후손들은 ‘보덕공’으로 칭한다. 부인 안산김씨 사이에 3남을 두었고 후손들이 천안 풍세면 삼태리 인근에 자리 잡았다.

둘째아들 채응록과 후손들은 천안 백석동을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셋째아들 채응정(1685~1754)은 염치읍 대동리 황골 마을에 자리 잡았다. 부인 안산김씨 김두찬(金斗燦)의 딸 사이에 광하(匡夏), 성하(成夏), 정하(廷夏) 등 아들 셋을 두었다. 이 중 채정하는 문과급제 후 호조참판 등을 거쳐 지돈녕부사에 오르고 기로소에 들어 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아버지인 채응정도 자헌대부 호조판서에 증직되었다. 아산시 지역은 주로 셋째아들 채응정의 후손이 중심이 되어 이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넷째아들 채응상은 천안 지역에 터를 닦았다. 아들 위하(緯夏)가 문과에 급제하였다.



-후손 채동교 효자 정려와 현판-



다섯째아들 채응희는 아산에 자리를 잡았지만 얼마 뒤에 손이 끊어졌다.

채봉장의 묘는 천안 풍세면 삼태리에 있으며, 셋째아들 채응정의 묘는 탕정 명암리에 있었으나 산 입단지 개발로 아버지의 묘가 있는 곳으로 이장하였다. 채봉장의 5세손 채동교에게 효자정려가 내려졌고 채관묵의 효자기적비가 세워지는 등 효행과 학문의 가풍이 있었다.

후손들은 아산시 지역에서는 염치 대동리 황골, 음봉 덕지리, 선장 죽산리를 중심으로 하여 온양 시내 및 인근 곳곳에 퍼져 살고 있으며 천안 풍세, 목천, 백석동 등과 공주 지역에도 확산되어 퍼져 있다.

[142] 영양천씨 천신조 | 千愼祚 <?~?>

조선 후기의 인물로 영양천씨(潁陽千氏) 5세이며 정랑공파 아산시 지역, 온양 판교리(현재 용화동) 입향조이다. 선대는 주로 함경북도 명천군 일대에 살았다. 송악면 궁평리에 거주하는 18세(世) 천경석(千慶錫)의 13대조이다.

그는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조병영양사 겸 총독장(總督將)으로 조선에 와서 공을 세운 뒤 귀화한 중시조 화산군(花山君) 천만리(千萬里, 1543~?)의 현손이다. 한성부좌윤 천상(千祥)의 증손이고 호조 정랑을 지낸 천태주(千泰疇)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천광진(千光旻, 일명 흥보(興甫)이고 어머니는 경주이씨(慶州李氏)로 이의경(李義敬)의 딸이다.

천신조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고 후에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추증되었다. 그가 언제 왜 온양으로



-천신조의 묘와 후손들의 제단-

들어왔는지 명확한 내력은 알 수 없다. 다만 명에서 귀화한 후손으로서 병자호란(1636) 이후 남쪽으로 이주하게 되어 아버지 대에는 충북 진천에서 한동안 살았다. 그 후 어느 시기엔가 그가 아버지를 모시고 온양에 와서 정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략 350년 전으로 추정한다. 천신조와 아버지 천광진의 묘는 온양 범곡동 능미에 있었으나 2004년에 도고면 석당리로 이전했다.

천신조의 부인은 청풍김씨(淸風金氏)이다. 외아들 무일(茂逸)을 두었다. 지금까지 후손이 이어지면서 영양천씨 온양파(溫陽派)가 형성되었다. 자손이 많지 않은 편이며 오랜 동안 용화동 일대에 거주하다가 일제 강점기에 실옥리 시루골로 이주하였다. 후손들은 실옥동을 중심으로 하여 온천동, 송악, 염치, 인천, 서울 등지에 살고 있다.

[143] 해주최씨 최덕계 | 崔德溪 <?~?>

조선 중기의 인물로 강화최씨(江華崔氏) 14세이며 제정공파(齊貞公派) 아산시 지역, 도고면 덕암리 입향조이다. 현재 덕암리에 거주하는 21세(世) 최낙준(71세)씨의 7대조이다. 선대는 안성 일죽면 지역에 살았다.

최덕계는 조선 초에 형조판서를 지낸 파조 제정공(齊貞公) 최용소(崔龍蘇, ?~1422)의 5세손이다. 고조는 군기시 부정을 지낸 최세창(崔世昌), 증조는 종부시 첨정을 역임한 최복해(崔福海), 조부는 아산현감을 지냈으며 1457년(세조3년)에 원종공신(原種功臣) 3등으로 녹훈(錄勳)된 최연년(崔延年)이다. 아버지는 종사랑 최황(崔滉)이며 어머니는 죽산안씨(竹山安氏)이다.

그는 덕혼(德渾), 덕렴(德濂), 덕계(德溪) 등 3남3녀 중 셋째아들이며 자는 사도(師道)이다. 사마시를 거쳐 정릉(靖陵)참봉을 지냈다. 부인은 안동권씨(安東權氏)로 진사 권석순(權石淳)의 딸이다. 인근 마을에 안동권씨가 들어온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기 때문에 혼인과 관련된 것은 알 수 없다. 시기도 막연하게 1550년을 기준으로 약 460년 전의 일로 추정한다.

최덕계는 경린(慶麟), 서린(瑞麟), 상린(祥麟) 등 3남2녀를 두었다. 첫째 최경린은 부장(部將)을 지냈으며 후손이 영인과 수원 지역에 퍼졌다. 둘째 최서린도 전력부위로 부장을 역임했으며 후손이 가장 많고 도고 지역에 많이 거주하며 천안 목천과 원성동, 마산, 서울 영등포 지역 등에 널리 분포한다. 셋째 최상린은 부정(副正)을 지냈으며 후손의 일부가 도고에 있고 외지로 많이 이주하였다.

최덕계와 직계 후손 몇 대의 묘는 도고면 덕암리 흥제원 곁에 있다.



[144] 수성최씨 최병문 | 崔柄文 <1808년(순조8년)~1855년(철종6년)>

조선 말기의 인물로 수성최씨(隋城崔氏) 21세이며 수성군파(隋城君派) 영인면 신화리 입향조이다. 아버지는 경영(敬榮)이며 어머니는 단양우씨(丹陽禹氏)이다.

최병문의 자는 용여(庸汝)이고 부인은 문화유씨(文化柳氏) 유재식(柳在植)의 딸과 곡부공씨(曲埠孔氏) 공흥렬(孔興烈)의 딸이다.

묘는 음봉면 신정리 가족 묘지에 있다. 제사는 음력 10월 1일이고 후손은 영인면 신화리, 음봉면 신정리, 신창면 등지에 산다.

[145] 경주최씨 최승장 | 崔勝長 <? ~ ?>

조선 중기의 인물로 경주최씨(慶州崔氏) 19세이며 화숙공파(和淑公派) 아산시 지역, 신창면 신곡리 입향조이다. 선대는 경기도 고양 일대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현재 신창면 신곡리에 거주하는 31세(世) 최의순(崔義淳, 84세)씨의 12대조이다.

그는 무과 급제 후 장흥도호부사 등을 지냈으며 이시애의 난 때 공을 세운 공신 월은군(月恩君) 최형손(崔亨孫)의 5세손이다. 고조는 최한원(崔漢源, 일명 漢湖), 증조는 최준(崔濬), 조부는 침정 최귀세(崔貴世)이다. 아버지는 호군 최철견(崔鐵堅)이고 어머니는 경주김씨이다.

집안의 족보에는 석집(碩執)과 승장(勝長)이 형제이며 형 최석집의 묘가 염치읍 강청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확인되지 않고, 이들 형제는 물론 아들과 손자 대에도 돌림자가 일치하지 않으며 5대 이후 후손의 기록이 없다. 그러나 최승장은 현재 후손들이 입향조로 모시고 그의 후손들 묘가 함께 모여져 있어서 확실한 입향조라 할 수 있다.



-경주최씨 종중 묘역-

최승장은 자가 군성(君成)이며 족보에는 통정대부로 호군(護軍)을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1570년 경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용군 비슷하게 왔다고 하더라’는 이야기가 집안에 전한다. 의용군이라는 것은 의병을 말할 텐데 의병 활동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임진왜란 때 피난하면서 신창으로 들어왔을 것으로 본다. 배를 타고 아산만과 곡교천을 통해 들어왔을 것으로 본다. 대략 400여 년 전의 일이다.

부인은 김해김씨(金海金氏)로 김택화(金澤化)이다. 묘는 신창면 신곡리 사직동에 있으며 후손들의 묘도 그 아래 함께 있다.

그는 외아들 영호(榮豪)를 두었고 손자 희남(希男), 증손자 여민(汝敏)까지 독자로 이어지다가 최여민이 건태(乾泰)와 항태(恒泰) 두 아들을 둔 이후 점차 후손이 늘게 되었다. 현재 후손들은 신곡리 일대를 중심으로 신창 가내리, 염치 강청리, 인주 공세리, 온양, 예산 덕산과 봉산, 공주, 천안 등 각지에 널리 퍼져 살고 있다.

[146] 진양하씨 하선호 | 河善鎬〈? ~ ?〉

조선 후기의 인물로 진양하씨(晉陽河氏) 31세이며 사직공파(司直公派) 영인면 신운리 입향조이다.

아버지는 하청원(河淸元)이며 어머니는 천안전씨(天安全氏)이다. 하선호의 초휘(初諱)는 경선(慶善)이며 자(字)는 치서(致西)이다. 부인은 경주최씨(慶州崔氏)이다. 묘는 냉정리에 있다. 후손 중 하장홍은 신양금속 사장이며 아산장학회를 설립하여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선호가 당진 면천에서 영인면 신운리로 들어온 비슷한 시기에 하석호, 하화호, 하태길 등 진양하씨 일가들이 함께 들어왔다.

하석호(河錫鎬, ?~?)도 31세(世)로 자(字)는 치명(致明)이며, 부인은 밀양박씨(密陽朴氏) 박진흥(朴鎭興)의 딸이다. 아버지는 하재구(河在球)이며 어머니는 김해김씨이다. 하석호의 아들 하성구의 시혜 불망비(施惠不忘碑)가 영인면 신운리에 있다. 묘는 영인면 신봉리에 있다.

하화호(河華鎬, ?~?) 또한 31세(世)이며 자(字)는 경화(慶華)이고 부인은 전주이씨(全州李氏)이다. 생부가 하청원(河淸元)이며 하재순(河在順)의 계자가 되었다. 묘는 음봉면 신수리에 있다.

하태길(河泰吉, 1834~?)은 진양하씨 32세이며 아버지는 하경호(河慶鎬)이고 어머니는 경주이씨(慶州李氏)이다. 하태길의 자(字)는 여천(汝天)이며 부인은 여산송씨(礪山宋氏)이다. 하태길의 아들인



하충수(河忠秀)의 부인이 열녀(烈女) 경주배씨(慶州裴氏)이다. 하태길의 묘는 영인면 신운리에 있다.

이렇듯 진양하씨(진주하씨) 집안 여럿이 영인면 신운리로 함께 들어온 뒤 후손들이 번성하여 오늘날까지 아산의 각지에서 살고 있다.

[147] 청주한씨 한승이 | 韓昇履 (1797년(정조21년) ~ ?)

조선 후기의 인물로 청주한씨(淸州韓氏) 28세(世)이며 몽계공파(夢溪公派) 아산시 지역, 신창면 득산리(현재 득산동) 입향조이다. 선대는 천안에서 거주하였다. 송악면 유곡리에 현재 거주하는 한홍섭씨의 5대조이다.

고조부는 한영기(韓永基, 1663~?)이고 증조부는 한정곽(韓廷鑠)이며 조부는 한국윤(韓國潤)이다. 아버지는 한동수(韓東秀, 1765~?)이고 어머니는 회덕황씨이다.

한승이는 한동수의 계자로 왔다. 생부는 아버지의 바로 위의 형인 한후상(韓厚相)이고 한후상 역시 먼 친척인 한성주(韓聖周)의 계자로 갔던 것이니 한승이는 결국 가까운 혈족에게 돌아온 셈이다.

그의 자는 광서(光瑞)이고 부인은 순흥안씨(順興安氏)로 안임(安任)의 딸이다. 그가 득산동으로 오게 된 사연과 시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신창 일대에 순흥안씨들이 널리 퍼져 살았으니 혼인을 계기로 해서 온 것으로 본다. 묘는 득산동에 있었으나 농공단지 개발로 인해 신창면 오목리로 옮겨 모셨다.

한승이도 손이 없어서 친척 한직용(韓稷容)의 아들 갑교(甲敎)를 계자로 들였다. 한갑교는 다행히 용석(庸錫)과 필석(弼錫) 두 아들을 두었다. 이후 한용석이 3남3녀, 한필석이 3남을 두면서 후손이 많이 퍼져 오늘날까지 번창하고 있다.

[148] 청주한씨 한익명 | 韓翼明 (1596년(선조29년)~1651년(효종2년))

조선 중후기의 인물로 청주한씨(淸州韓氏) 21세이고 정선공파 중 돈령공파(敦寧公派) 인주면 도흥리 입향조이다. 현재 인주면 도흥리에 거주하는 후손 33세(世) 한용구(韓容九, 80세)씨의 12대조이다.

그의 고조는 별제 등을 역임한 한여필(韓汝弼)이고 증조는 문과급제 후 판관 등을 지낸 증영의정 한

효운(韓孝胤)이며 조부는 생원 한중겸(韓重謙)이다. 조부 한중겸은 《동국지리지》 등을 저술한 실학의 선구자 한백겸(韓百謙, 1552~1615)의 동생이고 딸이 인열왕후(仁烈王后-인조의 비)인 영돈령부사 서평부원군 문익공 한준겸(韓浚謙)의 형이다.

아버지는 동지돈령부사(同知敦寧府事)에 오른 한선일(韓善一)이며 어머니는 용인이씨(龍仁李氏)로 현감(縣監) 이철용(李哲容)의 딸이다.

한익명의 자(字)는 상경(商卿)이며 1624년(인조2)에 생진과에 합격하고 세자 세마로 세자 관례(冠禮)에 참석하여 말 한 필을 하사받았으며 공조좌랑, 호조정랑, 아산현감, 안성군수, 군자감판관과 인조 국장의 총호사(摠護使) 등을 역임하였다. 아산현감 재임 시 아산의 산천이 좋아서 인주면 도흥리에서 살게 되었다고 한다. 대략 370년 전으로 본다.

부인은 김해김씨(金海金氏)이고 통제사(統制使)를 지낸 김예직(金禮直)의 딸이다. 정상(鼎相), 두상(斗相), 주상(柱相) 등 3남3녀를 두었다. 큰아들 한정상이 부인 양주조씨 사이에 3남2녀를 두었고, 둘째아들은 계자로 갔으며 셋째아들 한주상은 1남2녀를 두었다. 한정상의 큰아들 종건(宗建)이 탕정면 명암리에 가서 자리 잡게 되었다.

한익명의 묘는 본래 선영이 있는 충주시 가금면 봉황리에 모셔져 있었고, 큰 아들 한정상의 묘는 탕정면 명암리 정좌산에 있었는데 지난 2007년에 모두 인주면 도흥리 종중 묘역으로 이장하였다. 이때 한익명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묘도 함께 옮겨 모셨다. 그의 후손은 인주면 도흥리와 탕정면 명암리에 등 각지에 살고 있다.



-청주한씨 종중 묘역과 한익명의 묘-



[149] 강릉함씨 함수억 | 咸秀億 <1794년(정조18년)~1852년(철종3년)>

조선 후기의 인물로 강릉함씨(江陵咸氏) 50세(世)이며 강릉함씨 해미파 아산시 지역 입향조이다. 선대는 당진 순성면 일대에 거주하였으며 선장면 장곶리 노루지로 들어와 정착하였다. 선장면 대정리에 거주하고 있는 55세(世) 함동규(咸東圭, 75세)씨의 5대조이다. 대략 180년 전으로 추정한다.

함수억의 고조부는 함무열(咸武烈)이며 증조부는 함용해(咸龍海), 조부는 함인창(咸寅昌)이다. 아버지는 함유상(咸有祥)이고 어머니는 남양홍씨(南陽洪氏)로 홍영하(洪榮夏)의 딸이다. 그의 초명은 진우(鎭佑)였으며 부인은 밀양박씨(密陽朴氏)이고 박영현(朴英賢)의 딸이다.

조선 후기에는 선장 일대에 간척사업이 이루어지고 곳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들어와 자리 잡는 일이 많았다. 집안에서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함수억도 역시 이곳에 들어와 궁개와 안개 일대의 간척에 참여하여 기반을 확보하였다고 한다.

그는 홍철(弘哲), 홍모(弘謨), 홍선(弘善) 등 세 아들을 두었으며, 그들이 아들을 한두 명씩 두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함홍모의 후손이 많은 편이다. 대부분 선장의 대정리, 봉농리, 장곶리 등에 거주하였고 일부는 송악면 강장리로 이주하기도 했다.

함수억의 묘는 원래 삼교천 건너 함덕 운산리에 모셨는데 장례 때에도 배로 건너다니느라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후손들이 도고면 향산리에 선산을 마련하고 그의 묘는 물론 당진 순성면 지역에 있던 5대조 함이천(咸以天)의 묘도 지난 2001~2002년에 걸쳐 옮겨 모셨다. 더불어 함이천 이후 이른바 해미파의 후손들 묘는 납골당을 세워 함께 모시고 있다.



함수억의 묘와 종중 납골당

[150] 양천허씨 허린 | 許璘 <1661년(현종 2년) ~ 1753년(영조 29년)>

조선 후기의 무신으로 양천허씨(陽川許氏) 23세(世)이며 고산공파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입향조이다. 현재 염치읍 산양리에 거주하는 후손 32세(世) 허창욱(許昌旭, 85세)씨의 9대조이다.

인조 때 좌승지를 지낸 고산(孤山) 허항(許恒)의 증손자이고 문과급제 후 현감을 지냈고 통정대부에 오른 허감(許愷)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대사헌에 추증된 허집(許緝)이다. 어머니 신창명씨는 참판 맹세형(孟世衡)의 딸과 평산신씨 현감 신평(申悺)의 딸이며 생모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허린은 3남1녀 중 둘째아들이며 자는 사염(士琰)이다. 부인은 기계유씨(杞溪俞氏)로 군수 유하진(俞夏震)의 딸과 남양홍씨(南陽洪氏)이다. 허린이 언제 왜 염치 산양리로 들어왔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어머니의 친정이 온양이고 부인 둘 모두 아산 지역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아 외가 쪽 인연 혹은 혼인으로 인해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는 1730년에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 1735년에 행용양위 부호군 겸 오위장에 제수되었다. 90세 되던 1750년에 아들 허옥(許沃)으로 인해 정헌대부에 가자되고 동지중추부사 행돈녕부도사에 제수되었다. 문중에서는 증직인 동지중추부사에 따라 '동추공(同樞公)'으로 칭한다. 묘는 아산시 인주면 해암리 안골 중중 묘역에 있다.

그의 아들 허옥(許沃, 1680~1744)은 문과급제 후 대사간과 좌승지 등을 거치고 통정대부에 올랐다. 이후 후손들이 학문과 관직에서 여럿이 이름을 알렸으며 현재는 염치읍 산양리를 중심으로 각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



-허린의 묘-



-아들 허옥의 묘-



[151] 연주현씨 현기 | 玄琦 <1520년(중종15년)~1580년(선조13년)>

조선 중기의 무신이며 연주현씨(延州玄氏) 13세로 도침의공파 중 참판공파 아산시 지역, 도고면 도산리 입향조이다. 현재 신인동에 거주하는 26세(世) 현중수(玄鍾秀)씨의 13대조이다. 선대는 경북 예천에 중심을 두었는데 후손이 천안 풍세를 거쳐 도고 지역으로 들어왔다. 약 450년 전으로 본다.

1374년(공민왕23년) 문과 급제 후 판전의시사와 예의판서(뒤에 예조판서)를 역임한 현옥량(玄玉亮)의 6세손이고 이조정랑을 지낸 현규(玄珪)의 현손이다. 세종 때 문과에 급제하고 전주판관을 역임할 때 이시애의 난에 출정하였다가 전사하였고 원종공신에 오른 현득리(玄得利)의 증손이다. 현득리는 천안전씨와 혼인하면서 풍세에 자리 잡아 후손이 천안 지역에 퍼지게 되었다. 음식으로 사헌부감찰과 송화현감을 역임한 현분(玄賁)이 현기의 조부이다. 아버지는 부사직을 지낸 현윤무(玄允武)이고 어머니는 울산이씨(蔚山李氏)로 별제 이순필(李舜弼)의 딸이다.

현기의 자는 언윤(彦潤)이며 부인은 김해김씨(金海金氏)로 김세준(金世俊)의 딸이다. 선무랑으로 훈련원 습독관(習讀官-종9품)을 역임하였다. 그가 언제 어떤 사연으로 도고에 들어왔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묘는 현재 도고면 도산리에 있다.

그는 덕량(德良), 덕옹(德顛), 덕룡(德龍), 덕린(德鄰) 등 네 아들을 두면서 아산 지역에 후손이 널리 퍼졌다. 큰아들 현덕량의 후손이 도고 지역, 넷째 아들 현덕린의 후손은 용화동과 태안군으로 퍼져 나갔으니 도고면 일대와 용화동, 배방읍 회룡리, 송악면 중곡리 등 각지에 그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 아산시 지역에 거주하는 후손들은 도고 지역이 옛 신창현에 속했기 때문에 '신창파(新昌派)'로 칭하고 있다.



-현기의 묘와 묘표-

[152] 풍산홍씨 홍중징 | 洪重徵 <1682년(숙종 8년) ~ 1761년(영조 37년)>

조선 후기의 학자이자 문신이며 풍산홍씨(豊山洪氏) 14세로 문경공파 남원공계의 아산시 지역, 배방읍 세교리 입향조이다. 선대는 주로 서울과 경기도 고양 지역에 거주하였다. 배방읍 세교리에 살고 있는 23세(世) 홍병식(洪丙植, 63세)씨의 9대조이다.

그는 대사헌을 역임한 문경공(文敬公) 홍이상(洪履祥)의 현손이고 통정대부로 남원부사를 지내서 ‘남원공’으로 칭하는 홍탁(洪鬻)의 증손이며 진사과 급제 후 양성현감을 지낸 홍주천(洪柱天)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사마시와 문과 급제 뒤 여덟 번의 관찰사와 형조·공조판서 등을 거쳐 판돈녕부사에 오른 호 만퇴당(晩退堂) 시호 정익공(貞翼公) 홍만조(洪萬朝, 1645~1725)이다. 어머니는 안동권씨로 증참의 권진(權瑱)의 딸이다.

그는 중형(重亨), 중휴(重休), 중인(重寅), 중징(重徵) 등 4남 2녀 중 넷째 아들로 한성에서 태어났다. 위의 첫째 홍중형은 안성을 거쳐 천안 쪽에, 둘째 홍중휴는 충주 지역에, 셋째 홍중인은 천안 쪽에 터를 잡았고 첫째와 둘째는 만퇴당 생전에 먼저 죽었다.

홍중징의 초명(初名)은 중흠(重欽)이고 자는 석여(錫餘) 호는 오천(梧泉)이다. 부인은 동래정씨이며 정주(鄭瑀)의 딸이다.

그는 사마시를 거쳐 문과에 갑과 3위로 급제하였고 용인현감 등을 지낸 뒤 1728년(영조 4) 장령에 제수되었다. 이 해에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자 난을 토벌할 계책을 올려 이듬해(1729)에 분무원종공신에 녹훈되었다. 이후 제주목사, 형조참판 등을 거쳐 1754년(영조 30)에 공조판서에 오르고 기로소(耆老所)에 들게 되었다. 79세 때인 1760년(영조 36)에 마침내 사직이 윤희되니 왕은 손수 글을 써서 그를 포장(褒獎)했다. 80세가 되어 정1품 승록대부(崇錄大夫)에 올랐고 치사봉조하(致仕奉朝賀)에 제수되었고 그 해에 생을 마감했다. 시호는 양효(良孝)이다.

그가 배방 세교리에 들어온 시기와 사유는 불명확하다. 일부에서는 그의 아버지인 홍만조를 입향조로 보고 있으나 홍만조는 배방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홍만조와 홍중징의 묘가 세교리 같은 장소에 있는데 이는 사패지이기 때문이다. 홍중징은 세교리에 거주하였고 그의 아들 순보(純輔) 때에 회룡리로 이주하였다. 이후 홍중형의 현손 홍희빈(洪羲賓, 1740~1814)이 다시 세교리로 들어왔으며 그 후손들은 스스로 ‘만퇴공파’로 칭하기도 한다. 이와 구분하여 홍중징의 후손들을 ‘봉조하공파’로 칭하기도 한다.

홍순보는 노성현감을 지냈고 극호(克浩), 제한(梯漢), 옥호(旭浩) 등 세 아들을 두었다. 홍옥호



(1740~1817)는 꽃과 나무를 가꾸고 의약에도 조예가 깊어 왕(정조)을 진료하기도 하였다. 이후 주부, 군수, 부사 등 여러 내외직을 거치고 호조참판 겸 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에까지 올랐으며 가의대부(嘉義大夫-종2품)로 승차된 뒤 사직을 허락받았다. 귀향 후 그가 죽었을 때 집에 곡식 한 섬이 없었을 만큼 검소하게 살았다고 한다.

풍산홍씨 후손들은 배방읍 세교리와 회룡리를 세거지로 하여 인근 천안과 당진, 그리고 서울 등에 널리 퍼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홍중징의 묘(세교리)-



-풍산홍씨 사적비(회룡리)-

[153] 남양홍씨 홍은 | 洪暹 <1521년(중종16년)~1579년(선조12년)>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이며 남양홍씨(南陽洪氏) 13세로 남양홍씨 토홍(土洪)계 참의공파 아산시 염치읍 대동리(황골) 입향조(入鄕祖)이다. 대동리 출신으로 현재 모종동에 거주하고 있는 후손 28세(世) 홍승욱(洪承旭, 62세)씨의 15대조이다.

고조는 문과급제 후 중추원사에 오르고 좌익원종공신1등에 책훈된 홍익생(洪益生)이고 증조는 무과 급제 후 경상좌도 수군절도사를 지낸 홍귀해(洪貴海)이며, 조부는 문과급제(1485년) 후 이조참의에 오르고 무오사화에 유배당한 홍한(洪瀚)이다. 아버지는 생진과에 급제하고 내섬시 판관을 지낸 증

이조판서 홍윤창(洪胤昌, 1484~1546)이고 어머니는 안성이씨(安城李氏)로 현령 이정숙(李正叔)의 딸이다.

차남으로 태어난 홍온은 초명이 황(晃)이고 자는 경휘(景輝)이다. 부인은 흥양신씨(興陽申氏)로 군수 신윤필(申允弼)의 딸이다.

1549년(명종 4) 진사시에 급제하고 관직은 장원서(掌苑署) 장원(掌苑-정6품)에 이르렀다. 그는 경기도 남양(南陽)에 거주하다가 처가(妻家)가 있는 아산 염치 대동으로 내려와서 자리 잡고 살게 되었다. 후손이 끊어진 흥양 신씨 집안의 묘에 남양 홍씨 문중에서 지금까지도 외손봉사(外孫奉祀)로 제사를 모시고 있다.

그는 가신(可臣), 민신(敏臣), 경신(慶臣), 덕신(德臣) 등 네 아들을 두었다. 장남인 만전당(晩全堂) 문장공(文壯公) 홍가신(洪可臣, 1541~1615)은 임진왜란 중 홍주목사로 재임하며 이몽학의 난(1596년)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워 청난공신(淸難功臣) 1등으로 영원군(寧原君)에 봉해졌으며, 형조판서에 올랐고 아산의 인산서원(仁山書院)과 온양의 정퇴서원(靜退書院)에 배향되었다. 홍온은 장남 홍가신으로 인해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되고 익녕부원군(益寧府院君)에 봉해졌다. 둘째아들 홍민신은 진사시에 합격하고 형조좌랑에 오르고 정난원종공신에 녹훈되었고, 셋째아들 홍경신은 문과급제 후 호조참의 등 여러 관직을 거쳐 부제학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그가 아산 대동리에 자리 잡은 이후 후손들이 크게 번창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의 묘는 경기도 과천(果川)에 있었으나 서울시 확장으로 인해 1967년에 그가 살던 염치읍 대동리로 옮겨 모셨다. 후손들은 염치읍 대동리를 중심으로 아산시 각지에서 살고 있다.



-홍온의 묘-



-아들 만전당 홍가신 기념관-



[154] 남양홍씨 홍익현 | 洪益賢 <1537년(중종32년)~1613년(광해군5년)>

조선 중기의 은일·학자이며 남양홍씨(南陽洪氏) 20세로 당홍(唐洪)계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입향조이며 송재공파(松齋公派) 파조이다. 현재 염치읍 백암리에 거주하고 있는 후손 34세(世) 홍덕표(洪德杓, 81세)씨의 14대조이다.

가정대부 한성부윤 홍심(洪深, 1398~1456)의 현손이고 동지중추부사에 오른 홍흥(洪興, 1424~1501)의 증손이며, 진사시를 거쳐 사섬시정에 오르고 「기묘록속집」에 이름이 전하는 홍사부(士俯)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돈녕첨정을 지낸 홍정(洪靜, 1505~1583)이며 어머니는 장수황씨(長水黃氏)로 봉사 황헌(黃憲)의 딸이다.

홍익현은 6남2녀 중 둘째아들이다. 자는 군우(君友)이고 초호는 송곡(松谷), 호는 송재(松齋)이다. 천거로 시흥찰방과 수운판관(水運判官)에 제수되었지만 관직에 뜻을 두지 않아 모두 사양하였다.

집안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 목천(천안시 동면)에 살던 그는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좋은 곳을 찾아 염치 송곡리에 들어와 자리 잡았다. 대략 400년 전의 일이다. 마을 이름을 따서 호를 송곡(松谷)이라 했다. 뒤에 호를 송재(松齋)로 하면서 후손들이 ‘송재공’으로 칭한다. 금병산(錦屏山) 자락 장자못 위에 집을 짓고 강학에 전념하였다. 일찍이 충무공 이순신을 서평 한준겸(韓浚謙)과 서애 유성룡(柳成龍)에게 천거하였으며, 염치읍 서원리의 인산서원(仁山書院) 건립을 주도하였다.

부인은 양성이씨, 온양정씨, 여흥민씨(驪興閔氏) 등 셋이었다. 두 부인은 사이에 자녀가 없었고 여흥민씨 선교랑 민영(閔瀛)의 딸 사이에 척(倬) 등 1남2녀를 두었다. 아들 홍척(洪倬, 1580~1645)은 부인 진주강씨 대사헌 강침(姜籤)의 딸 사이에 우중(又中), 우명(又明), 우징(又澄) 등 3남3녀를 두었다. 큰아들 홍우중은 송곡리에 거주하면서 만(萬), 급(莢), 억(億) 등 3남을 낳아 점차 후손이 늘게 되었다. 이 중 셋째아들인 홍억은 음봉면 월랑리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

홍익현의 묘는 그의 고향인 목천에 있다. 그의 후손들은 염치읍 송곡리와 백암리, 음봉면 월랑리를 중심으로 천안의 목천, 연기군 전의면 대평리, 대전, 서울 등 각지에 살고 있다.



-홍익현의 '송곡동문' 각자-

[155] 회덕황씨 황도간 | 黃道幹 <1763년(영조39년)~1833년(순조33년)>

조선 후기의 인물로 회덕황씨(懷德黃氏) 17세이며 신창파(新昌派) 인주면 공세리 입향조이다. 현재 신창면 신곡리에 거주하는 23세(世) 황수갑(黃修甲, 84세)씨의 6대조이다.

고조는 진안현감을 지낸 황염(黃爌)이고 증조는 양천현령을 역임한 황이장(黃以章)이며 조부는 황만선(黃萬銑)이다. 아버지는 황시빈(黃時贇)이며 어머니는 청송심씨(靑松沈氏)로 심종(沈鍾)의 딸이다.

황도간의 자는 직향(直鄉)이며 부인은 평강채씨(平康蔡氏) 통덕랑 채현곤(蔡顯坤)의 딸과 양주조씨(楊州趙氏) 조완경(趙完慶)의 딸이다.

그가 언제 왜 인주 공세리로 들어왔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그의 묘가 연기 전의의 선산에 있어서 그의 아들 대에 들어왔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후배인 양주조씨의 묘가 영인면 성내리에 있고 그의 두 아들이 모두 아산시 지역에 자리 잡고 묘도 아산시 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처음 들어왔고 묘는 선대의 묘가 있는 전의에 모신 것으로 본다.

그는 기현(耜顯)과 구현(龜顯) 등 2남1녀를 두었다. 큰아들 황기현(1796~1862)은 공세리 지역에 계속 거주하였고, 외아들 황재성(黃在星)과 외손자 황일호(黃一鎬)로 이어지다가 황일호가 3남1녀를 두면서 후손이 좀 생기게 되었고 묘는 3대가 모두 인주면 냉정리에 있다. 이후 후손 중 일부가 곡교천 남쪽의 신창면 신곡리로 이주하면서 '신창파'로 칭하게 되었으며 음봉 지역의 집안들도 모두 신창파에 포함된다.

그의 둘째아들 황구현(1808~1886)은 음봉면 신희리 부영골에 자리 잡았고 재정(在鼎), 재휘(在徽), 재헌(在憲), 재광(在光) 등 4남을 두면서 후손이 많이 늘게 되었다. 이들은 묘가 모두 음봉 신희리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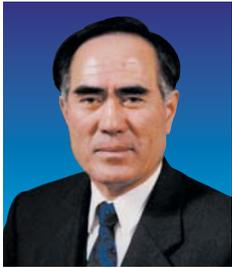
14세(世)에서 갈라진 같은 집안의 18세(世) 황중현(黃鍾顯)이 탕정면 갈산2리 여술 마을에 자리 잡았다. 황중현은 부인 신창맹씨 사이에 황재순(黃在舜)을 낳고 황재순이 준호(俊鎬), 진호(進鎬) 등 2남1녀를 두었다. 황준호가 3남1녀, 황진호가 1남을 두며 후손이 '갈산파'를 칭하게 되었다.



아산의 입향조 편찬위원



김 시 겸
온양문화원장
011-422-3476



김 일 희
영인향토지편찬추진위원장
017-411-5784



천 경 석
현아산고등학교 교사
011-452-3953



홍 승 욱
아산미래장학회 회장
011-426-9874



이 일 용 (간사)
온양문화원 사무국장
011-423-4476



이 충 경 (간사)
온양문화원과장
011-457-2937



